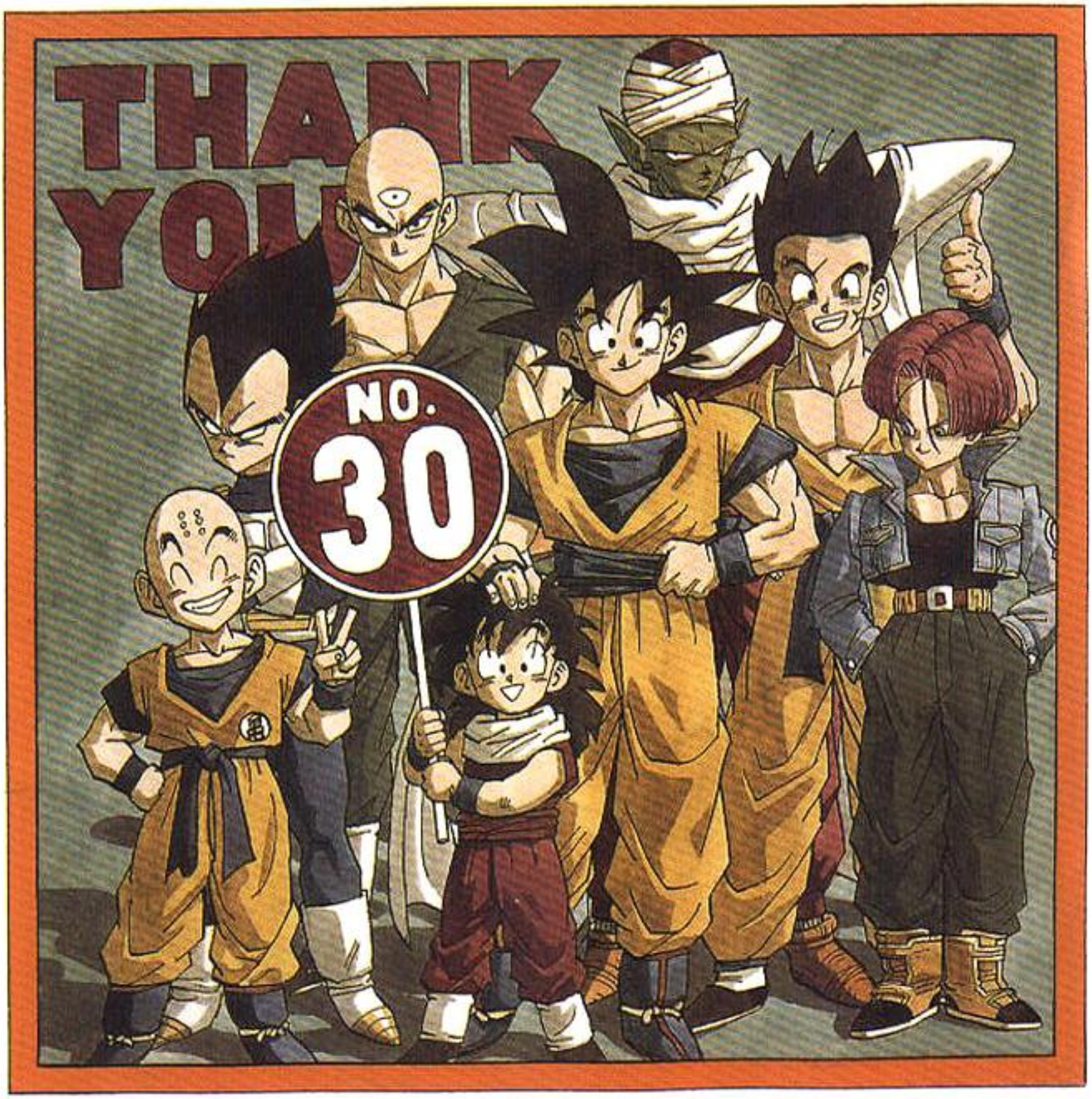
IQ JUMP COMICS
무수정 오리지널 한국어판

DRAGON BALL
드래곤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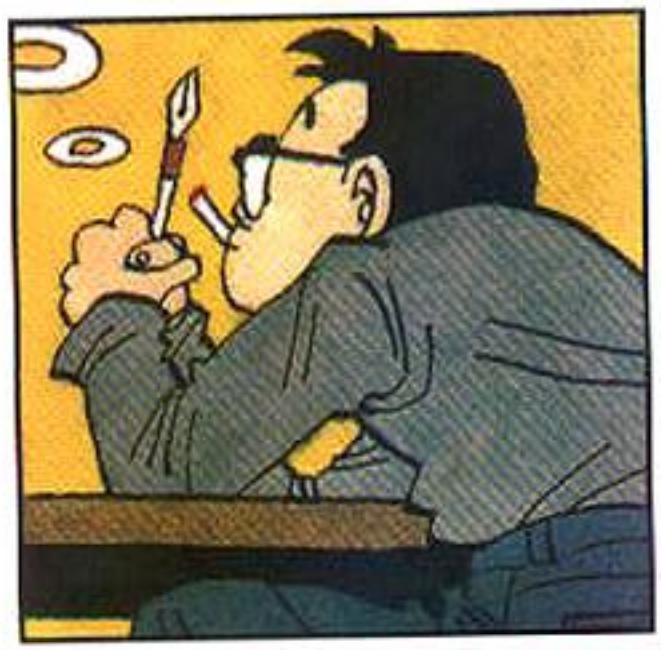
AKIRA TORIYAMA



★30 사악한 예감

anned by raprn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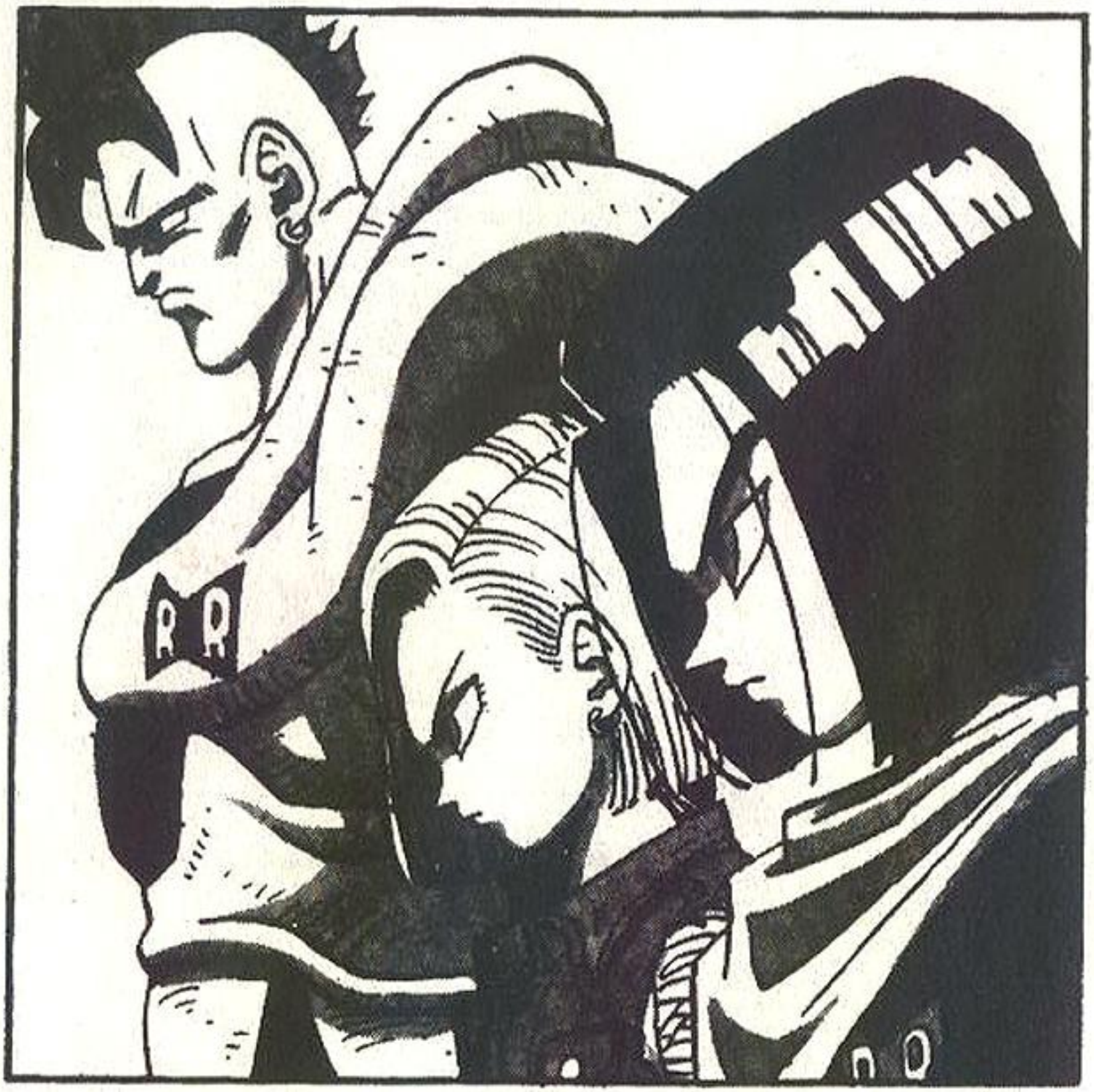


AKIRA TORIYAMA

-토리야마 아키라-

이 [드래곤 볼] 코믹스도 마침내 30권 째가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였던 손오공도, 지금에 있어선 완전한 아빠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만화를 계속 그릴 수 있었던 것도,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있는 덕분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건 그렇고, 싫증 잘 내기로 소문난 내가 7년 이상이나 같은 일을 잘도 계속할 수 있다니, 다시 한번 스스로 감격하고 있습니다.

anned by raprnb



DRAGON B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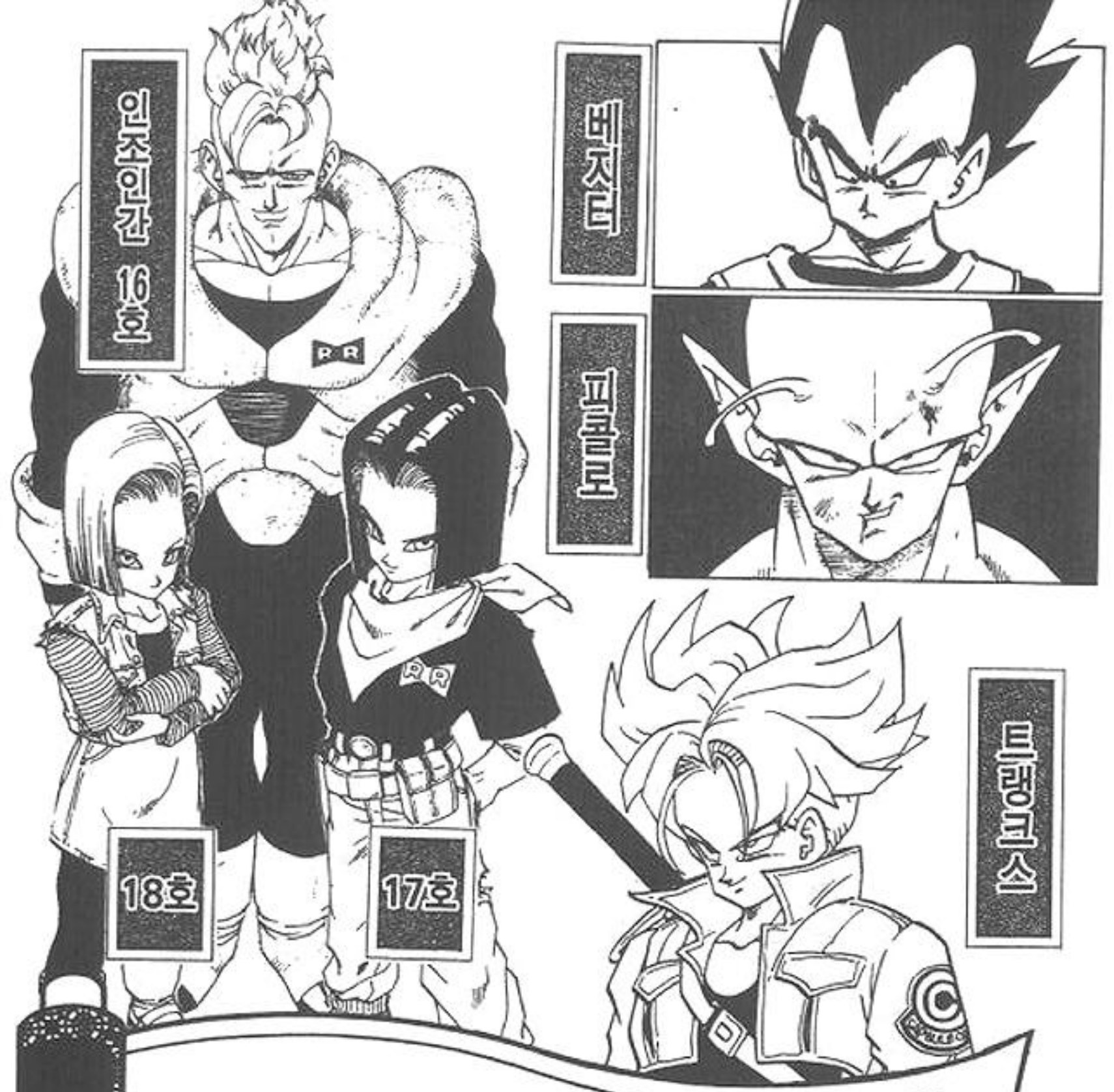
드래곤 볼

제30편 사악한 예감

AKIRA TORIYAMA

등장인물소개





지난 줄거리

아주 먼 옛날. 7개가 모이면 용신이 나타나 소원을 들어준다는 드래곤 볼을 찾아 여행을 하던 손오공은, 대모험 끝에 모든 구슬을 모은다. 그렇지만 나쁜 곳에 쓰일 뻔했기 때문에, 엉터리 소원을 말해버려 소원을 이룬다. 용신은 한 번 소원을 들어주면 1년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그 동안 거북신선 밑에서 수련을 쌓은 오공은, 다시 드래곤 볼을 찾아 여행을 떠나고,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 우승을 이룬다. 그 후 잃어버린 드래곤 볼을 둘러싸고 프리더 일당과 대 쟁탈전을 벌인다. 초사이어인으로 변신하여, 마침내 프리더를 쓰러뜨린 오공. 하지만 3년 후, 인조인간 19호 · 20호와의 전투 도중 심장병에 걸리고, 전투에선 패해버린다. 그리고 지금, 더욱 강력한 파워를 지닌 17호 · 18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DRAGON BALL 30

사악한 예감



제350화 17호·18호, 그리고… 16호 …… 7
제351화 수수께끼의 16호 …… 22
제352화 베지터 대 18호 …… 36
제353화 베지터의 파워 …… 50
제354화 인조인간들의 여유 …… 64
제355화 피콜로의 결심 …… 80
제356화 신님의 조건 …… 99
제357화 부르마로부터의 소식 …… 114
제358화 사악한 예감 …… 128
제359화 신님은 보았다!! …… 142
제360화 신과 대마왕의 융합 …… 156
제361화 수수께끼의 괴물, 드디어 출현!! …… 170
표지 페이지 대특집 XXIX …… 185

DRAGONBALL

드래곤 볼

제350화 17호 · 18호, 그리고… 1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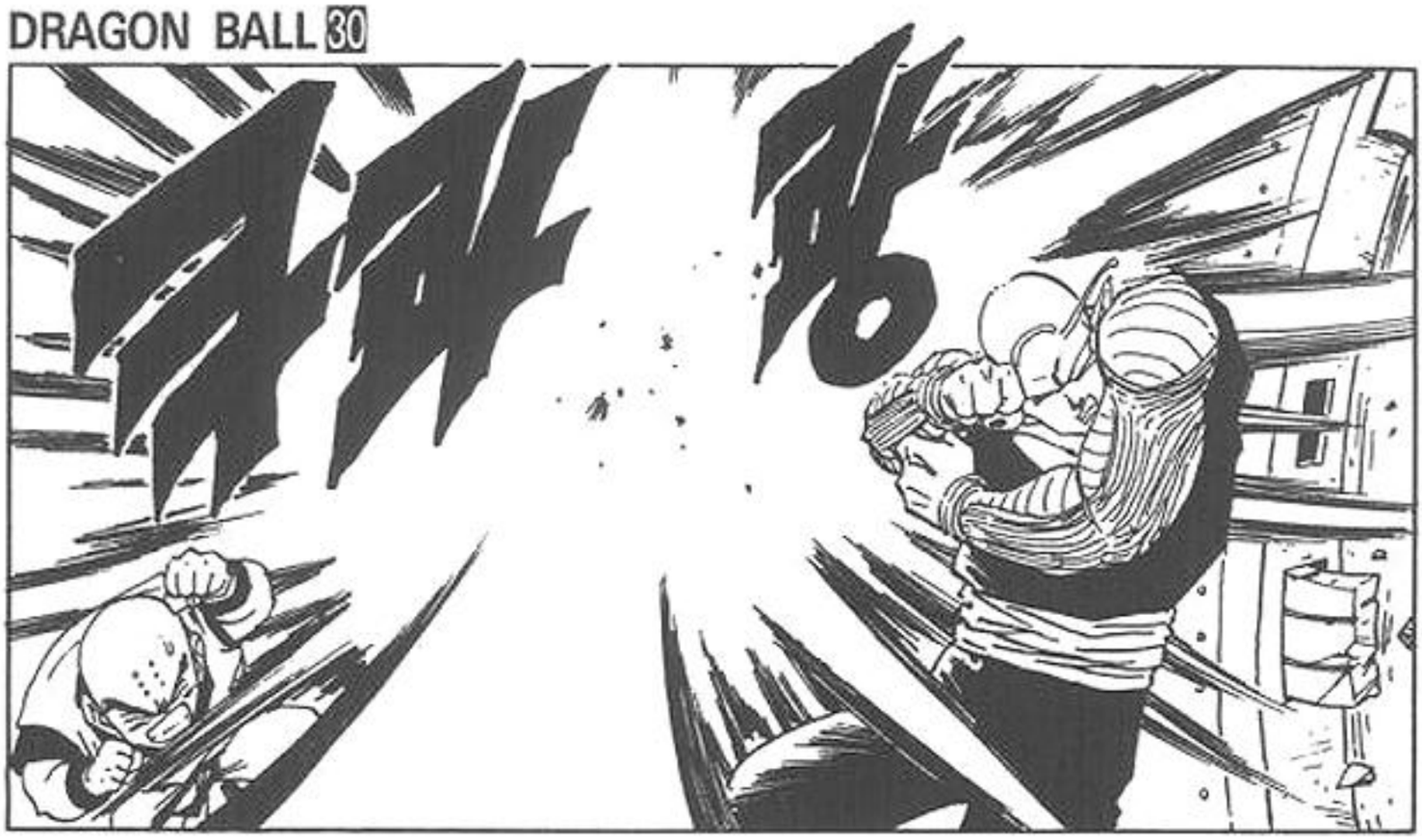
제길!
늦었나…!?

손오공
아저씨가
부활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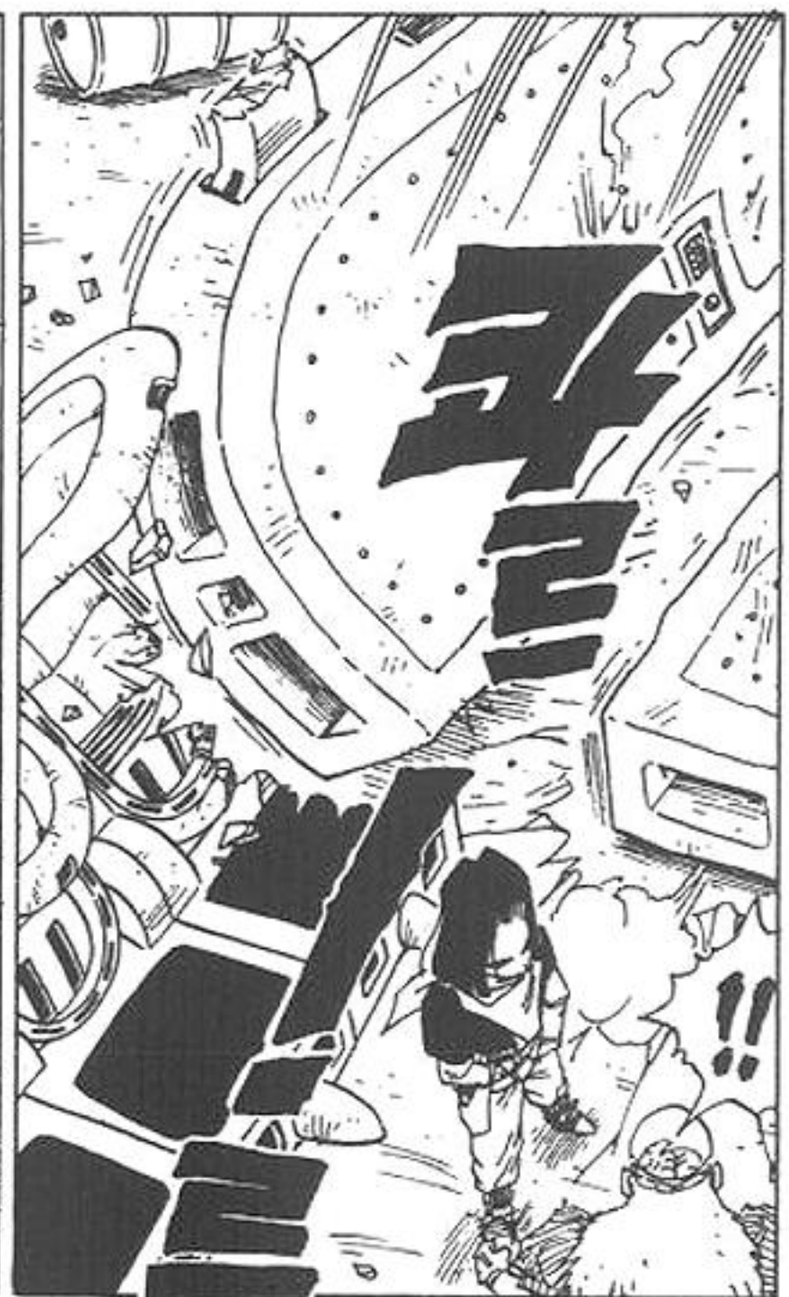
안 돼!
지금은 우선
피하는 게
상책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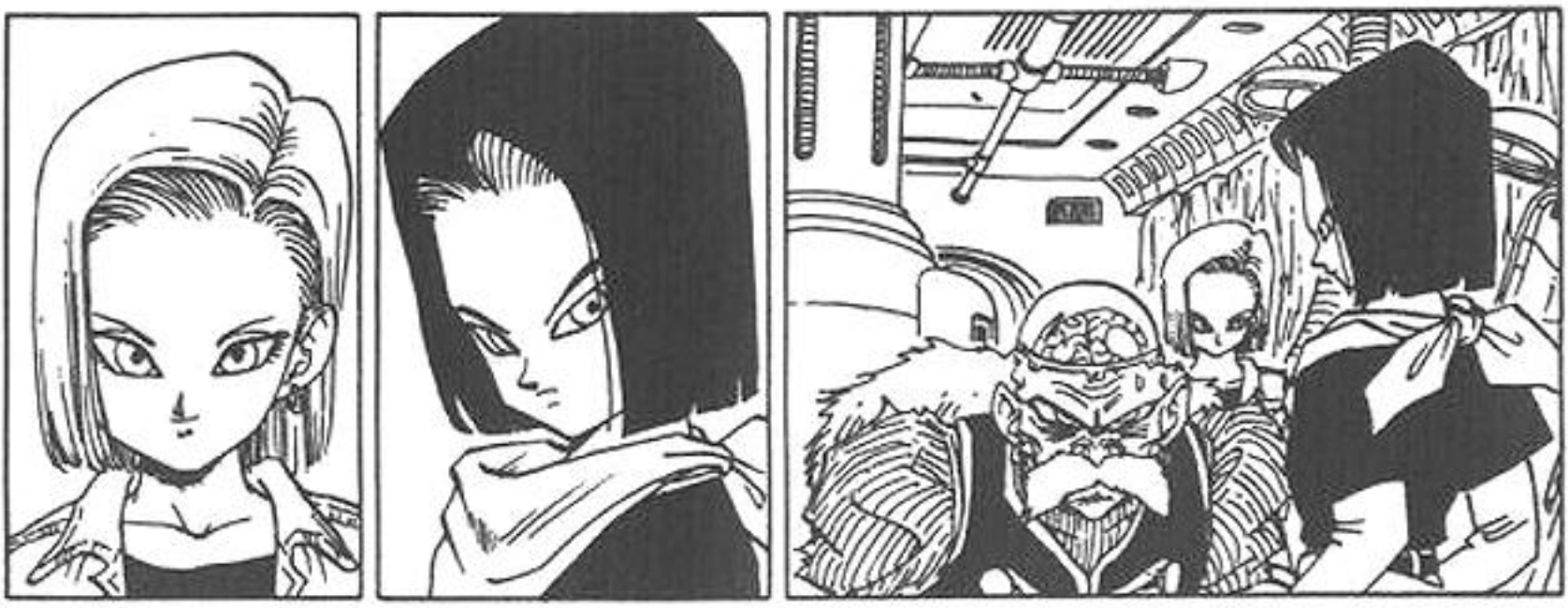
비켜,
임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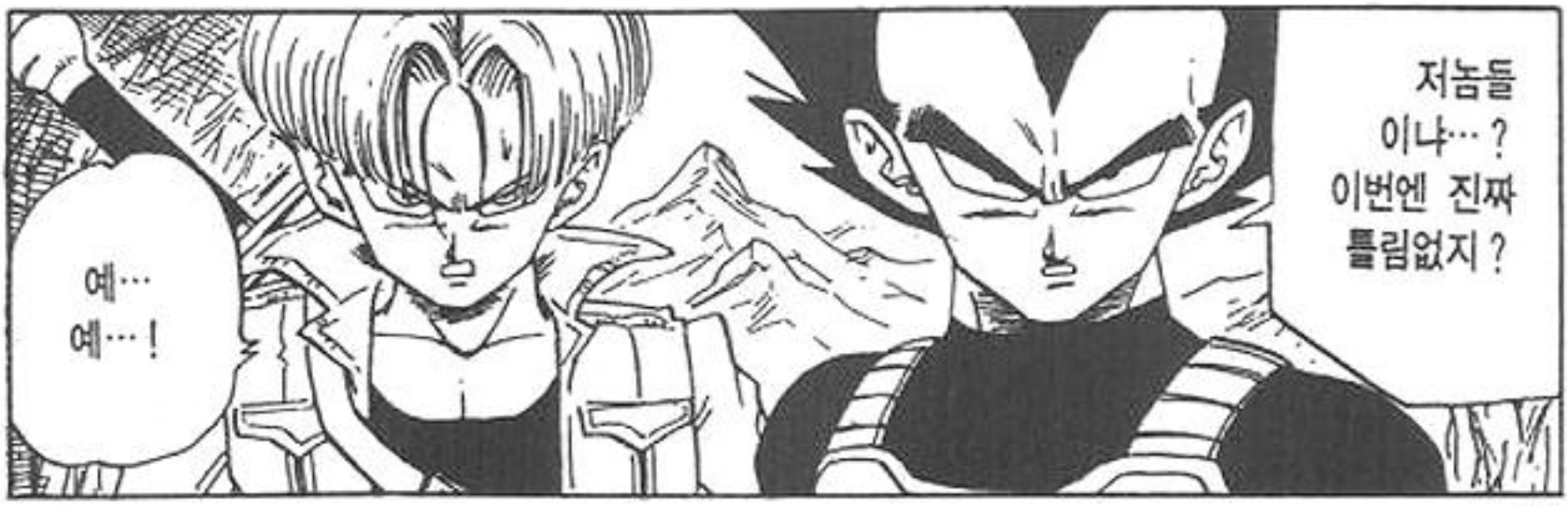
필요
없어!


ガバッ




ヒュ
!!




저놈들
이냐…?
이번엔 진짜
틀림없지?
예…
예…!


겉모습에서
풍기는 분위기에만
홀리면 안 돼!
진짜 무서운 놈들
이라구!
저…
두 사람
17호
18호…


그딴 것도
만들었단 말야…?
그렇군. 그놈을 시켜서
박사 자신을 개조시킨
거지? 어떤 타입
이었지? 에너지
흡수식이었나?
19호?
그…
그래.
그렇다….


저놈들이다
예전에 얘기했던 손오
이랑 한패거리들이
절대 얕보지 마
19호를 파괴하
나도 죽을 뻔했


감당할
수가 없다…
고…?


그딴 건
아무래도 좋아!
빨리 저놈들을
쳐치 못하겠냐!


왜 신형인데 낡아빠진
에너지 흡수식으로
만든 거지? 영구식 타입
파워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랬나…? 그러니까
당한 거잖아.

뭐,
뭐라고!?

시끄럽게
칭얼거리지 마.
우린 우리가
하고 싶을 때
한다.

!!

그치만
우리하고는
종류가
다르겠지.

16

약간
대형이네.
어디가
다른 거지?

이것도
영구식
타입이군.

16호
인가…?

16호 따위 난 모르는데 …!

뭐…, 16호라고…!?

건드리지 마, 18호! 만지면 안 돼!!

16호는 실험형으로, 실패작이야! 절대로 작동시켜선 안 된다구!

그만둬! 아, 안 돼! 이 세상 모든 것을 멸망시켜 버리고 싶냐!?

작동시켜 봐라, 18호.

재밌을 것 같아.

어쨌든 깨우지 마! 나랑 너희들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다구!!

어…, 얼마 후에 다시 만들 생각이었어 …!

15호까지는 다 처분해 버린 것 같은데.

실패작이라면서 왜 계속 남겨둔 거지?

나 말고는 도저히 쪽도 못쓸 상대일 테니까.

그러는 게 좋겠지….

저… 저봐…. 다투는 동안에 도망치는 게 좋지 않을까…?

맘대로 하셔! 너희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줄 테니까!

이… 이것들이 진짜 사람말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16호도 똑같이 실패작이야!!

상관없으니까 작동시켜라, 1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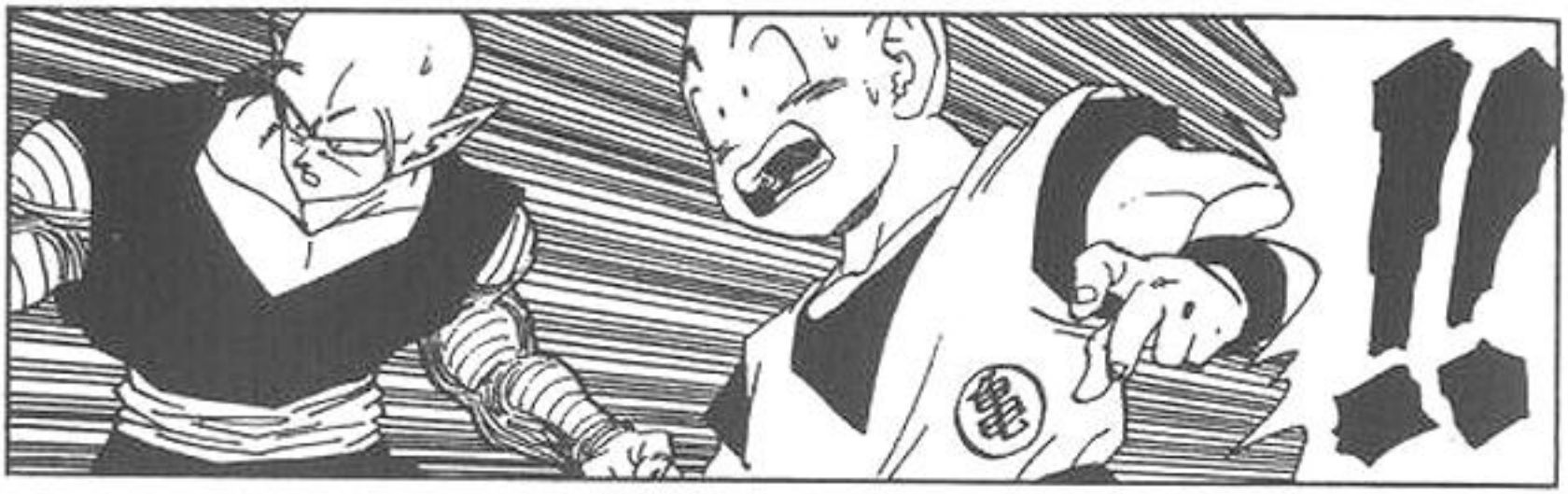
우리 목숨까지 위험해질지 모른다!? 후후후…. 파워수치는 우리가 더 높은데도?

다시 만들면 되지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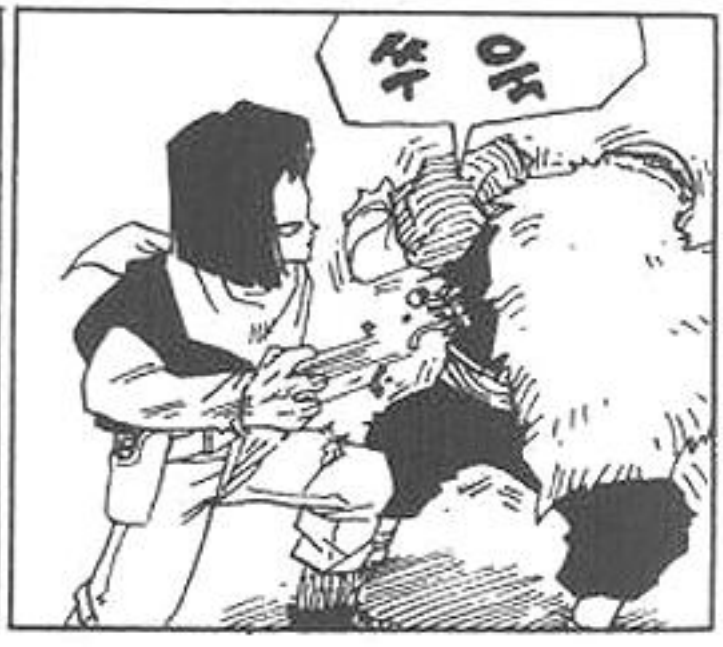
제어 컨트롤러는 이미 파괴했는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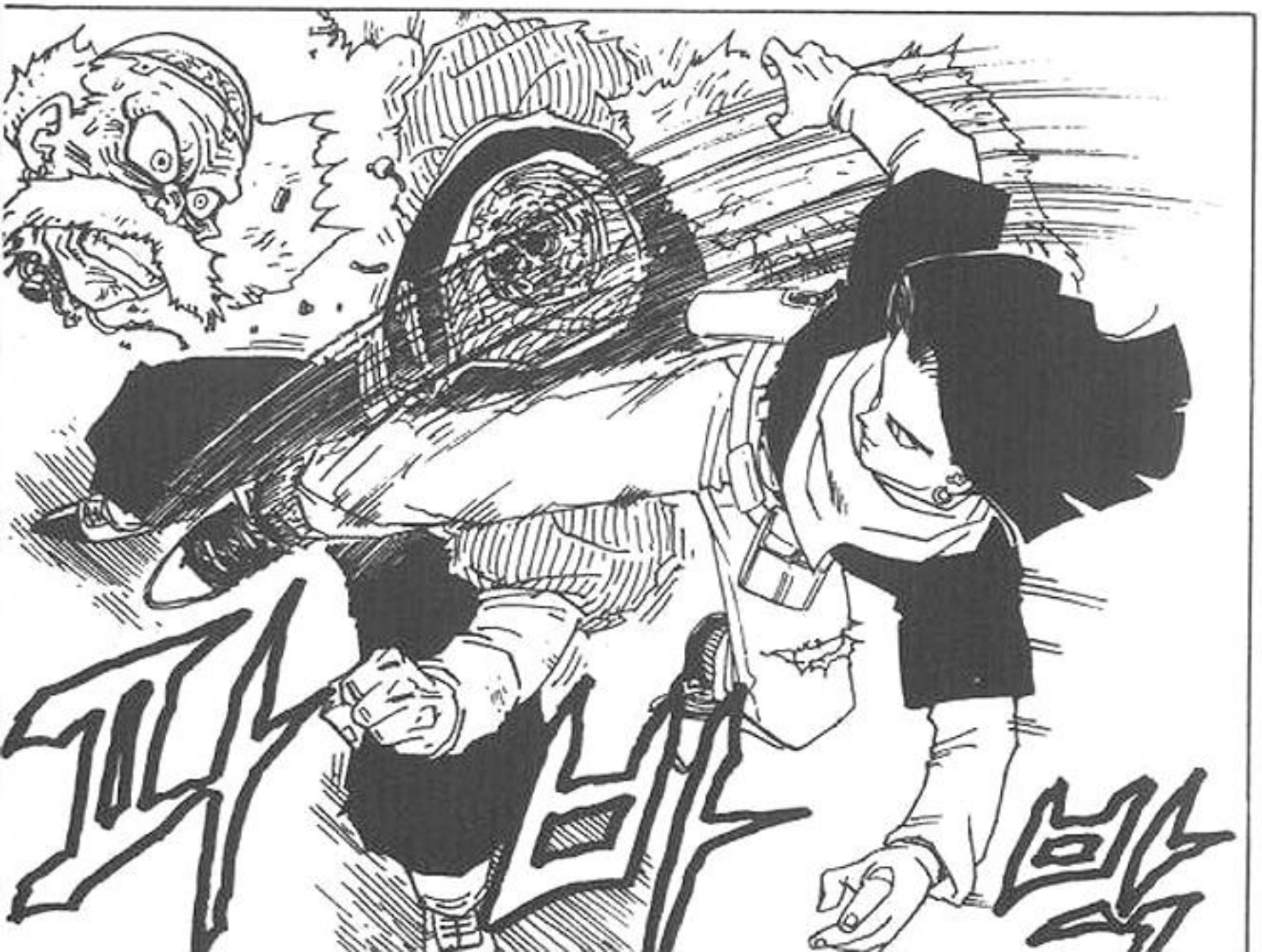
그렇게 소릴 질렀는데도 모르겠냐! 스위치 누르지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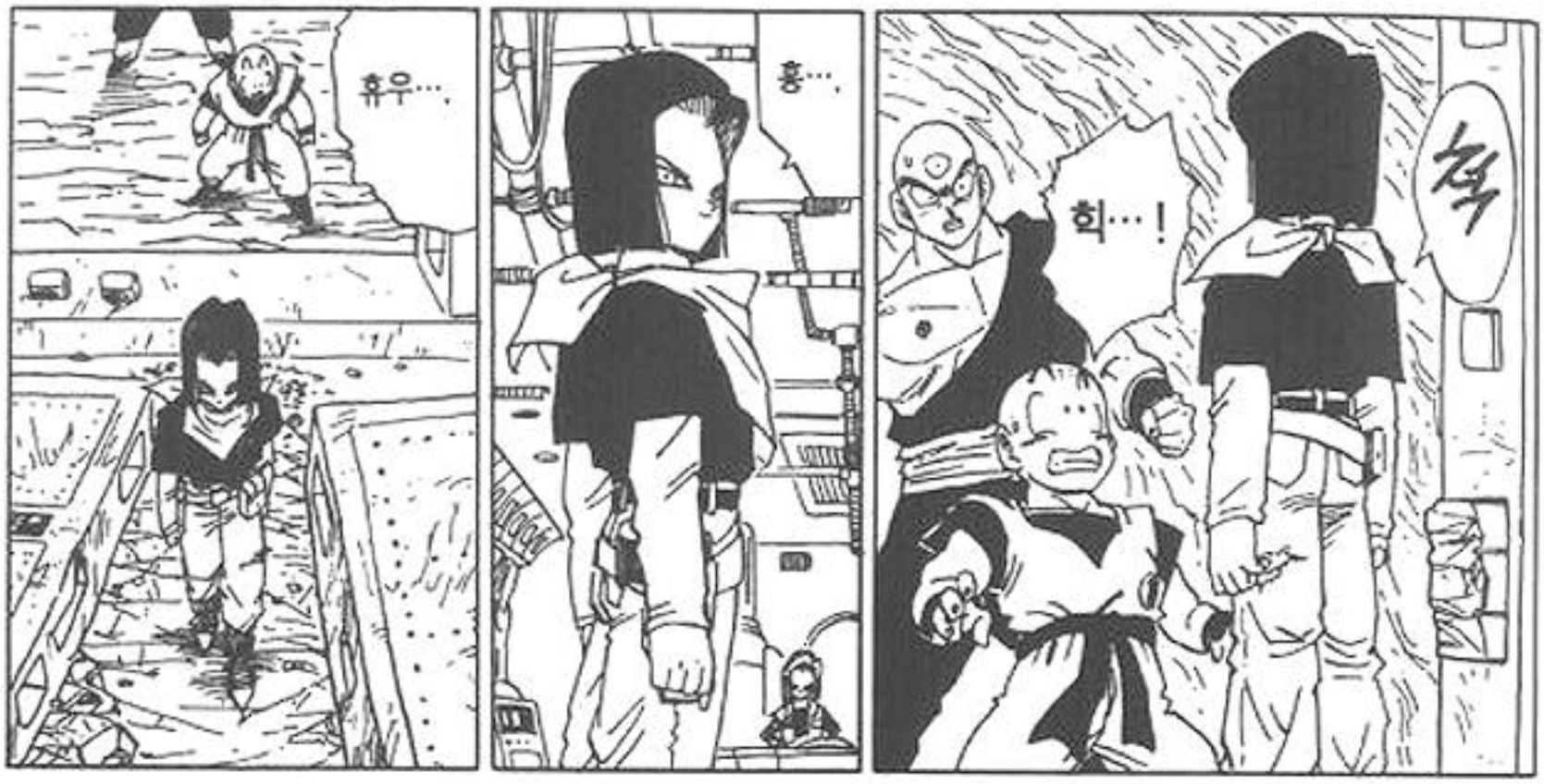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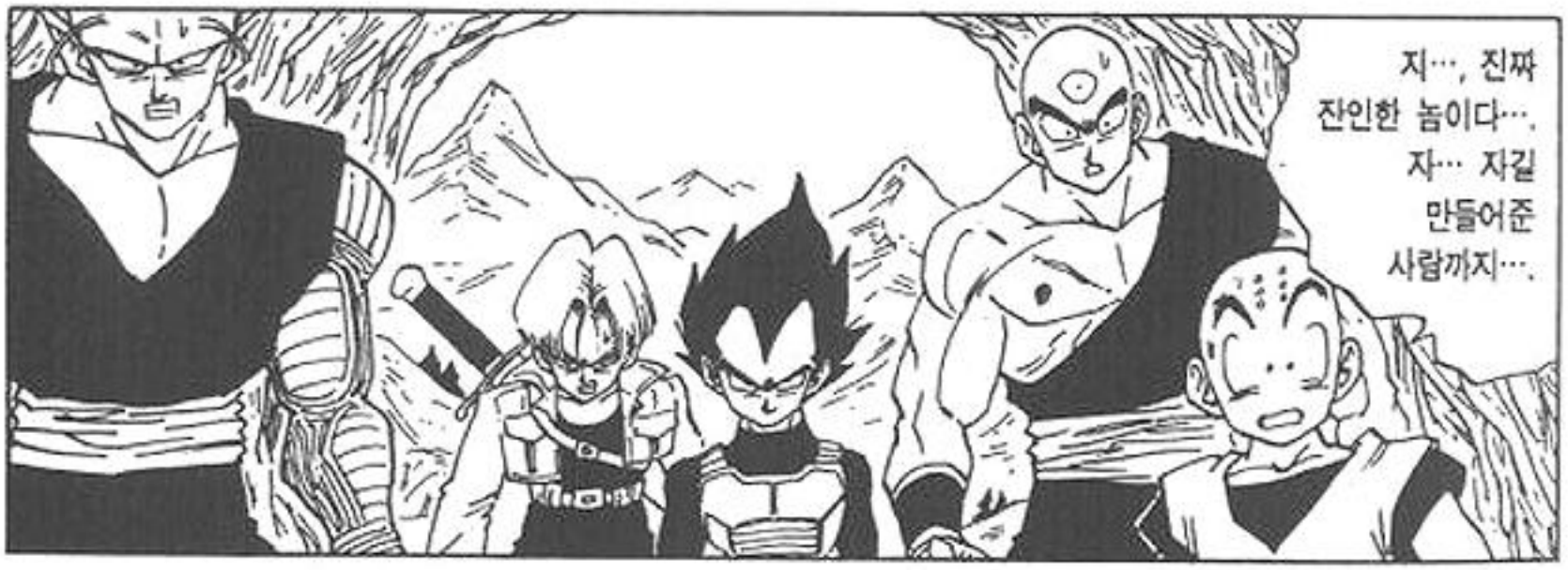

이…
이놈이…,
감히
뭔 짓을…!


쑤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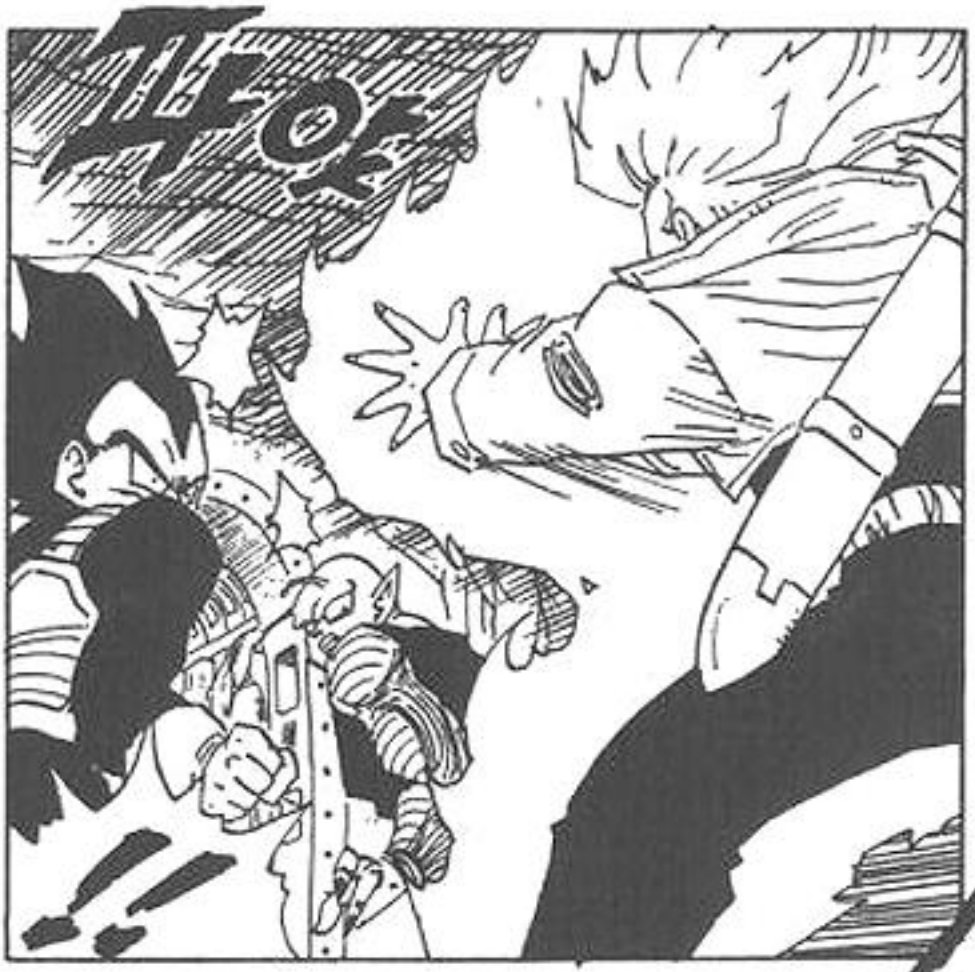



데굴데굴…
……!
이… 이놈들….
이… 이 잡동사니 쓰레기들이 ….
!!
……!
씨익….


휴우…
흥…
휙
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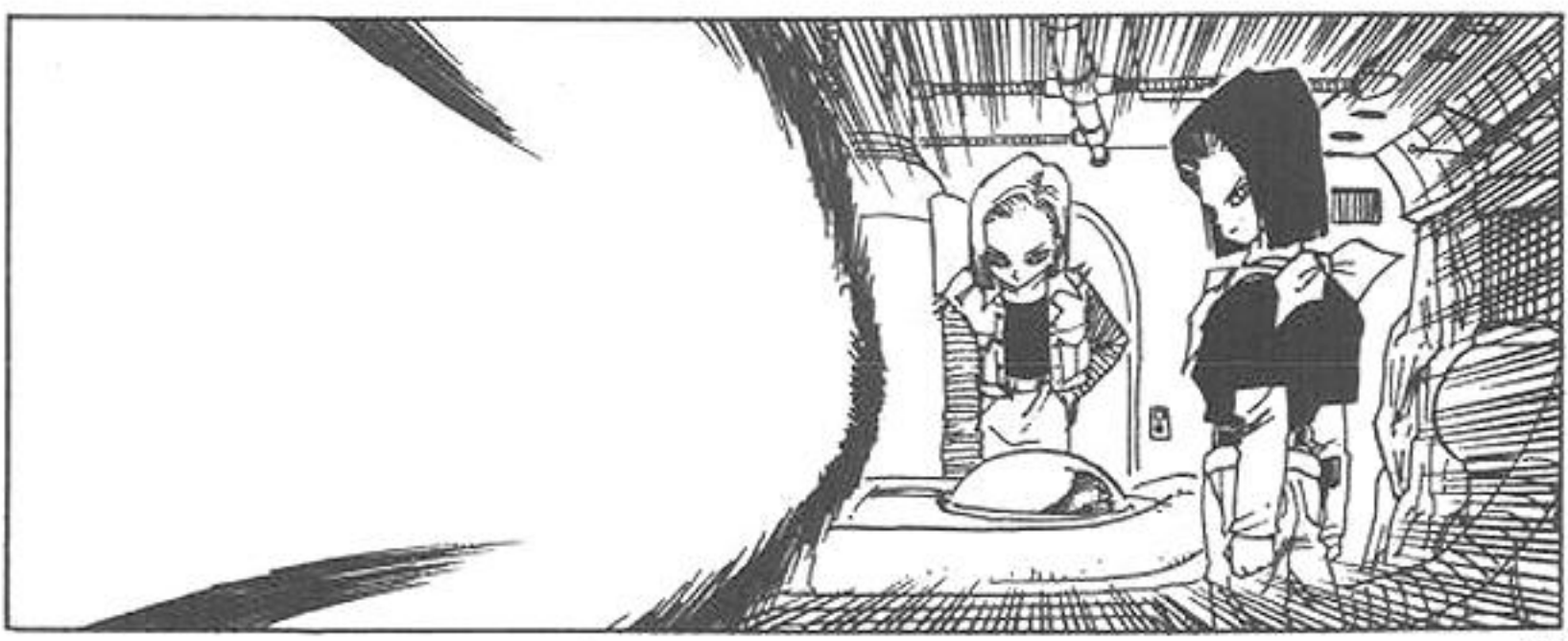

지…, 진짜
잔인한 놈이다…,
자… 자길
만들어준
사람까지…,


이 이상
인조인간이
늘어나면
큰일난다구…!
그렇겐
안 돼…,
16
자,
스위치를
눌러.
이상한 건
바로 너희들,
지구 놈들
쪽이다.
별로 이상한 게
아냐. 마음에
안 드는 놈은
죽여버릴 뿐이야.
초사이어인도
마찬가지인걸…,


HEY








이,
이 멍청아
-!!
퍼펑
쿠콰콰——…쾅

휴~!
공격할 거면
한다고 미리 말을
해줘야지,
간 떨어질
뻔했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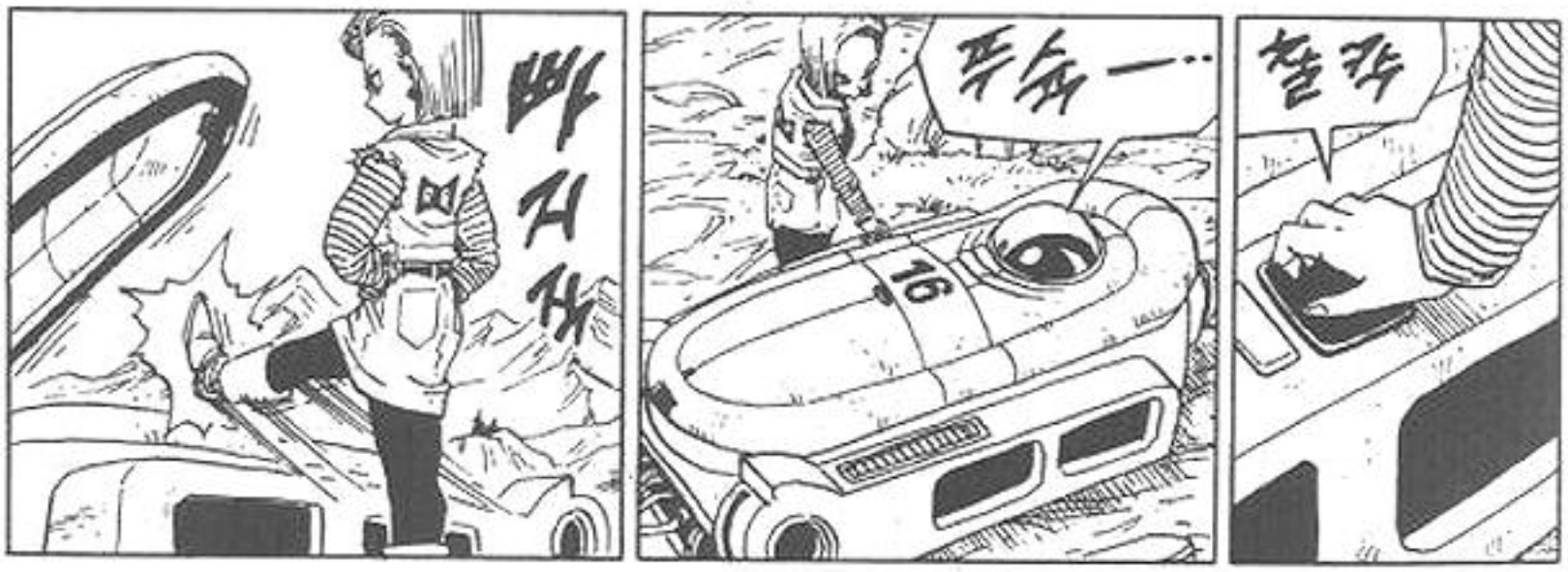
저길
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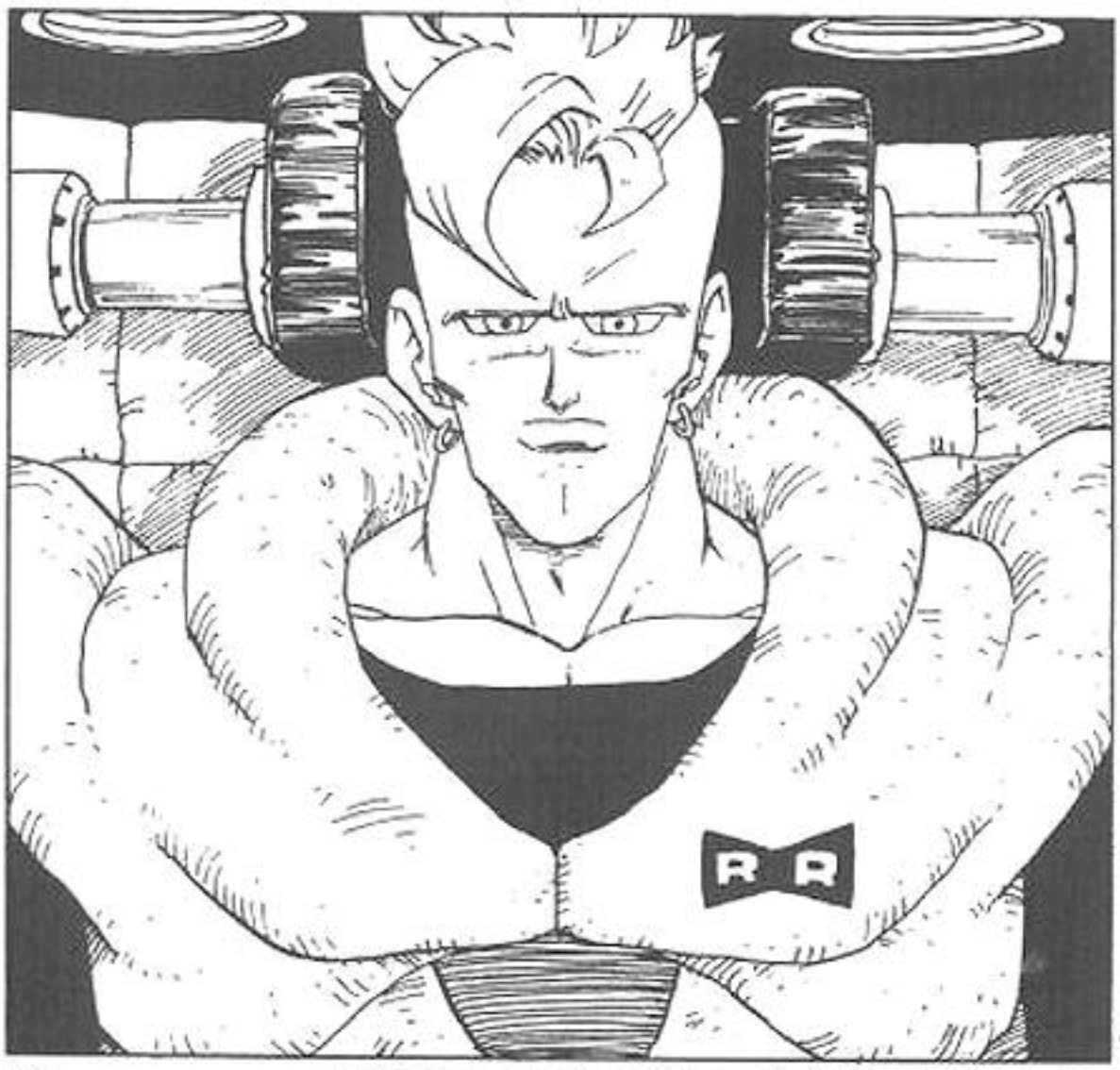
쓰…,
쓸데없는
짓…!?

띨띨한 놈.
쓸데없는
짓을
하다니…!

빨랑 열어
보는 게 좋겠다.
파이프와 코드가
끊어져버렸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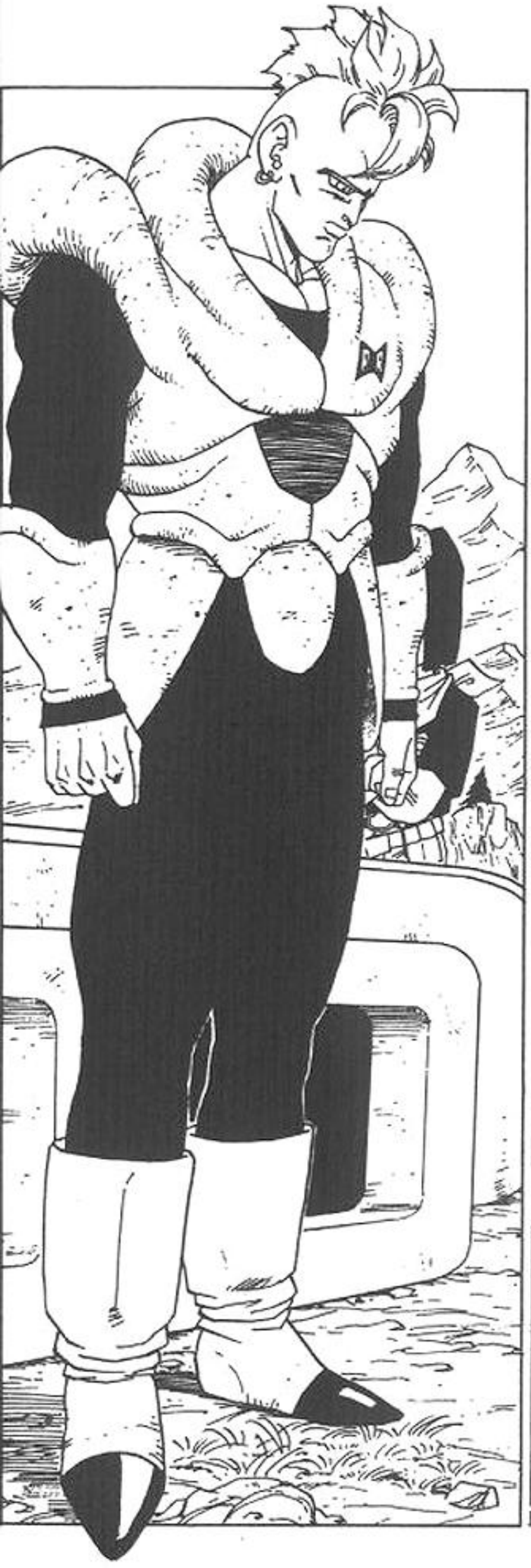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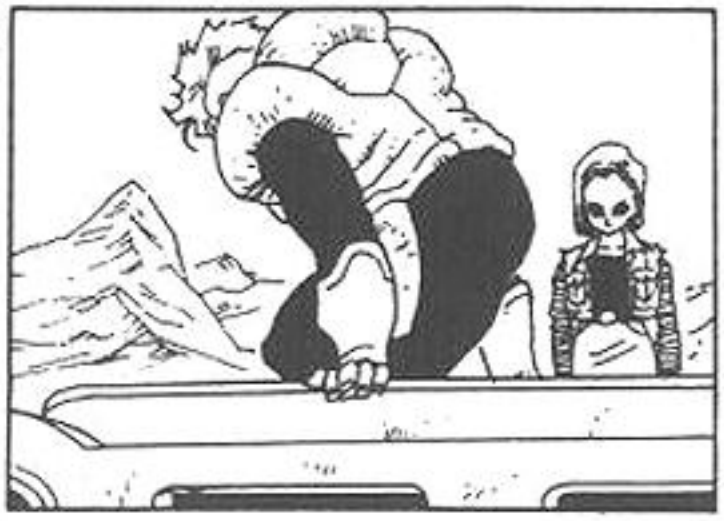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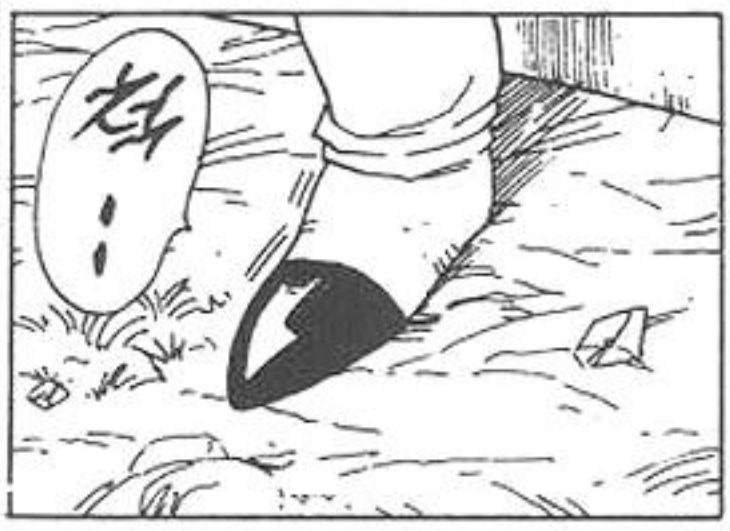


다음은, 제351화 수수께끼의 16호








ガチャ

저…
저놈이
1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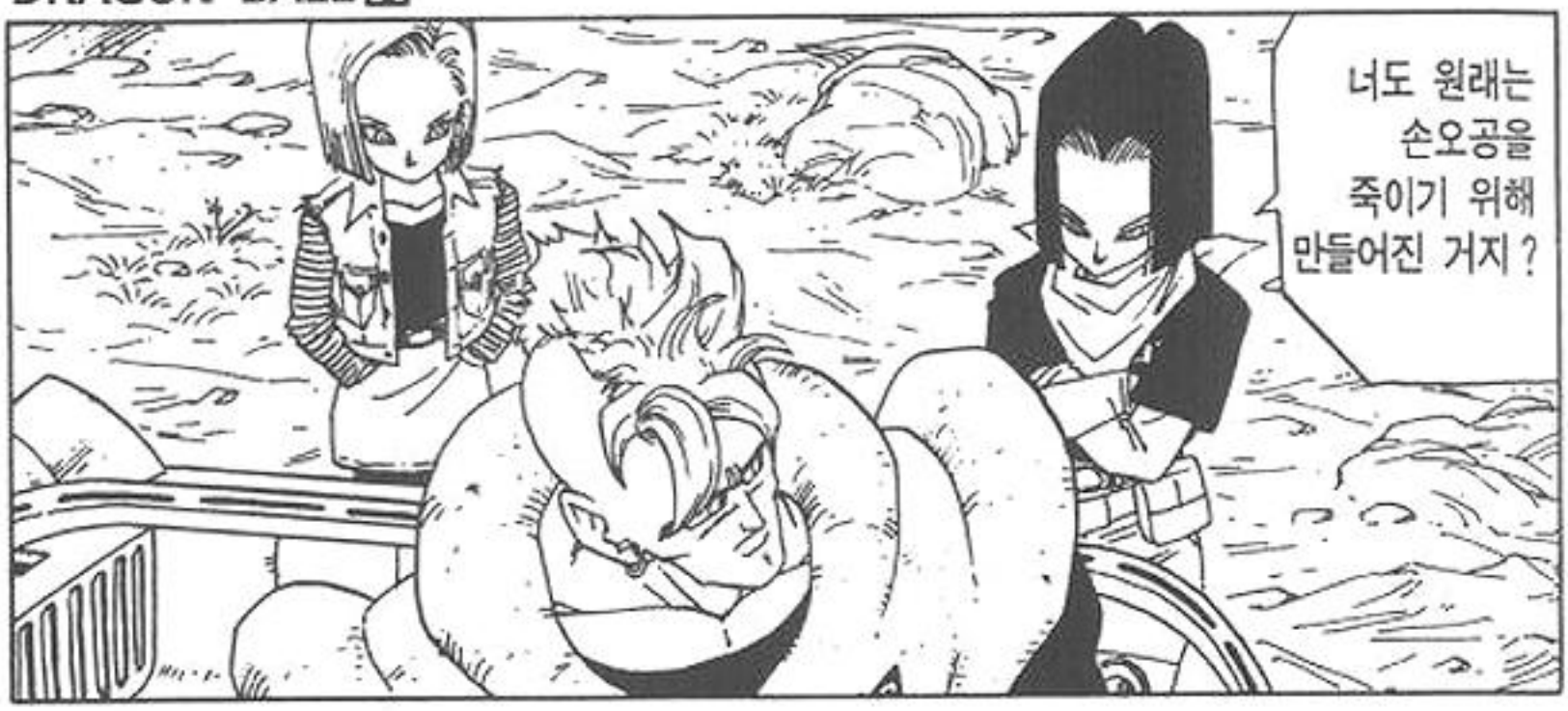
크…,
큰일났다….
무쟈게 강하게
생겼네….

저런 놈은
본 적이
없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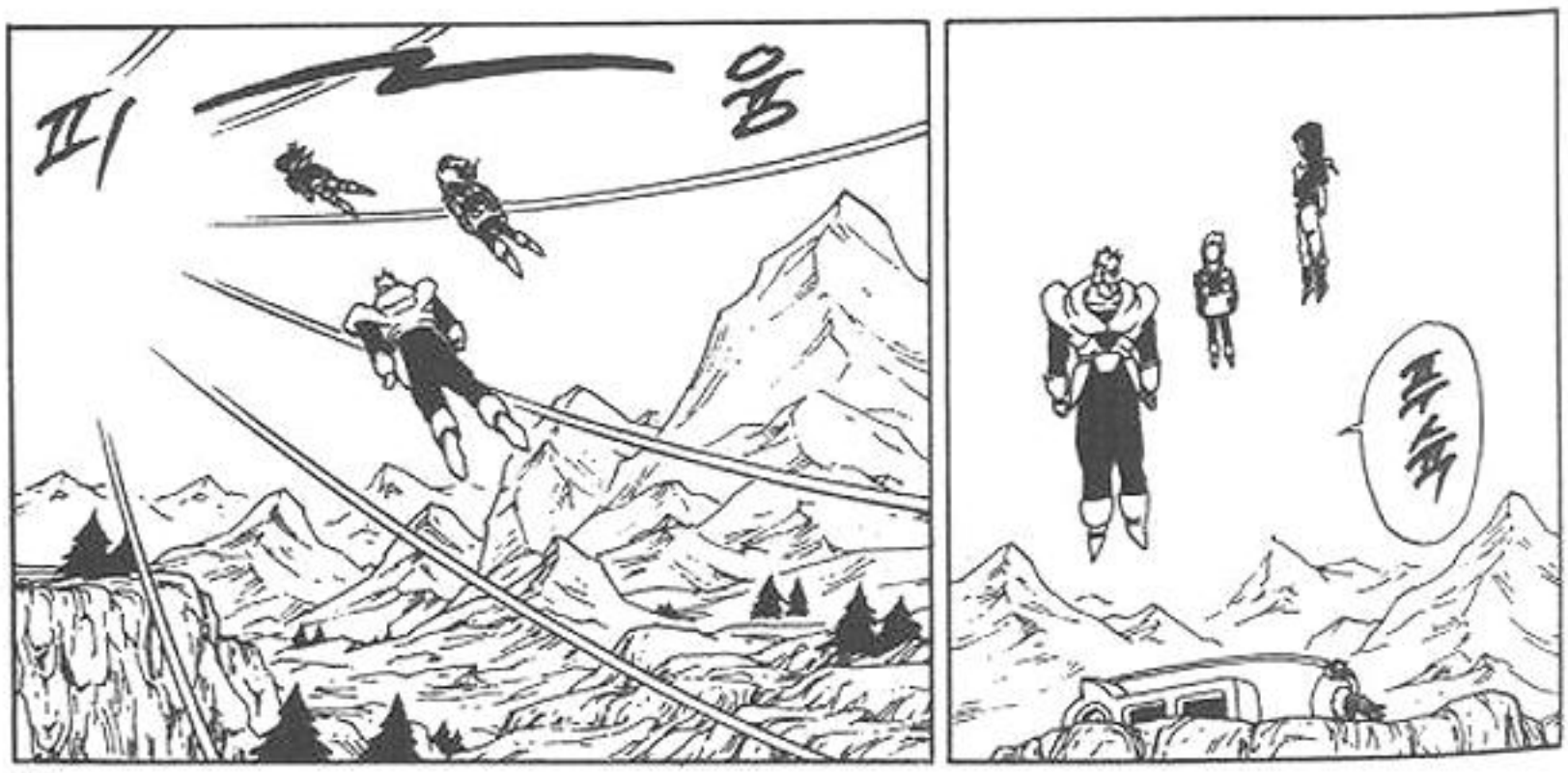
모…
모르겠어….

…….


야, 16
네가 움
이는
처음 본
몇 년만에
밖에 나온
기분이
어때?
닥터 게로는
널 작동
시키는 걸
엄청
싫어했어.
신의
숨까지
험해질지도
른다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
네 의견은
어때?
뭐,
좋아.
갈까?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건가…
아님 단순히
과묵한 것
뿐 아냐?


너도 원래는
손오공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거지?


닥터 게로가 말한 대로
하는 것도 뭐하지만,
우리 인조인간도
우선 목표가
있어야 하거든.
이제야 겨우
말문이
트였군.
어쭈구리.
그렇다.


피
웅
파슉

!?

방향이 틀려.

북쪽 도시에서 날뛸 생각은 아닌 것 같아.

저 녀석들, 대체 어디로….

무… 무슨 속셈이지…?

가버렸어….

다행이다….

가….

그런 이유 따윈 아무래도 좋아….

그….

하… 하지만, 놈들이 닥터 게로의 명령을 듣는 것 같진 않은데….

생각해봐! 닥터 게로의 목적은 레드리본군을 박살낸 손오공을 쓰러뜨리는 거잖아!?

오공이다! 오공네 집에 가는 거 아냐!?

진짜
건방진
놈들이네….

내가 여기 있는데…,
날 무시하다니….
전혀 눈에 안
찬다는 소린가…!?

!!

꽈

꽈

쫓아가면
안 돼!

제…
제발
조금만
기다려줘
!!

카카로트…!?
손오공 아저씨를
말하는 거지!?
마, 맞아!

카카로트의
병이
나을
때까지
말이니?

오공 아저씨의 힘을
빌려 모두 함께
싸우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다구!

내가 가장 열받는 건
인조인간 따위가
아냐…. 바로
카카로트다…!

크큭….
넌 착각하고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카로트를
처치할 거다….

이해가
되면 저리
꺼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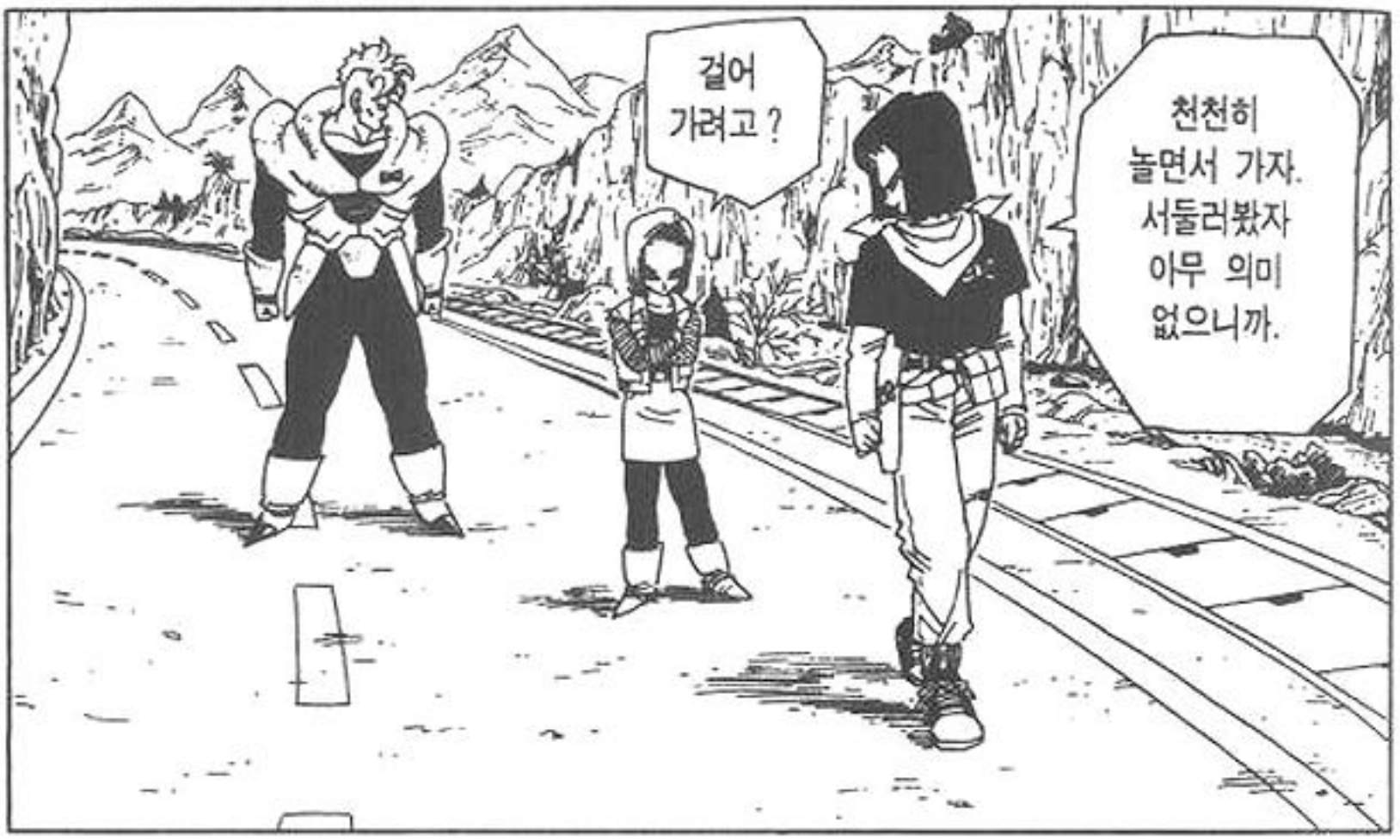
그런 놈 힘을
빌리지 않고도
나 혼자 처치할 수
있단 말야.

완전히
개죽음 당하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야!

무…
무모해!
당신 혼자선
어림도
없다구…!


크으…
으윽…
파슈슈슉
아…!


뭐 잘났다고 아직도 카카로트야! 나도 초사이어인이 됐는데 말야…!
같은 조건이라면 사이어인의 왕자인 나 베지터 님이 그놈을 훨 능가한다구…!
휘이
익
탁
탁
탁
17호, 뭐 하러 내려왔어?


걸어
가려고?
천천히
놀면서 가자.
서둘러봤자
아무 의미
없으니까.


네겐
인간적인
마음이
남아있구나.
남자란
것들은 그런
쓰잘데 없는 걸
좋아한다니까.


이제 곧 여길
지나가는 자동차가
올 테니까,
그걸 타고
가는 거야.
자동차로
가자.


난 무(無)에서
부터 창조
됐는걸.
아니.


16호, 너도
인간 남자로부터
인조인간이
됐으니까
이해되지?

그럼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잖아….

인간이 재료가 아니었나?

왜 다시 이전처럼 인간을 기초로 한 방법으로 돌아간 걸까….

이상한걸…. 닥터 게로는 제로(0)에서 인조인간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으면서….

아직도 이런 곳에서 얼쩡거리고 있다니, 뜻밖인데….

안뇽.

타앗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어디로 갈
작정이었니?
빨리 불어봐!

분위기만이
아니란다….

손오공이
있는 곳이지.
죽이러 말야.

내가
너희들을
먼지로
만들 테니까.

역시
그렇군….
하지만 이제
불가능할걸.

얼레?
아까와는
분위기가
틀리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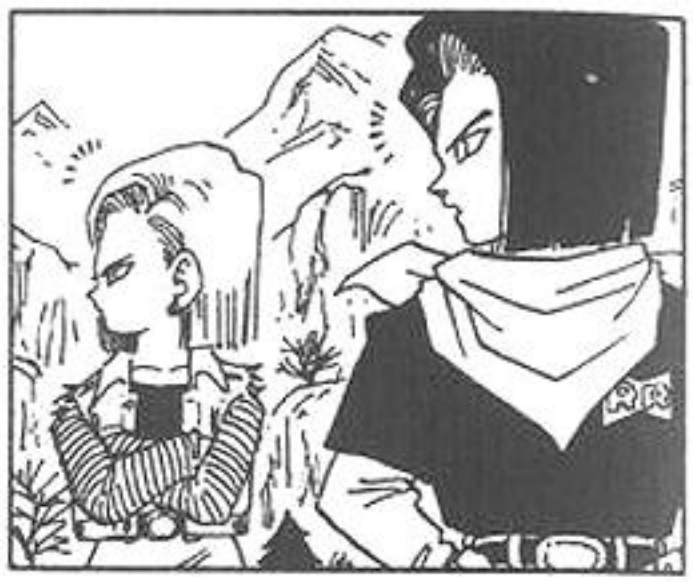

덜 떨어진 놈일수록 그 자존심 때문에 죽음을 재촉하지.
사이어인들이란 건 아무래도 지 분수를 모르는 모양이군. 손오공도 그런 것 같고….
이상 하냐…?
그래, 지금 마음껏 웃어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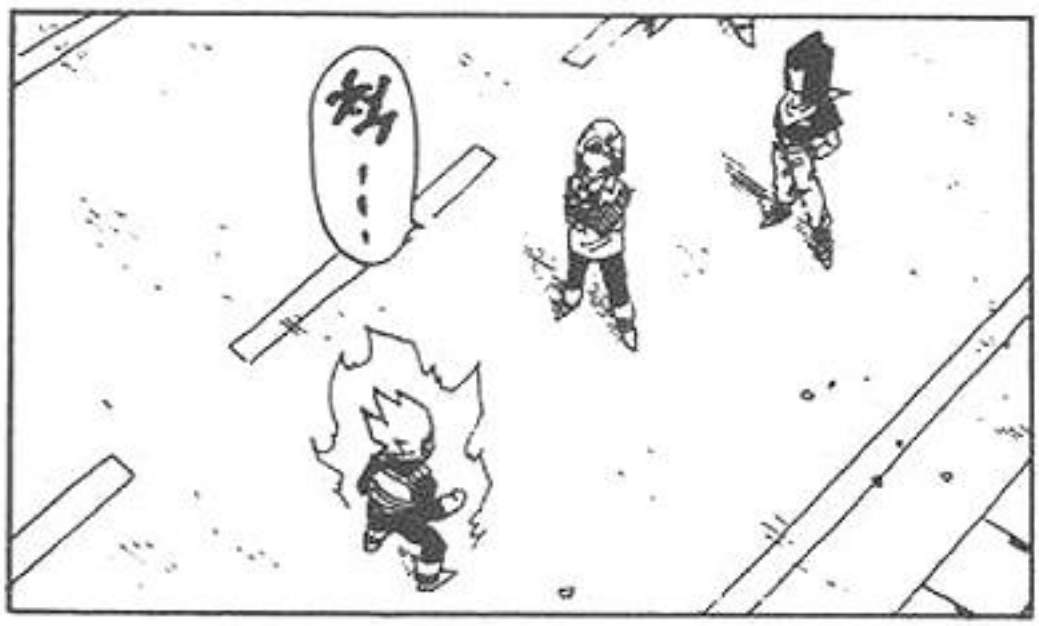

언놈부터 죽여줄까! 꼬맹이냐, 계집애냐, 등신 같은 놈이냐!? 아님 차라리 3명 세트로 박살내 줄까나!
인형 주제에 돼먹지 않은 소리나 하다니…! 아주 가루를 만들어주겠다!


거절한다.
네 힘을 보고 싶어. 어디 해봐.
그치, 16호!
너무 무리하시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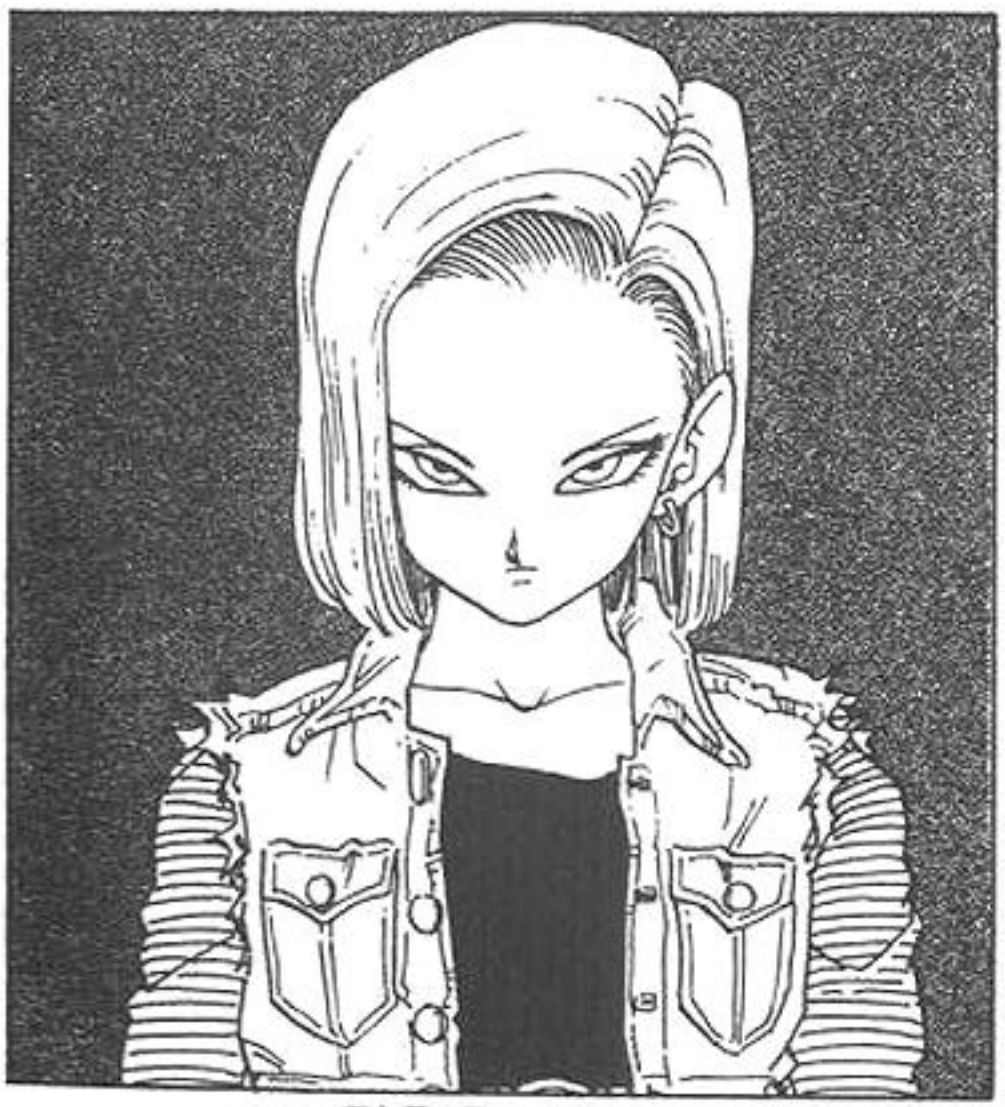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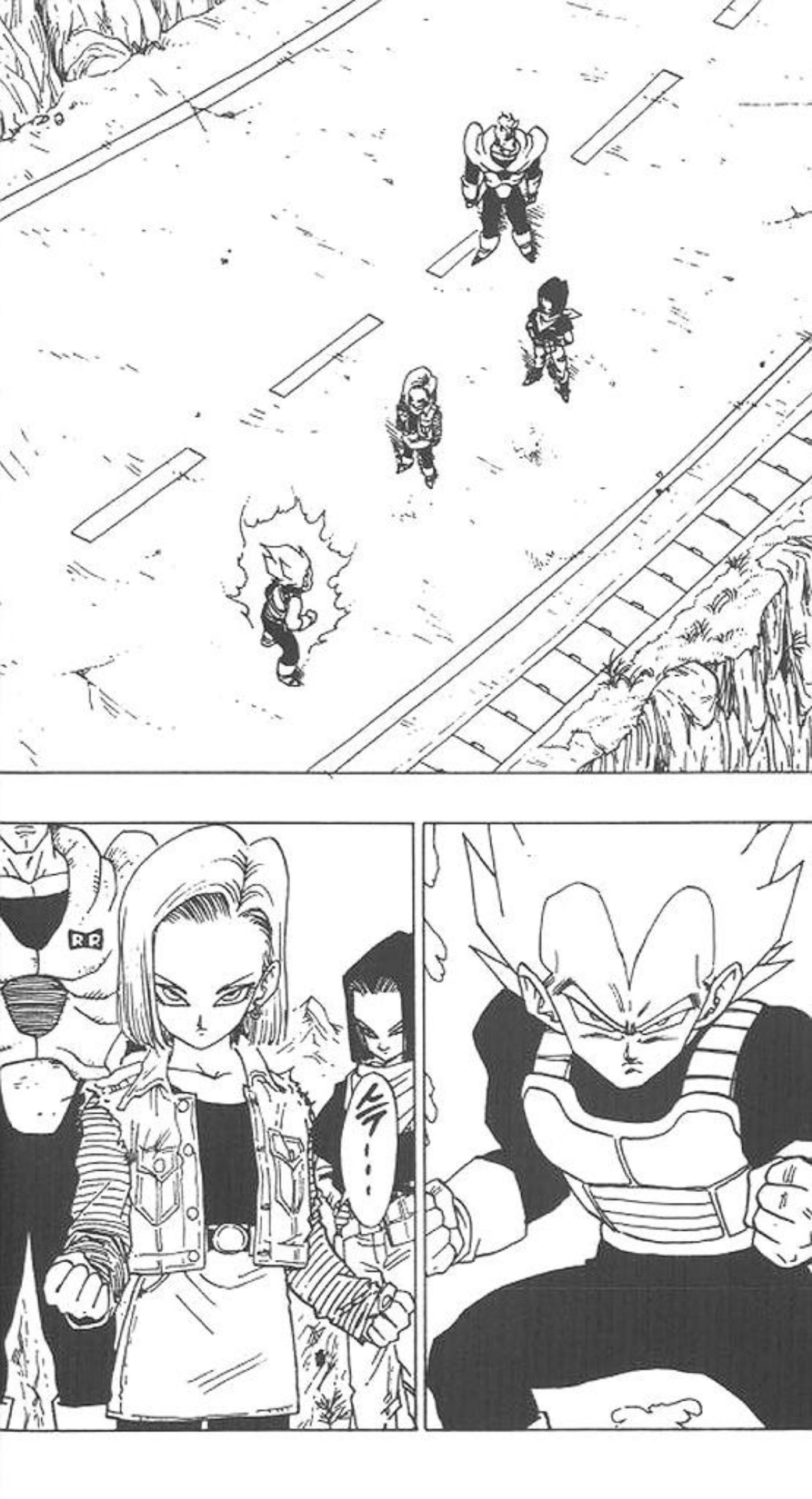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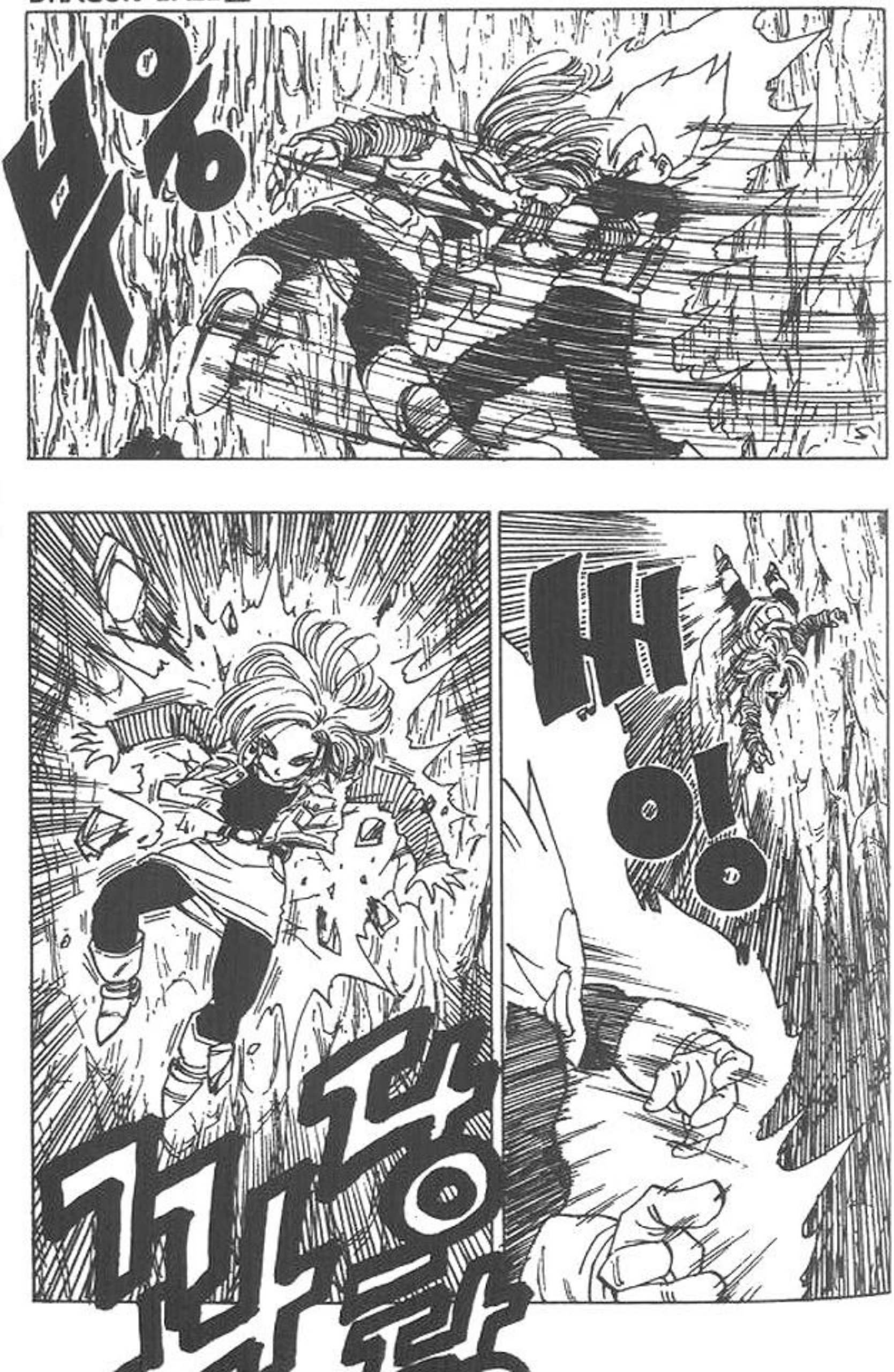


다음은, 제352화 베지터 대 18호






호우….






이거
놀라
운데….
닥터 게로가
얘기한 정보와는
전혀 틀린
파워잖아.
베지터
라고….
대단한
놈인걸.
탁
터
터

scanned by raprnb



빨리 안 꺼지면 그냥 뭉개버릴 거다!

이 자식들아-! 도로 한가운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빌어먹을 놈들-!!


AGAIN


터엉
예상 밖으로 빠른 스피드를 가졌네….
지금 것은 전혀 네 파워를 다 쓴 일격이 아닌걸.
당근 이지….
내가 진짜 파워를 쓰면 지구까지 통째로 사라져버릴걸….

그럼 그렇게 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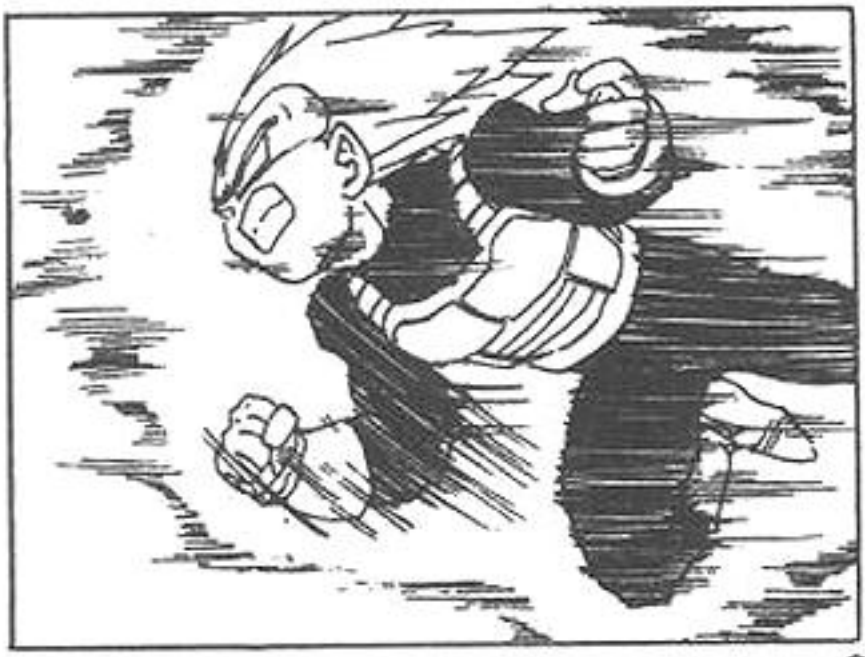
호오.

나도 전혀 진짜 파워를 쓰지 않았어. 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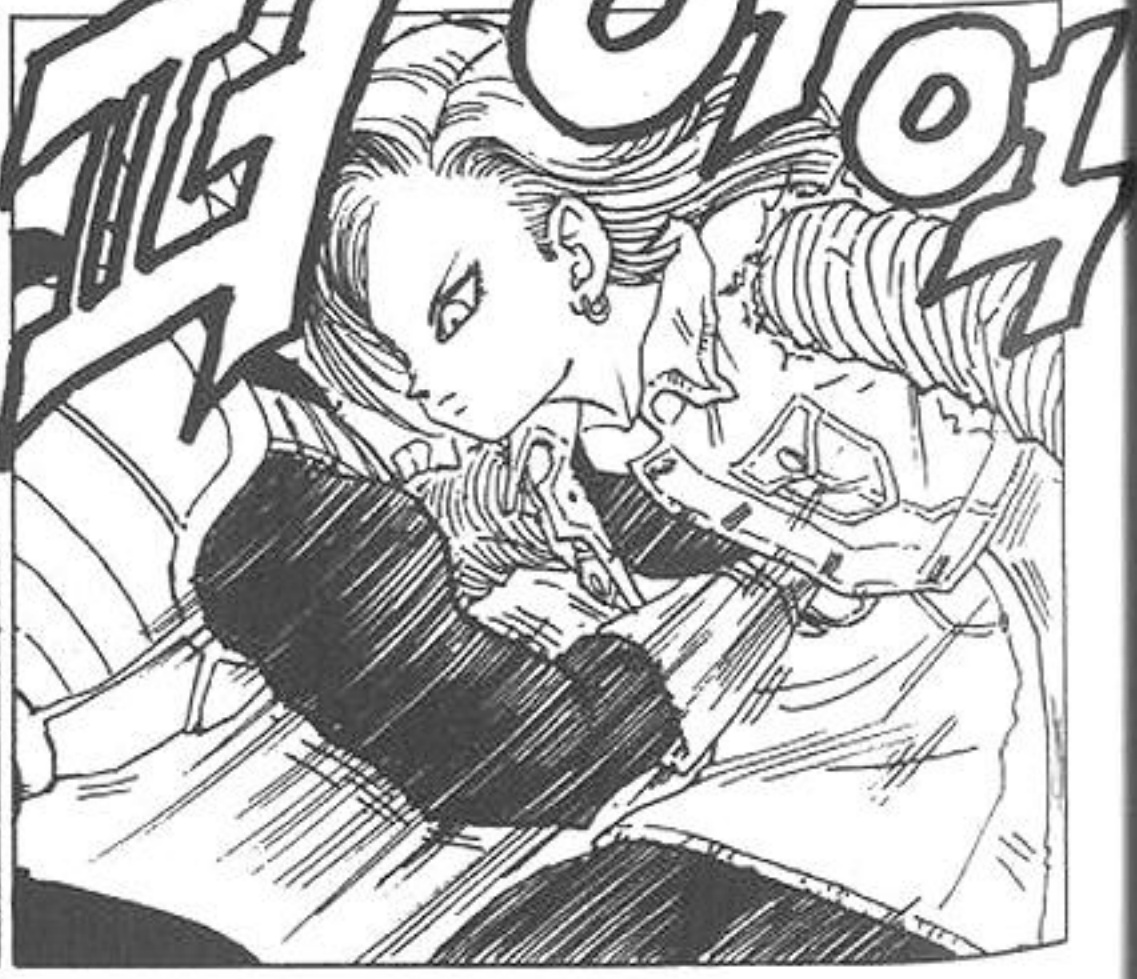
어디 진짜로 덤벼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빨리 진짜 실력을 좀 발휘해 보셔….




크윽…!






퍽!!


크허…
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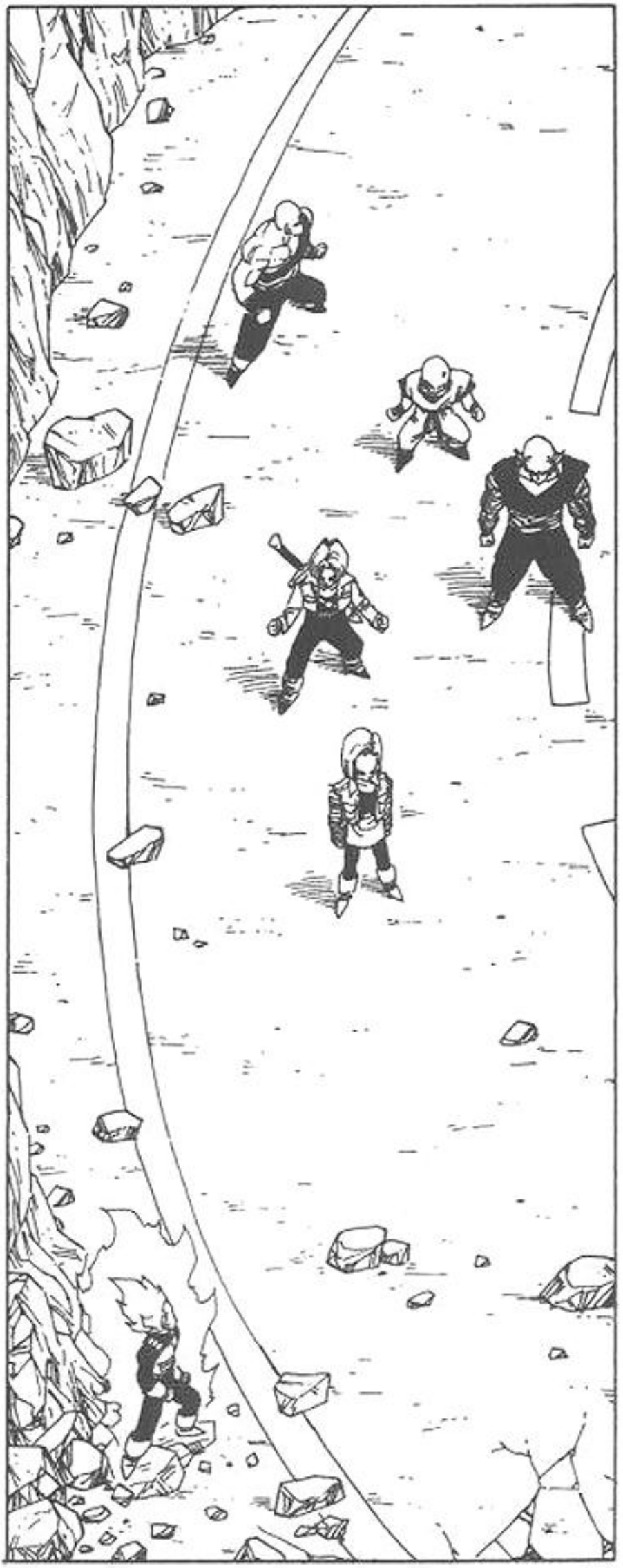


다음은, 제353화 베지터의 파워


이런, 이런.
구조대가
오셨나….


18호 혼자서
저놈들 모두를
상대하기엔
역시 무리겠어….


아님
16호,
네가
갈래?
할 수
없지,
가볼까.



말했잖아. 손오공을 죽이기 위해서 라고.

너, 대체 뭣 때문에 만들어진 거니?

안 간다고…? 진짜 뗄 떨어진 놈이네….

아니….

난 안 가.

저, 저봐! 17호란 놈이 이쪽으로 온다…!

얼씨구….

태평해서 좋겠다….

방해 말고 빨랑 꺼져.

너 또 죽도록 맞고 싶냐?

죽으면 프라이드고 뭐고 말짱 꽝이야!! 제, 제발 말 좀 들어!

도망쳐, 베지터 아저씨!

뭐 하러 도망칠 필요가 있겠나.

놀구 자빠졌네. 이제부터 단숨에 네놈들을 묵사발 내버릴 텐데….

우린 그딴 놈에겐 흥미 없으니까.

토끼고 싶으면 토껴도 돼.

나 혼자 싸우다 죽는 쪽이 더 낫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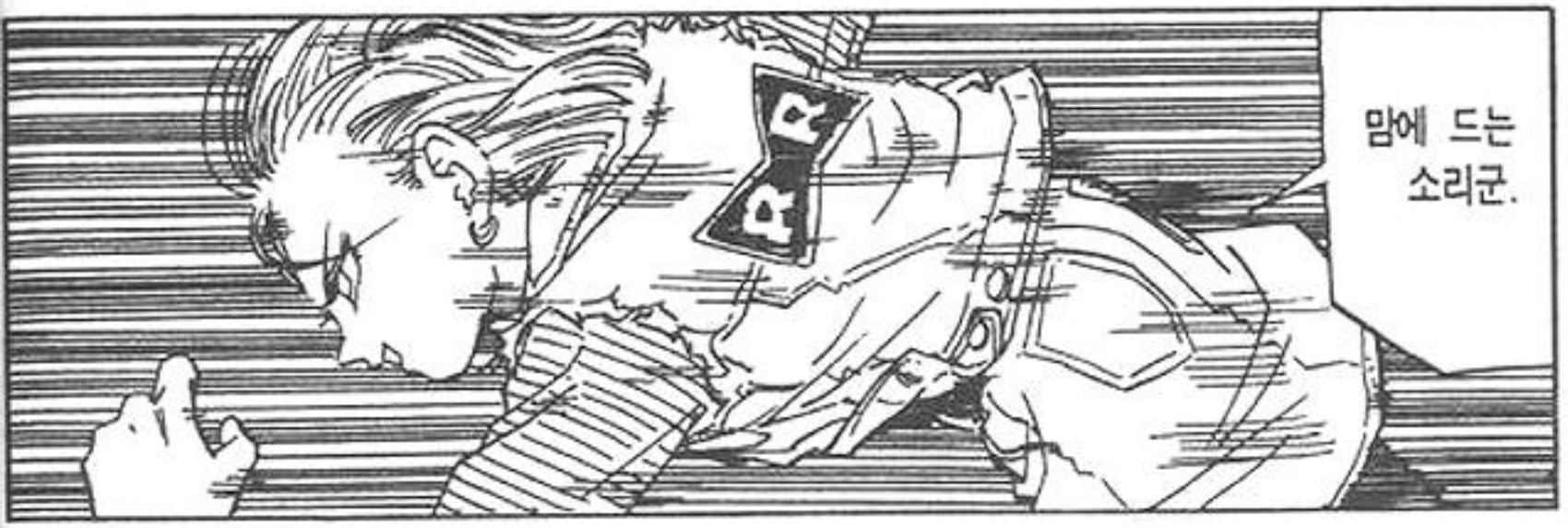
미리 얘기하지만, 난 지구인이나 나메크성인, 카카로트와 손을 잡고 싸울 정도라면….

……

멋진 대사군.

전투 능력도 좋고, 역시 사이어인의 왕자다운 품위는 있으시군.


너희들 꼭두각시 인형에게 그딴 소린 듣고 싶지 않아.
어디서 어린애 장난 같은 소리야.
하지만, 네놈들이 무사도정신을 소중히 여길 거라 생각해서 이것만은 말해두겠다.
베지터와 18호의 1대1 시합을 방해하는 자는 없을 테지만, 만약 끼어들면 나도 전투에 참가하겠다.
이놈들은 겁쟁이 평화 주의자야.
쓸데없이 신경 안 써도 안 나설 거다.
계속 해보실까?
고럼, 그래야지.


맘에 드는
소리군.


파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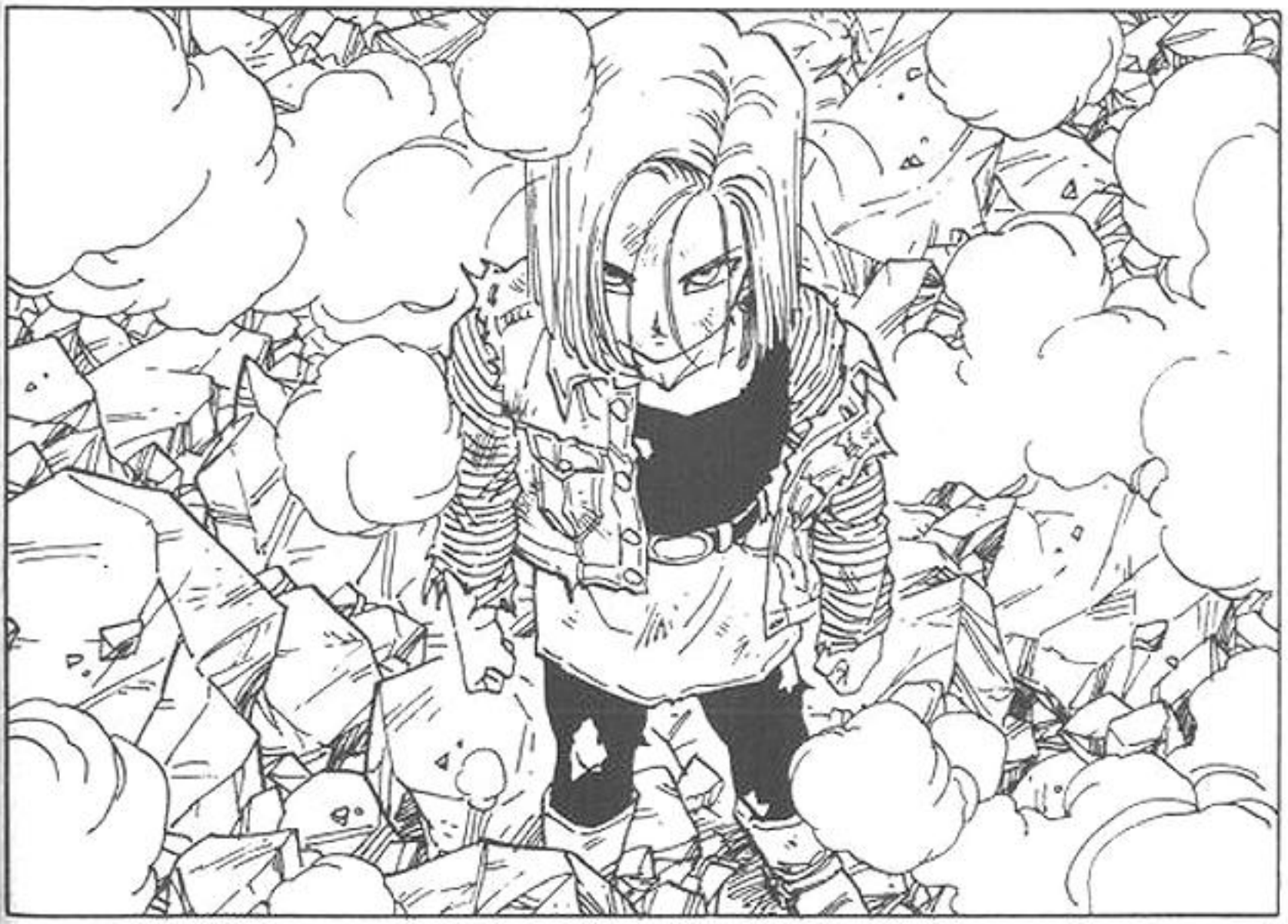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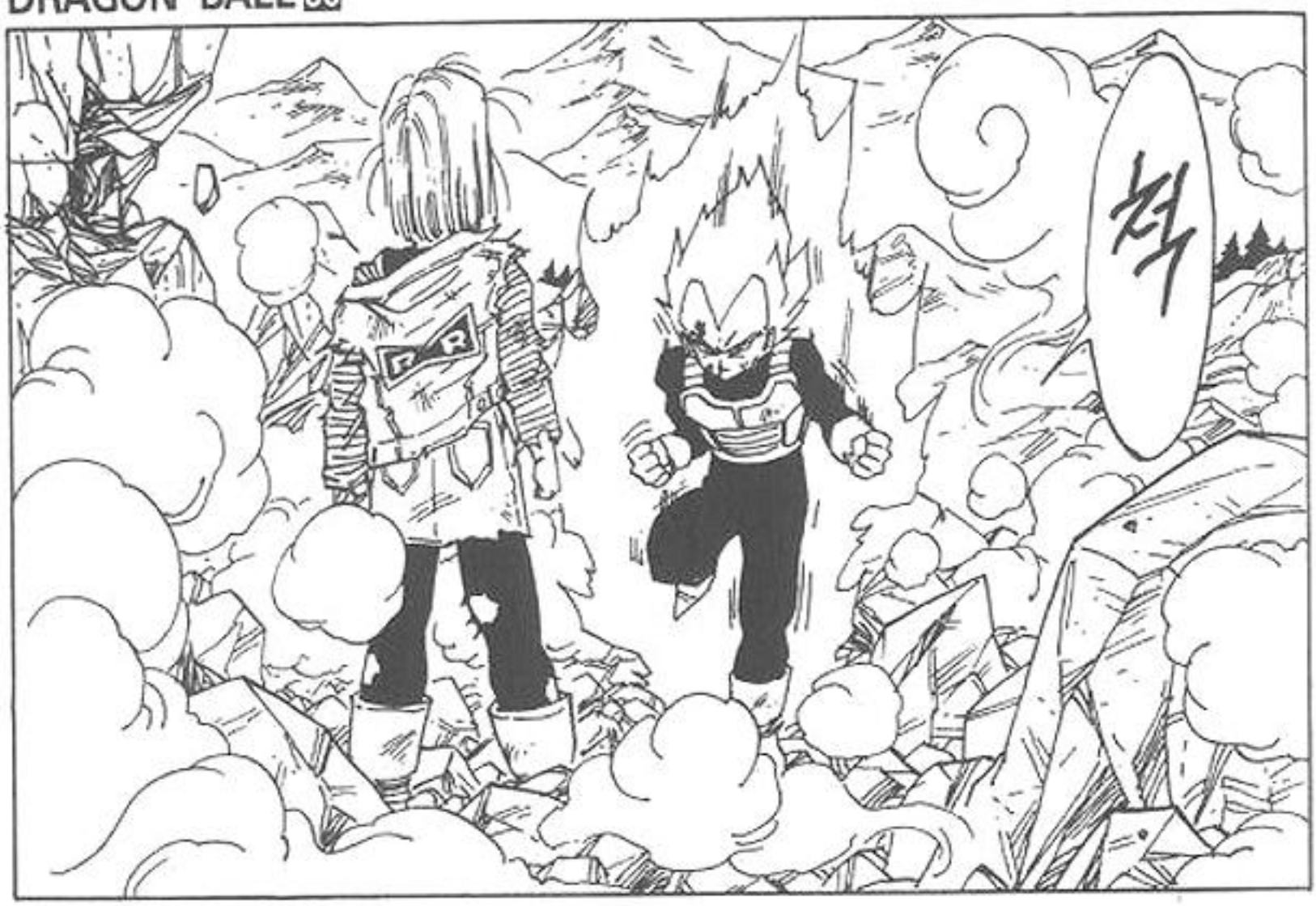

퍼벅
쿠쾅쾅
파앗




ATTACK






휙


손오공이란 인간은 더 강하단 건가?
이거 놀라운걸. 우주인이라곤 해도 뼈와 살로 이루어진 인간이 이 정도일 줄이야.


어디서 쪼개는 거야….
진짜 열받네.


파샤:
헛소리 마. 한때는 추월당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원래대로 내 쪽이 더 강해졌을 거다.


두놈
다.
뭐라고~!!


해치워 버려!
허…, 힘내!


저… 저 엄청난 인조인간과 막상막하로 맞짱을 뜰 수가 있다니…!!
대… 대단하다…! 아버지가 이렇게 강한 줄 꿈도 못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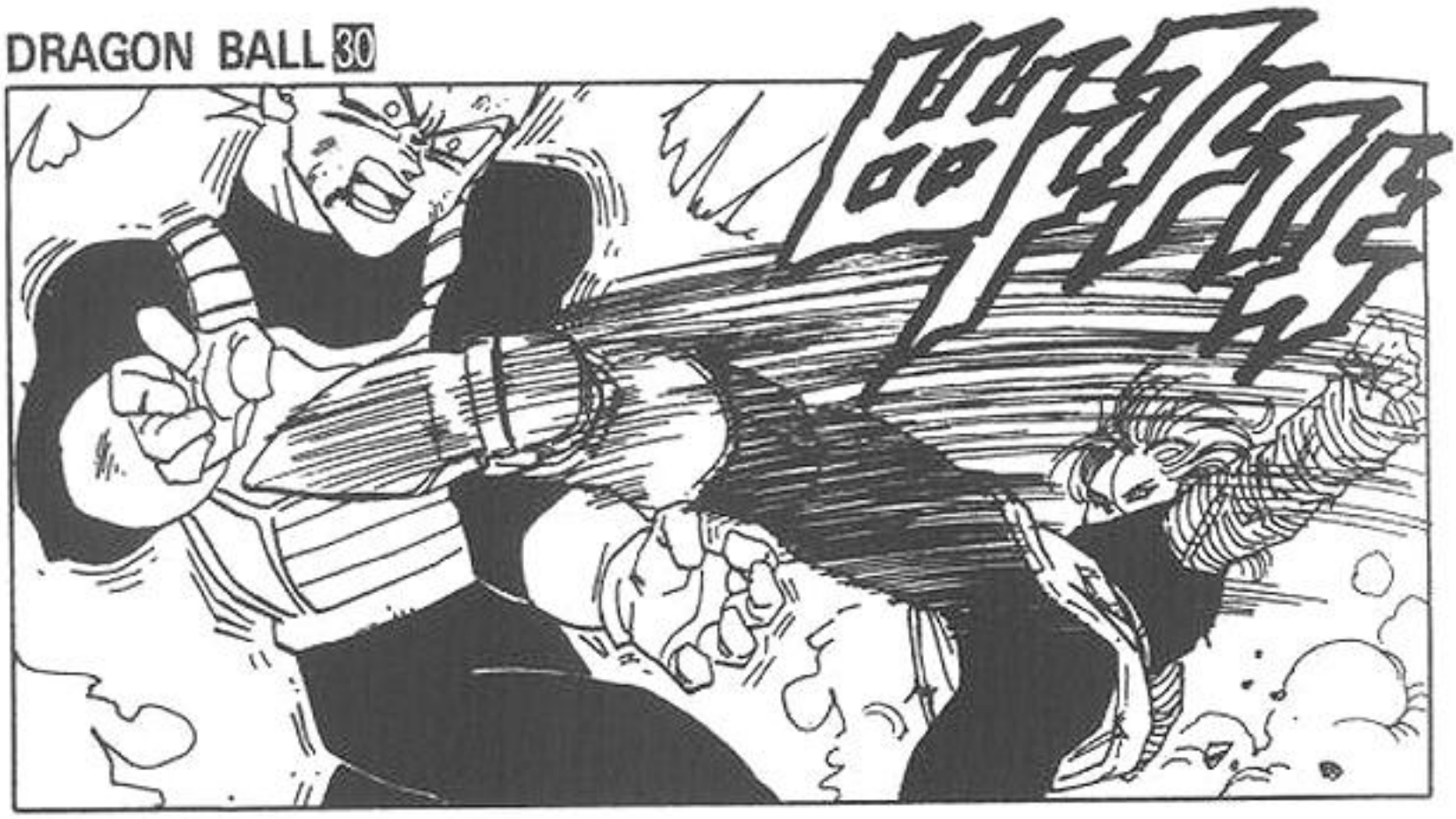



적은 전혀 파워가 줄지 않지만, 베지터는 움직일수록 스태미너가 줄어들기 때문이야.
저봐…. 약간이긴 하지만, 인조인간 쪽이 우세해지고 있어.


뭐!?


베지터는 죽을 거야….


제…
제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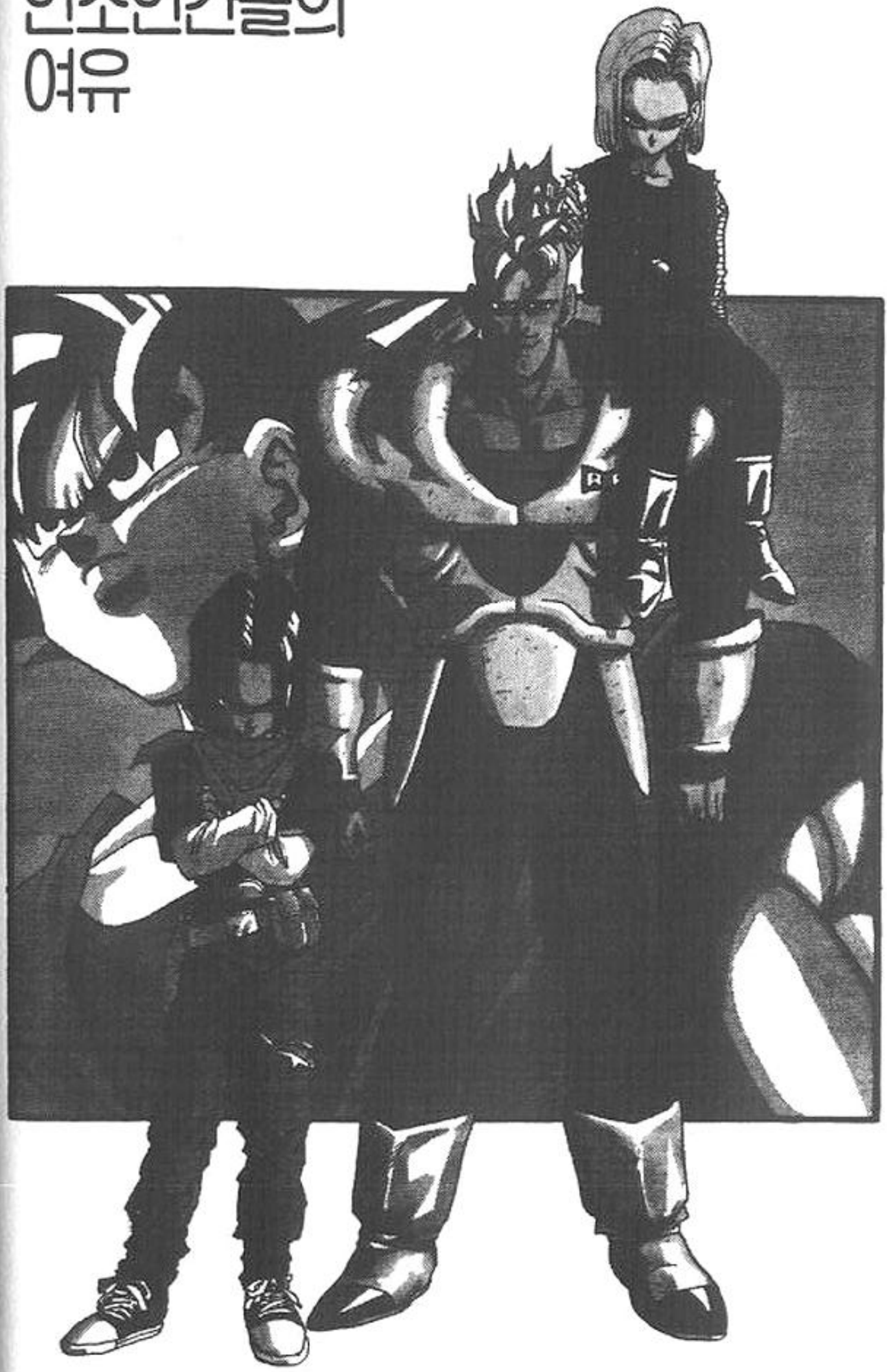



아버지—!!


아으으…
으윽… !!



제354화
인조인간들의 여유




휘익

제길!!




단 한 방에!
저…
저 녀석도
초사이어인
인데…!
!!
퍽
퍽


파앗


이놈—!!
파앗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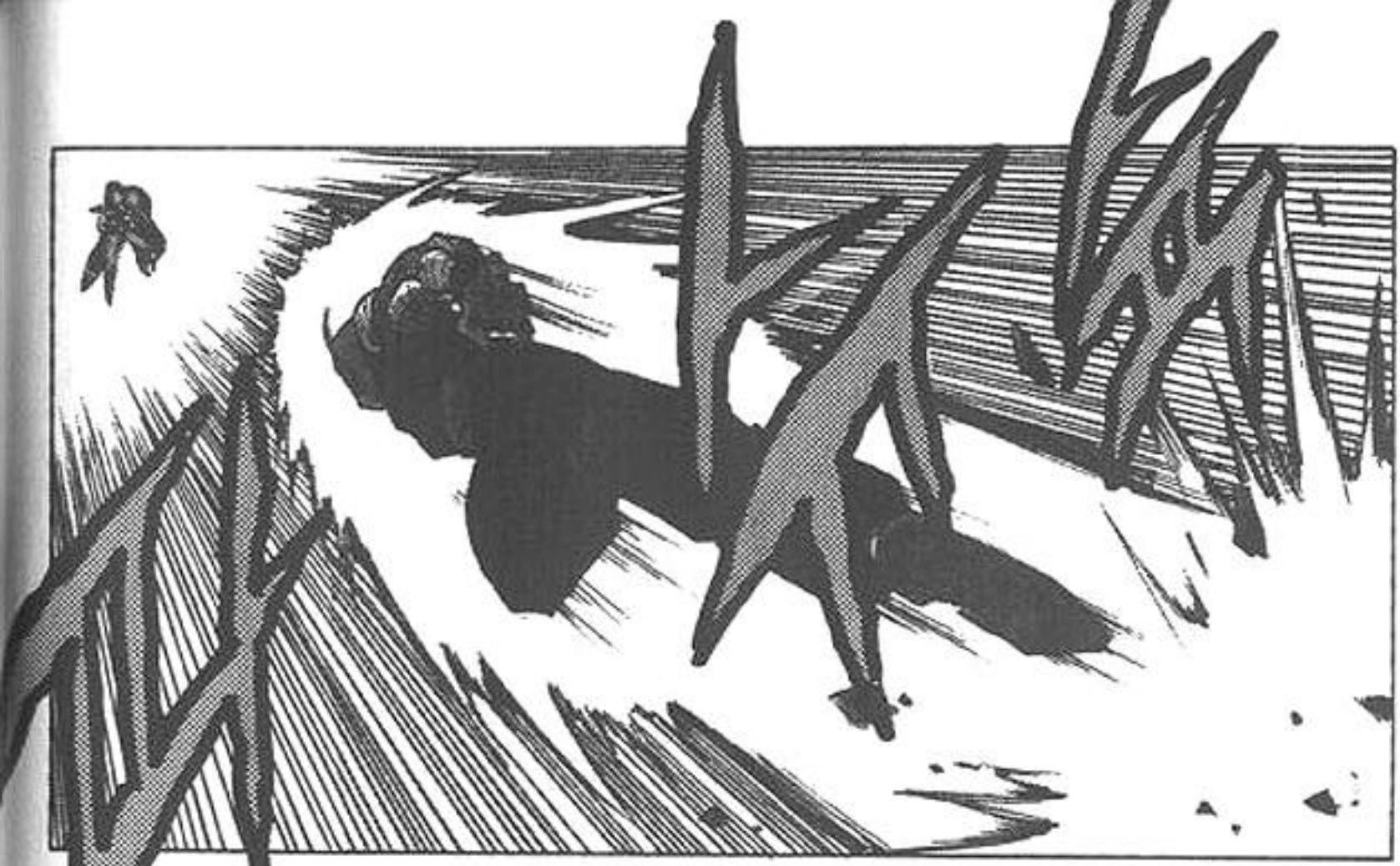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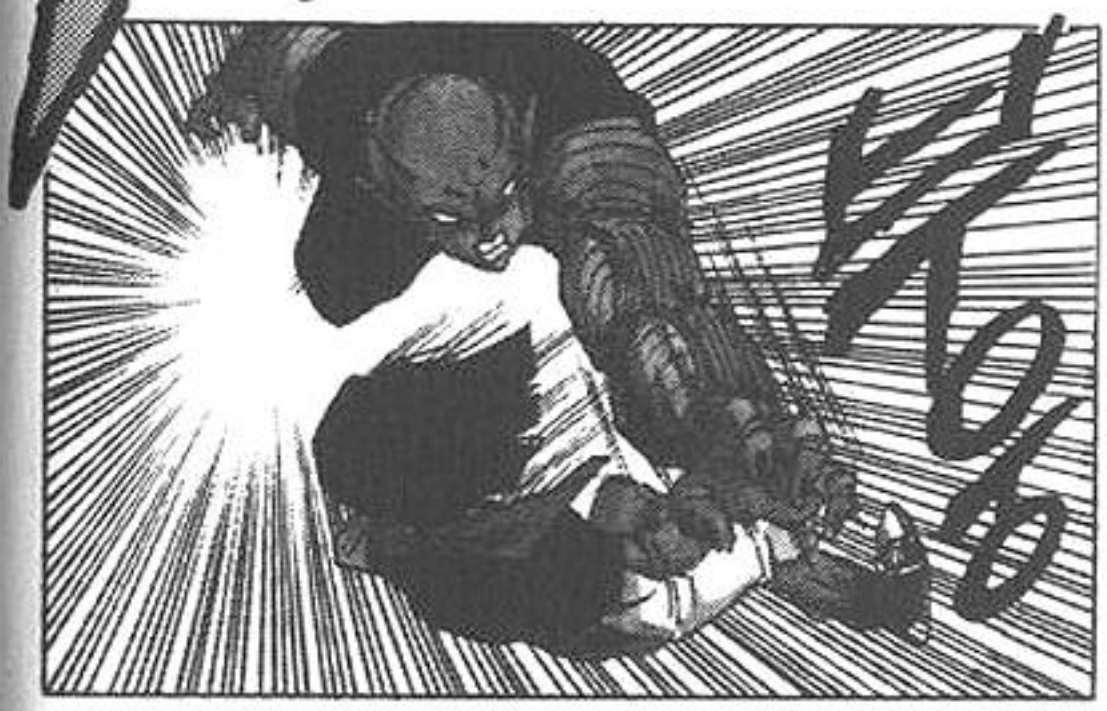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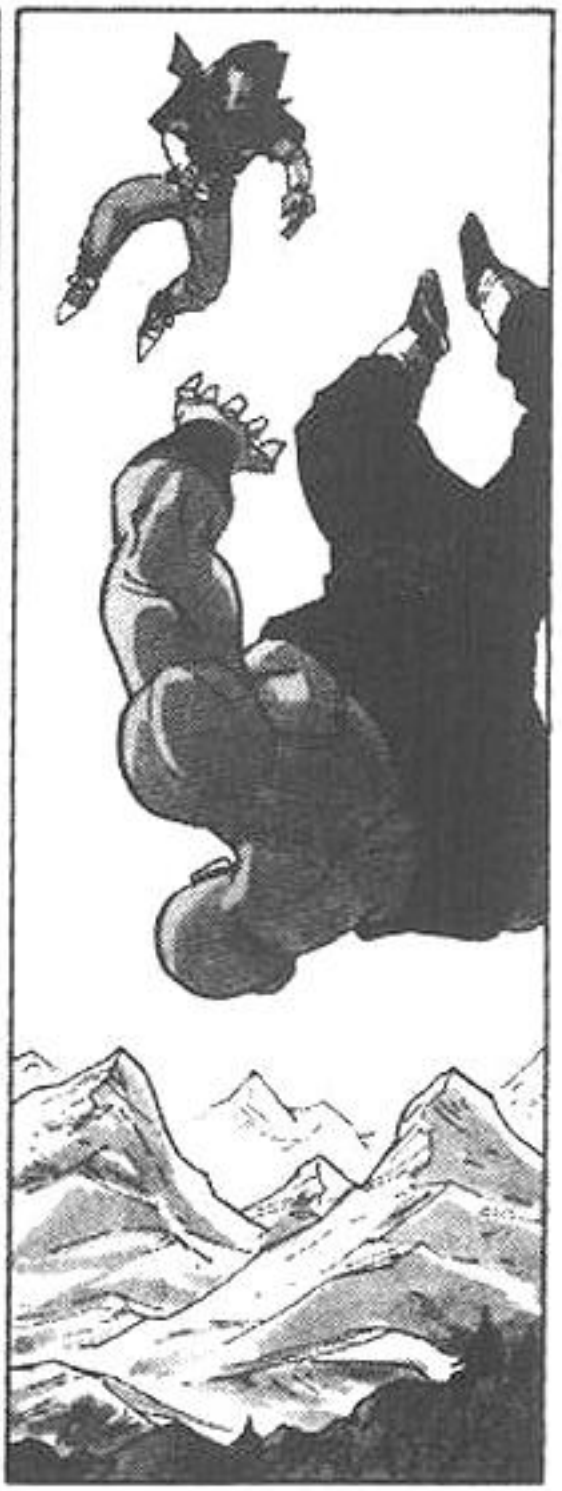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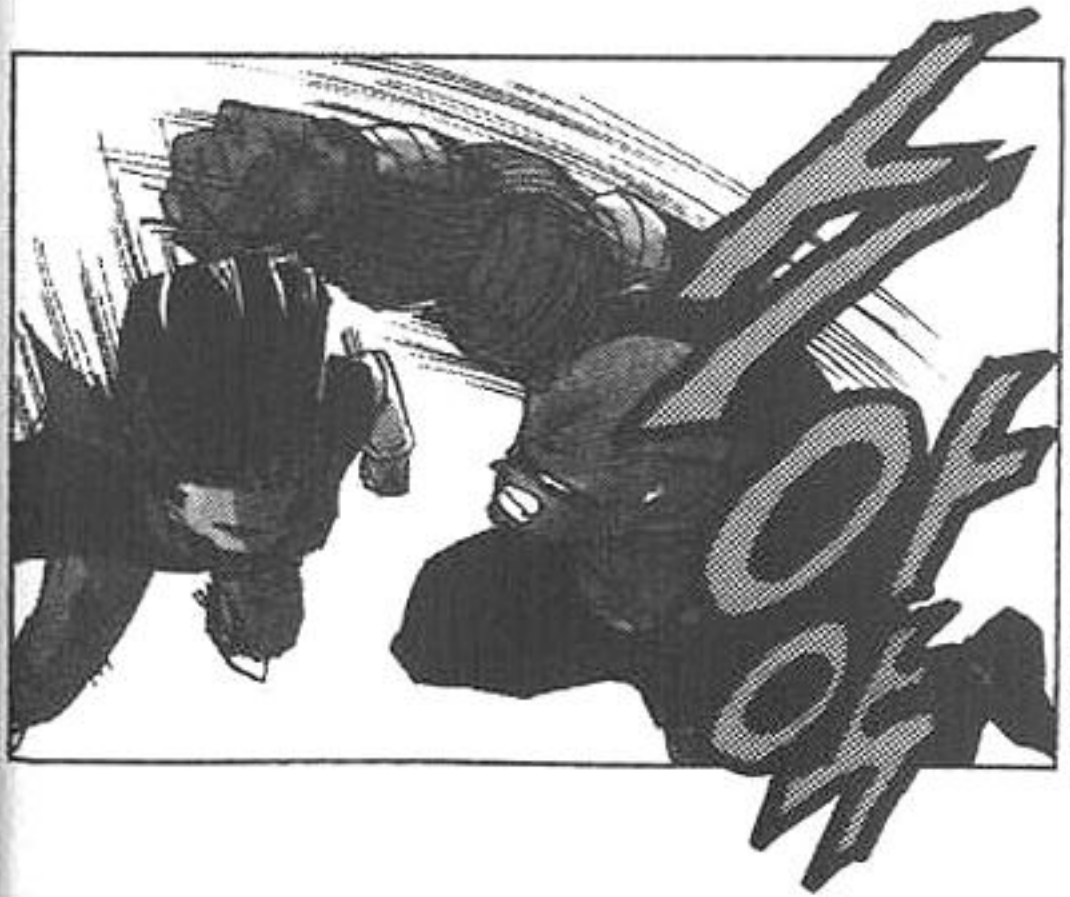
EPILOG


컥…!
!!


THUD


WHOP




OOF

아…
아아….





헉…
허억… !!

꽈앙

어으으…
으으… !

다른 한쪽 손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군.


크악…!
고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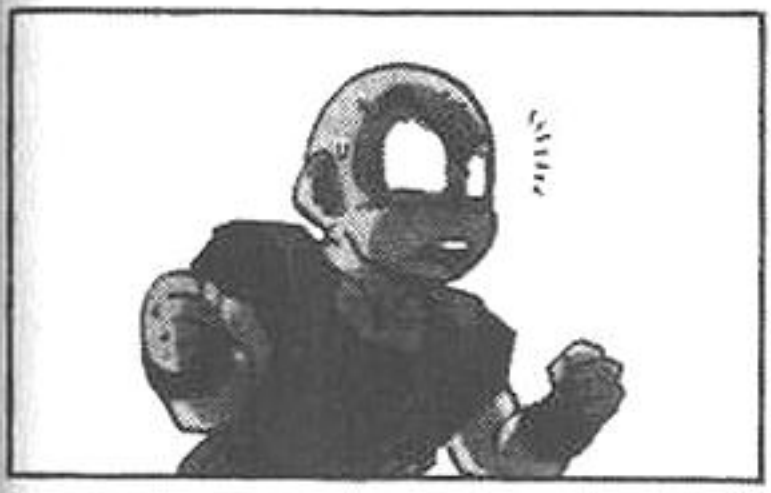

저놈은 누구지? 데이터가 없었는데….
뭐,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머리색이 원상태로 변하고, 이상한 빛도 없어졌네….
신기한 현상인걸….
그쪽 녀석도 마찬가지였어.




헉!
윽…!






만약 더욱
실력을 높일 수
있다면 다시
상대해 주겠다고
전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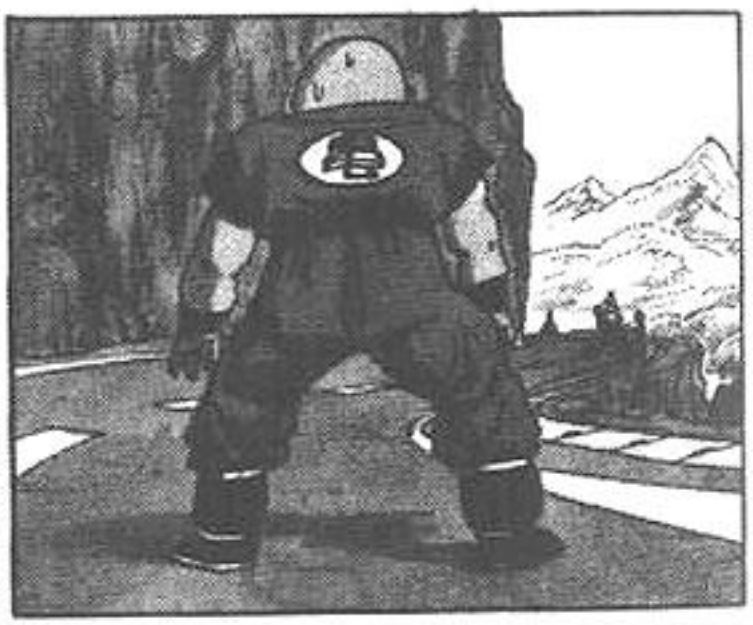

손오공이
있는 곳은
안 물어봐?
그럼
안녕.


빨리 선두란 걸
먹여주셔.
완전히 회복할 수
있겠지…?
걱정 마라.
놈들 모두
아직 숨은
붙어있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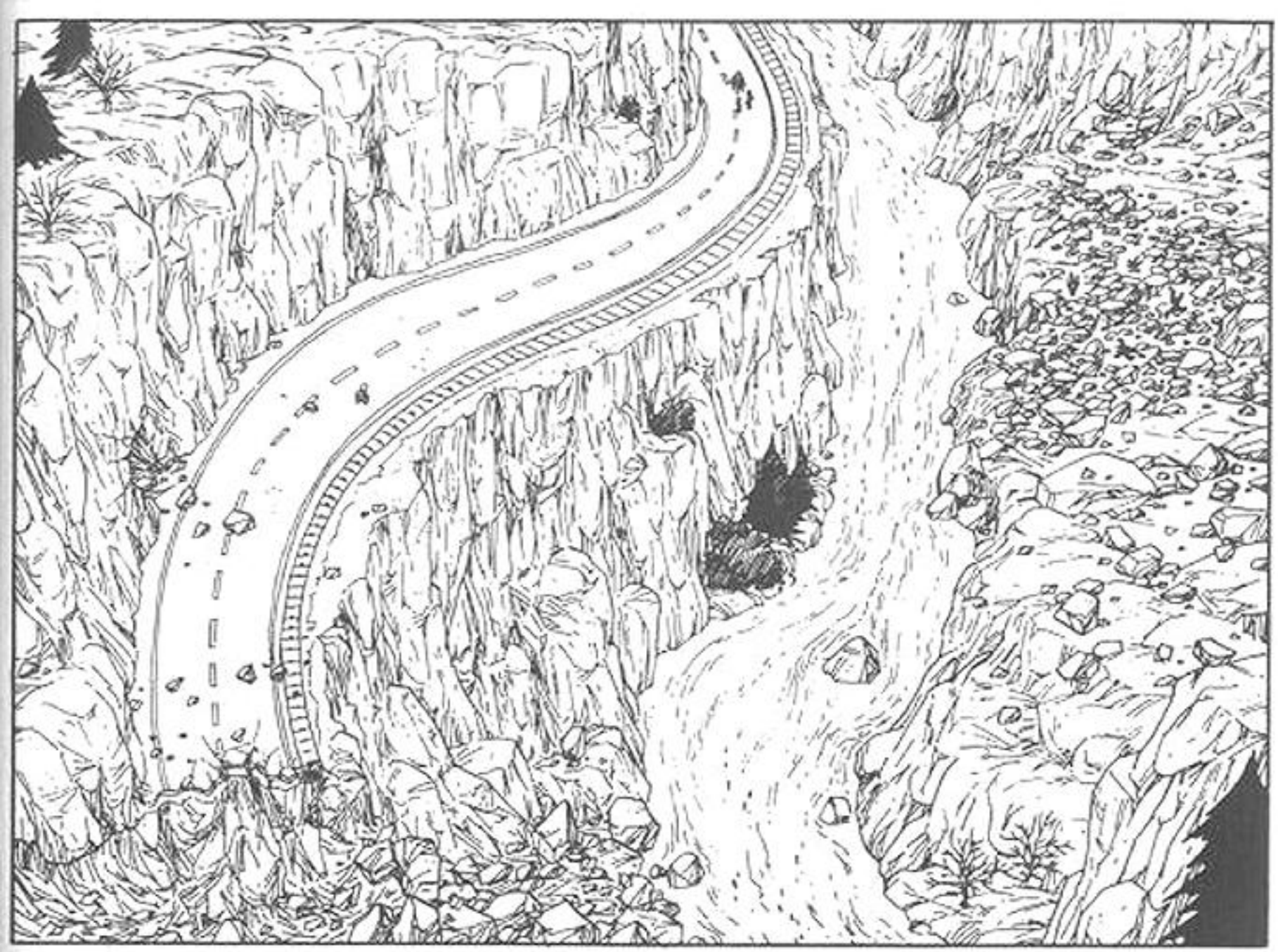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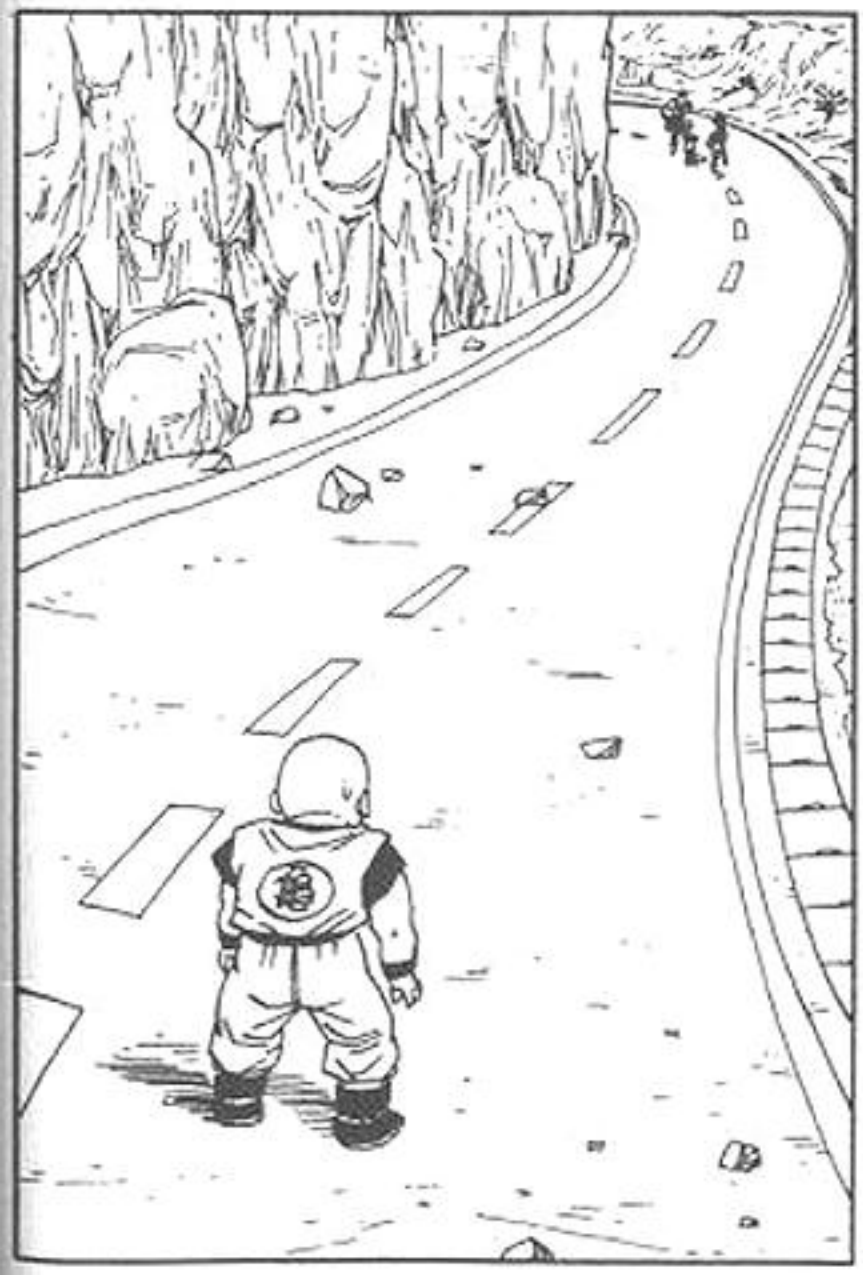






다음은, 제355화 피콜로의 결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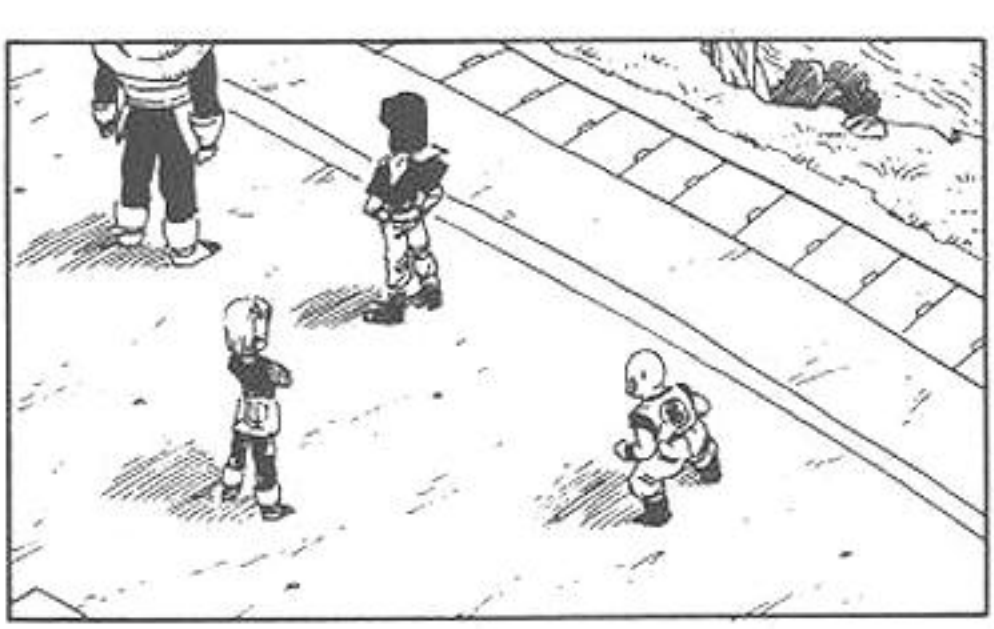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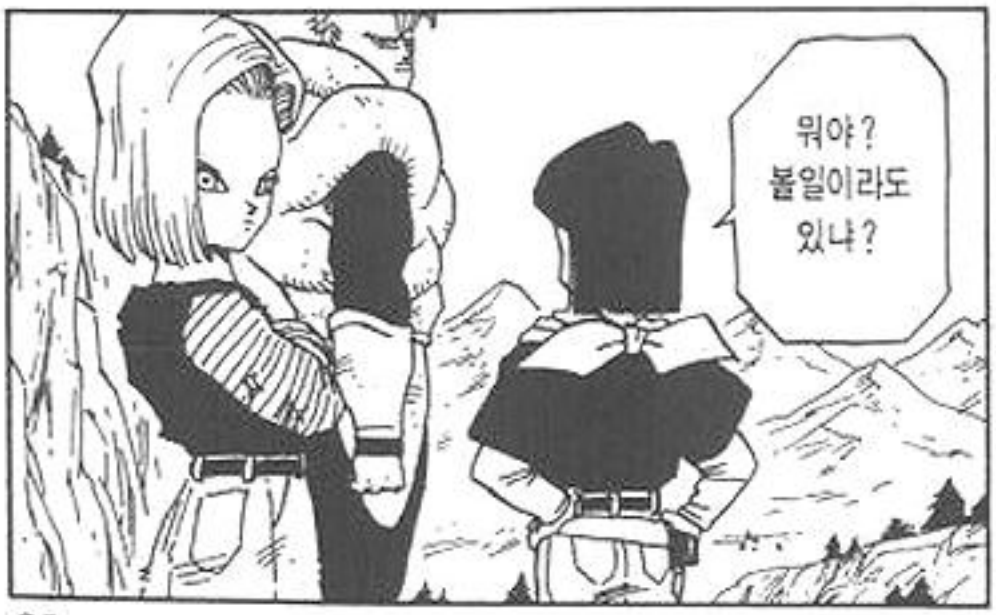



여긴 확실히 자동차가 잘 안 다니나봐.
할 수 없군. 좀더 번화한 곳으로 날아가자.
그게 좋겠어. 난 새 옷도 필요하고.


좋아. 그럼 근처에 있는 거리나 마을로 가자.




기다려!!
자…, 잠깐…!!


뭐야? 놉일이라도 있냐?

오공을
죽이는 거냐…!?
아니면 세계를
뒤집어 놓겠다는
거니!?

너…
너희들의 목적은
대체 뭐지…?

왜, 왜지?
왜 오공을 노려…?
오공을 미워하던 원수인
닥터 게로는 네가
죽여버렸잖아….

닥터 게로는
상관없어.
이건 단순한
게임이니까.

우선은 손오공을
처치하는 거다.
그 다음 일은
그때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안 가르쳐줘도
괜찮다고 했잖아.
찾는 것도 게임의
하나니까.

게…
게임이라고?
다…, 단지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손오공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지?
인간 중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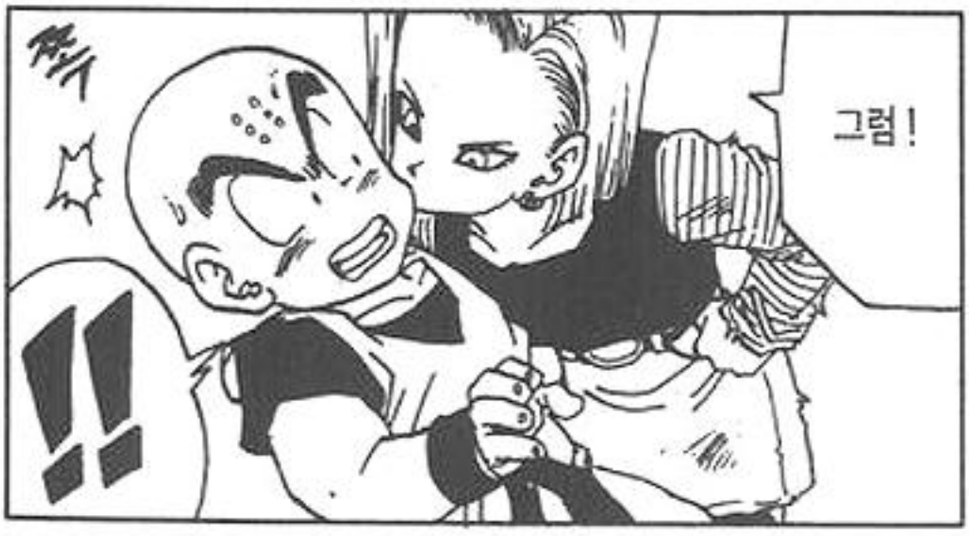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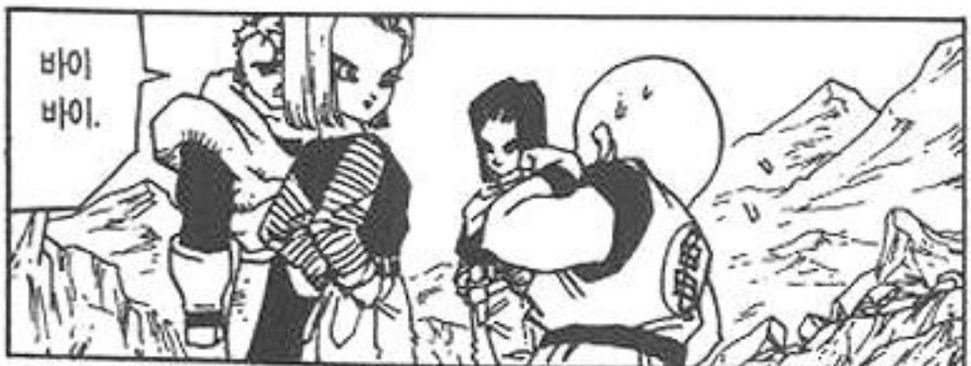

우린
손오공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거니까.
쓸데없는
짓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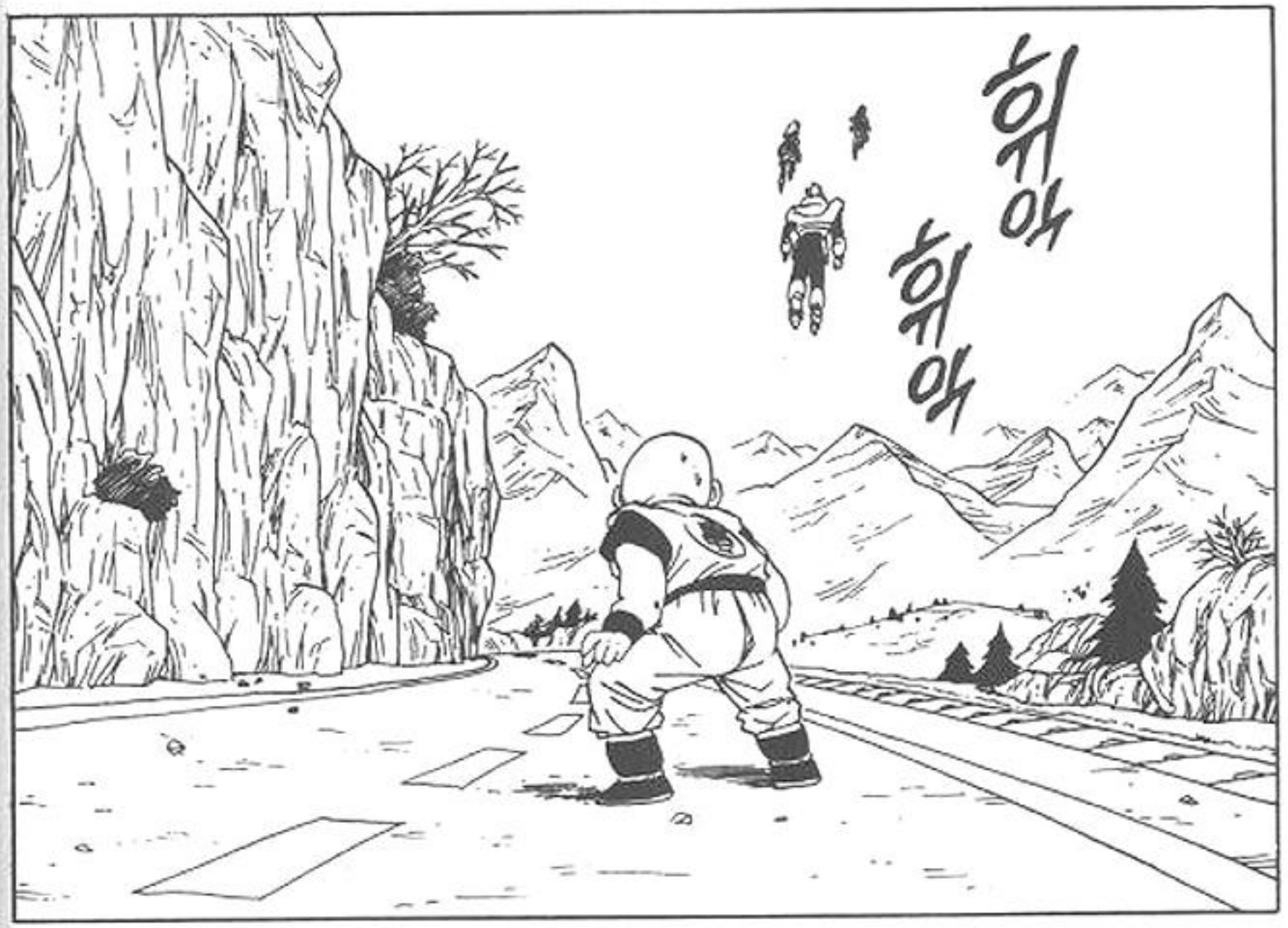

그… 그런
짓은 그만둬
달라고 하면
헛수고일까…?


어서 가서
쓰러져 있는
친구들에게 선두를
먹이는 게 좋을걸.
아님 저승행이라구.


옳으
말씀


그럼!
!!


바이
바이.


휘악
휘악
모, 모두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선두는 이제 6알 남았었지!
나랑 피콜로하고 천진반이 두알씩 나눴으니까.

베…
베지터한테도
먹일까….

서…, 선두에
대해서까지
알고 있었단
말야!?

뭐…!?

서…,
설마
그 정도일
줄은….

당연하지….
놈들은 엄청나게
강해….
너무 강하다구….

어… 어떻게 된 거지….
그… 그런 것까지 알면서
왜 우릴 죽이지
않은 걸까….

우… 우리 정도야
죽일 필요도
없단 말인가….
상대가 안 되나봐….

!!

안 돼! 추격하지 마!!

그냥 놔두라구!

미… 미안해….
나… 나는
두려움 때문에
대항할 수조차
없었어….

신경쓰지 마….
초사이어인으로 변신한
트랭크스도 거의 한방에
나가 떨어질 정도의
상대였다구…. 네가
덤벼봤자 승산은 없었어.

녀석은
초사이어인이
되어 절대적인
자신과 프라이드를
되찾았어….

그것이,
인조인간이긴 해도
여자한테 묵사발 당한
충격은 굉장히
클 거야….

화…, 확실히
얘기하마….
오공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트랭크스나 베지터
정도일 거야….

전혀 승산은
없다구…!
오공도….

그… 그런데도
인조인간한테는
전혀 쪽도
못썼다구….

얘… 얘는
그 프리더도
처치한
아이야….

그… 그렇게
엄청날 정도의
파워는 아니었는데….
나… 나도 맞붙어
싸울 수 있을
정도의….

그 녀석들….
내가 알고 있는
인조인간과는
또 좀 달라….

우선 손오공의 병이 나은 다음에 이것저것 생각해 보자.

너희들은 우선 손오공의 집에 가서 오공을 어디 다른 곳으로 옮겨라….

이제부턴 어쩌지…?

어쨌든…, 앞이 캄캄하다….

그런데…, 피콜로는 어쩔 생각이니…?

그… 그래….

말해봐, 피콜로. 우린 친구잖아.

뭐, 뭐야! 그 얼굴은 뭔가 작전이 있는 것 같은데!?

글쎄….

웃기는 소리! 난 마족이다.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단지 너희들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얘기했던 걸 까먹지 마라!

친구라고!? 헛소리 마! 내가 언제 니들 친구였냐!




그… 그렇군…. 분명 저 녀석은 피콜로 대마왕 이었지.
나… 나도 완전히 잊고 있었네….
아직 세계정복을 꿈꾸고 있는 건가?
……
저 녀석도 오공이나 베지터와 같이….
난 세계 정복이니 뭐니 뻥이라고 봐….


단지, 누구보다도 강해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지….
그래서…, 최후의 비책…, 수단 때문에 날아간 걸 거야…, 아마….
뭐지…?
그 최후의 수단이란 게….


글쎄…,
생각이
안 나는데…,
나도 알고
있는 곳이니?
저쪽
방향…?


피콜로는
저쪽 방향으로
날아갔어….
거기 뭐가
있는지 알아?


대체…,
무슨
소리니…?
신님의
…?


신님의
집이지.


즉, 피콜로는
신님과 원래대로
하나가 되기 위해
간 걸 거야.
나는 나메크성에서
최고장로님한테 들었다구.
신님과 피콜로는 둘로
안 떨어지기만 하면
사이어인에게도
지지 않는다고….


게다가 피콜로는
실력이 상당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오공애들이
초사이어인이라면
피콜로는 초나메크성인이
되는 거라구.
신님과 마왕이
합체하여
나메크성인의
전사로 되돌아
가는 거지.


뭐…
뭐야!?

그래…,
그야 그렇겠지….
그렇지만, 피콜로나
신님이 죽어버리면
어차피 드래곤 볼은
없어.

그… 그럼
신님은 없어지고…,
드래곤 볼도
없어져버리는 거
아냐…!?

아, 아빠….
아니,
베지터 아저씨는
어쩌려는 걸까…?

피… 피콜로가 만약
진짜로 신님과 합체할
각오라면…, 그 정도로
녀석이 마음속으로
압박을 받을 만큼
상상을 초월한 적이라고
느낀 걸 거야….

엑!?

이제 숨길 필요 따윈 없어.
네가 부르마가 안고 있던
아기가 성장한 모습이란
사실은 모두 알고 있다구.
모르는 건 네 아버지
베지터 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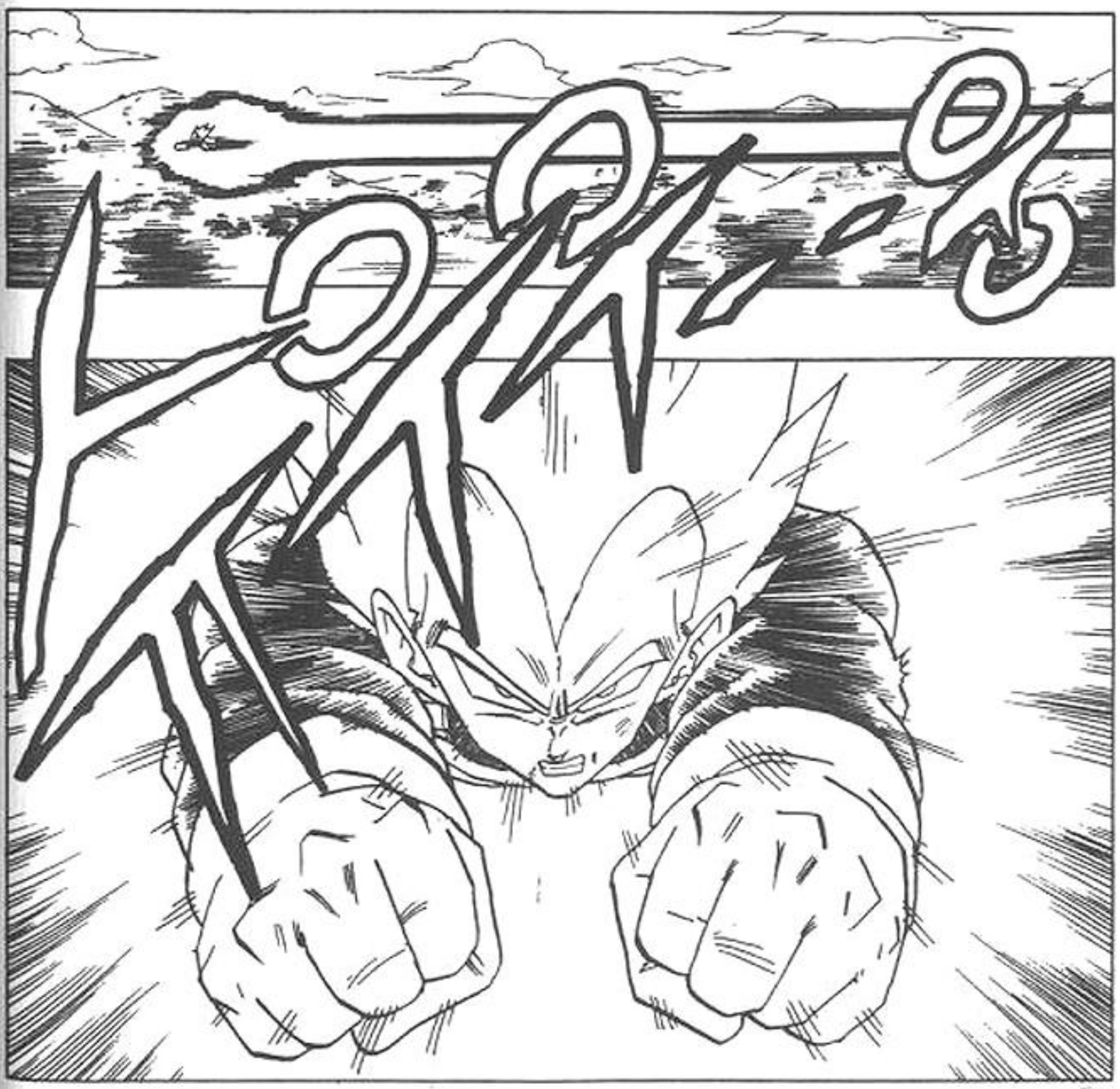
그…
그 녀석…,
신님을 죽도록
싫어했었는데
….

특별히
사과할 것까진
없어….

그…
그랬나…,
미안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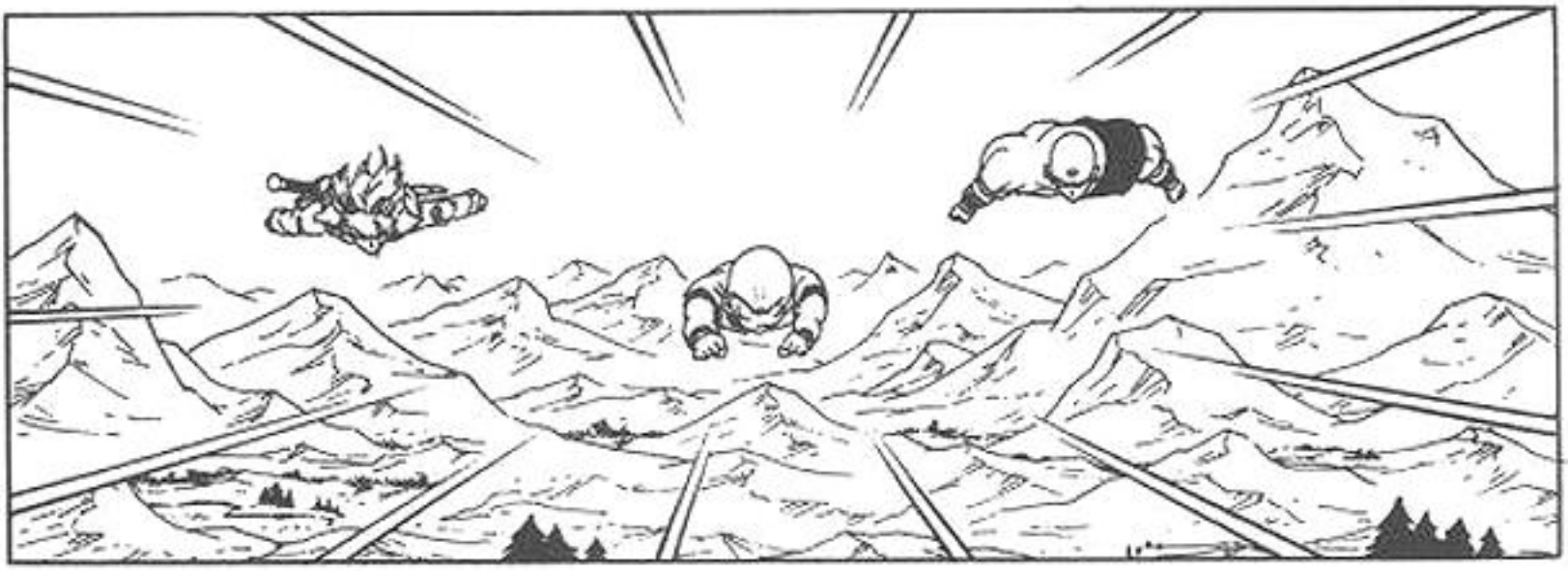
반드시 새로운
필살기라도 익혀서
다시 인조인간 앞에
나타날 거다….

베지터 녀석은
절대 졌다고 도망칠
그릇이 아냐….
자존심 덩어리로
뭉친 놈이니까….



나…
나 베지터 님을
살려둔 걸
이제 곧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이… 이런 제기랄!
인조인간 놈들…,
감히 날
물로 봐…!!



그 정도라면
충분히 숨어
있을 수
있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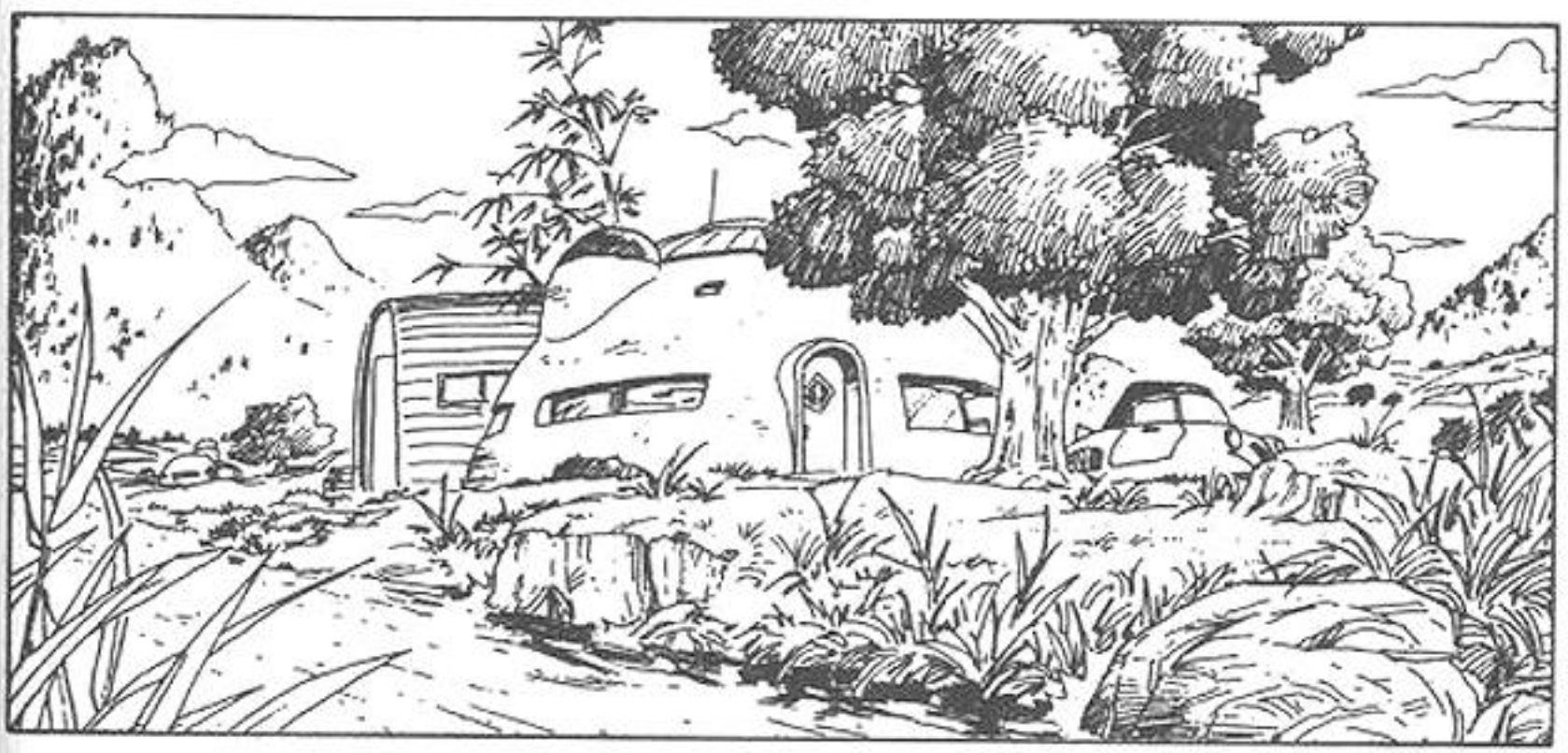
10일
이라….

야, 트랭크스.
오공한테 준
그 심장병약은
어느 정도 있어야
기운차리고 힘차게
움직일 수 있니?

하긴…,
손오공이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거란
얘기도 의심스러워
졌지만….

손오공 아저씨라면
10일 정도면 건강해질
거라고 봐….


으…….
어쨌든
그 3인조들에겐
파워를 감지하는
레이더가 없는 것
같아서 고건 진짜
다행이다….




헉
헉
헉
그러니까,
그게-.
여기도
없네…!
크…,
큰일났어…!!
아…
아직 악
못찾았어
…!?
빠…, 빨리
안 찾으면
큰일나!
어서…!!

찾았어!!

이거다!!

그걸 보관한 건 오공인걸…!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 봐야….

오공, 약 먹어! 어서!

휴우…!

하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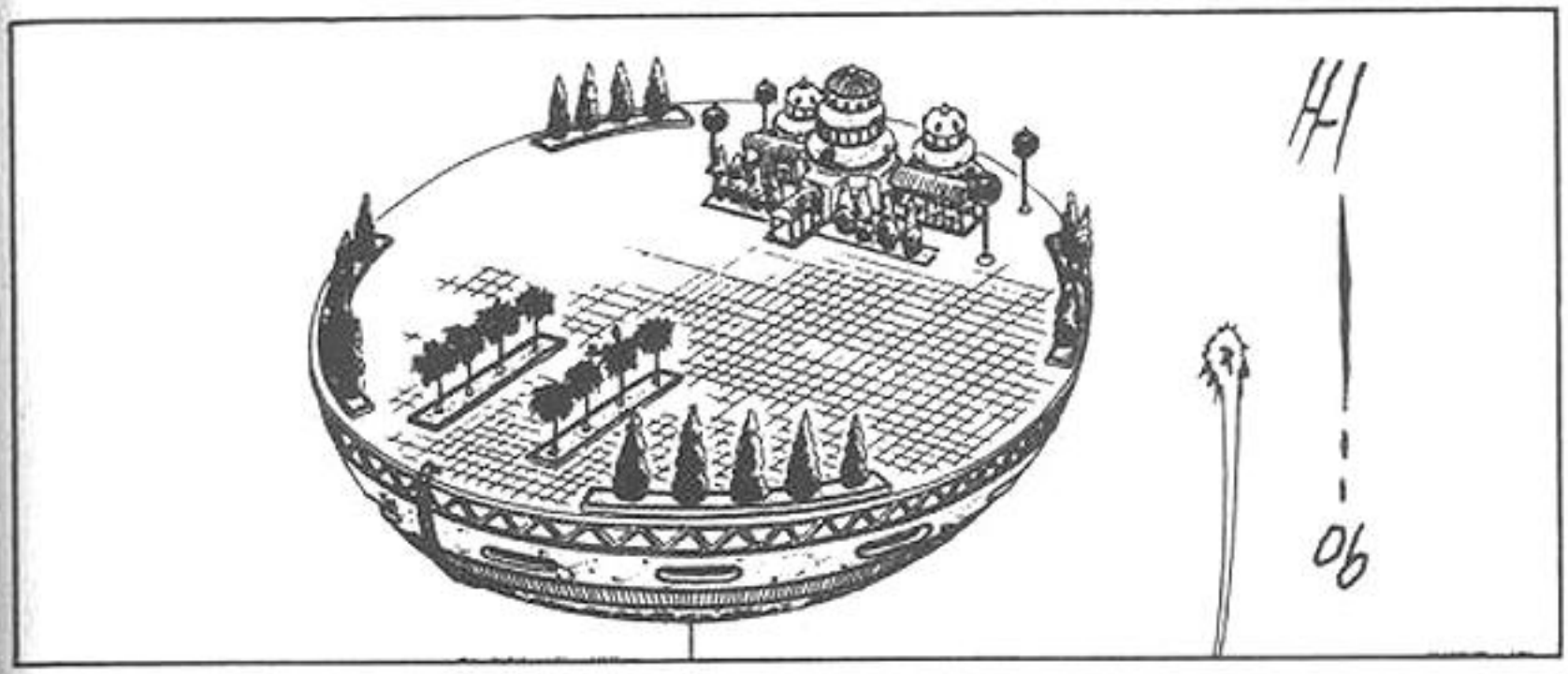
하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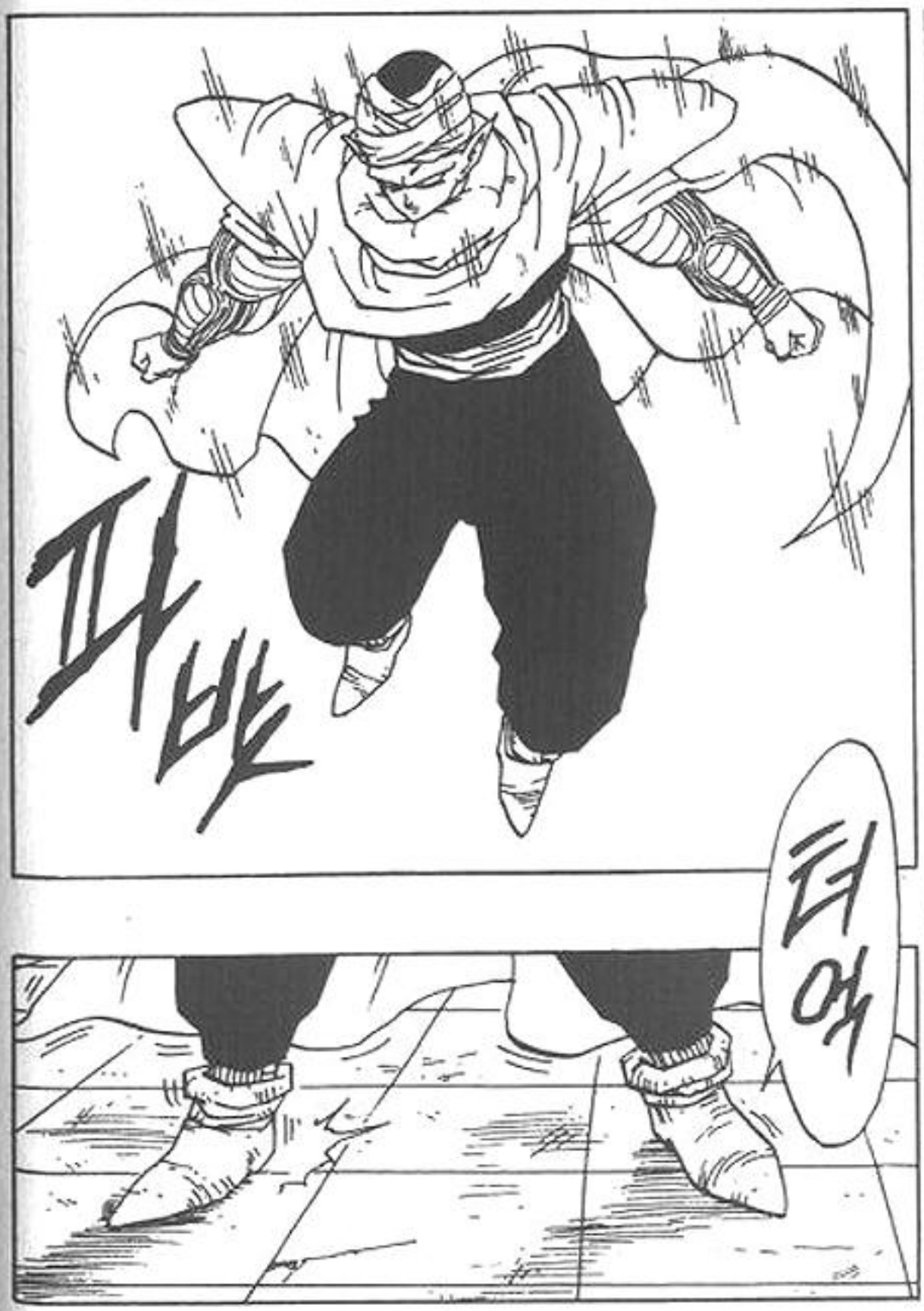
헉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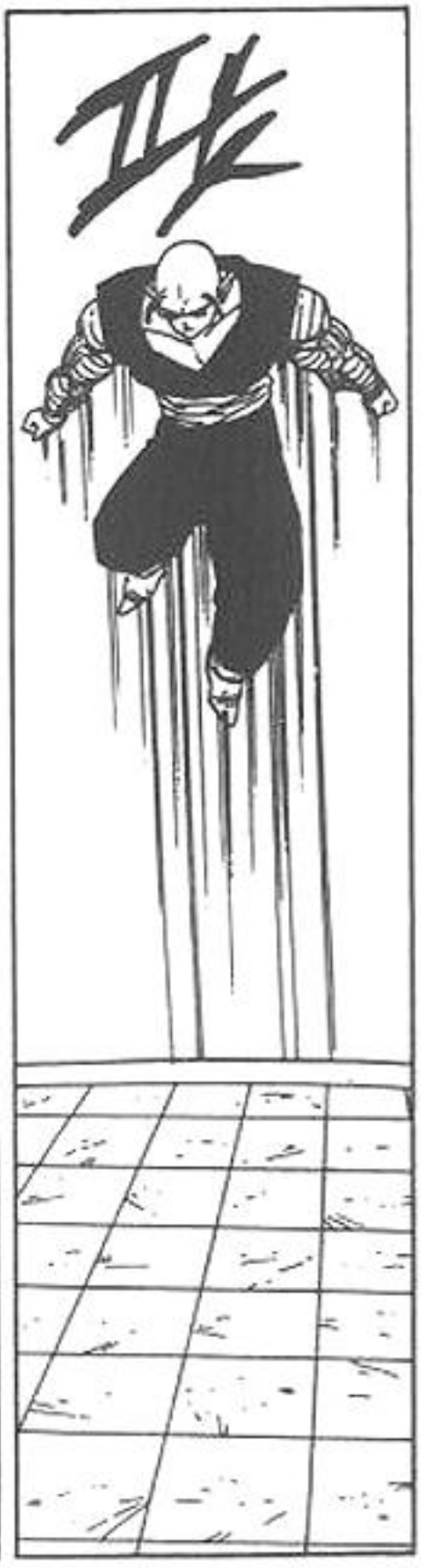
풀썩


아무래도 바이러스성 심장병 같아서 나도 먹을 테니까, 찌찌도 좀 먹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오반은 어디 있는 거지?
휴우…. 효과가 듣기 시작한 것 같네. 우선은….
휴ー!
어, 어라!? 아, 아직 안 돌아 왔어!?
어, 어디선가 놀고 있나 보지ー!


휘이이-----ㅇㅇ
슈슈
.....
神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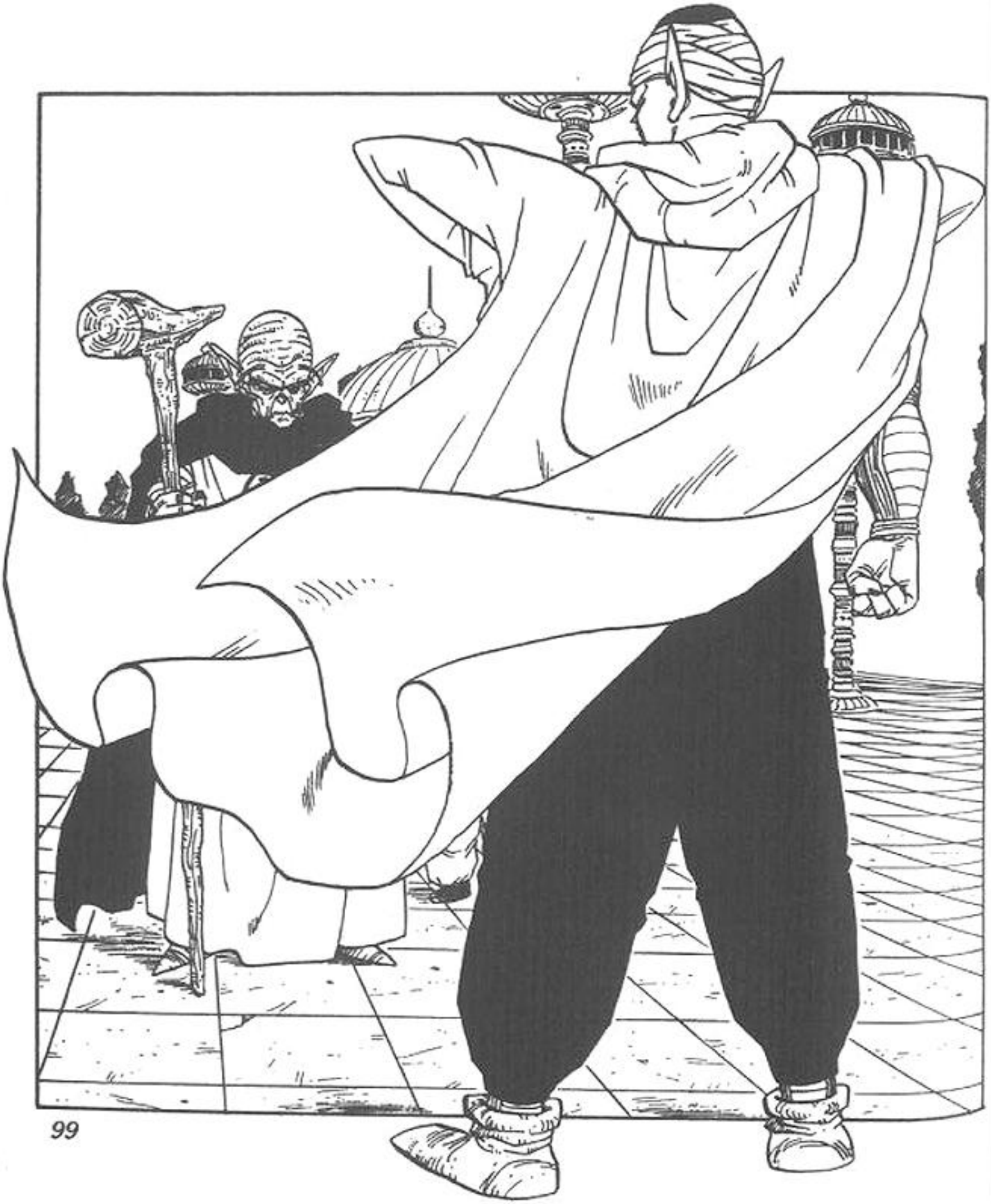

41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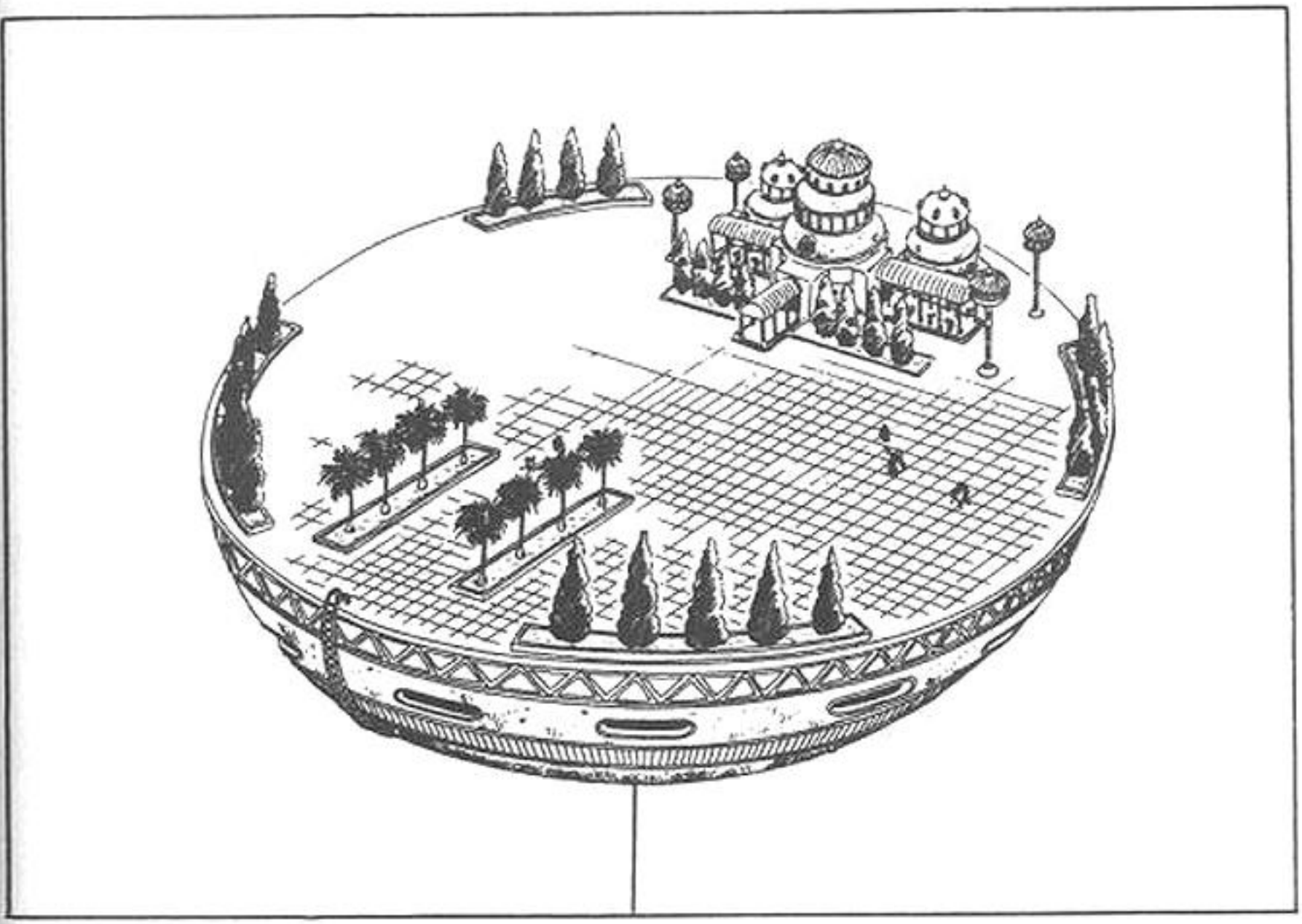

파밧
터엉


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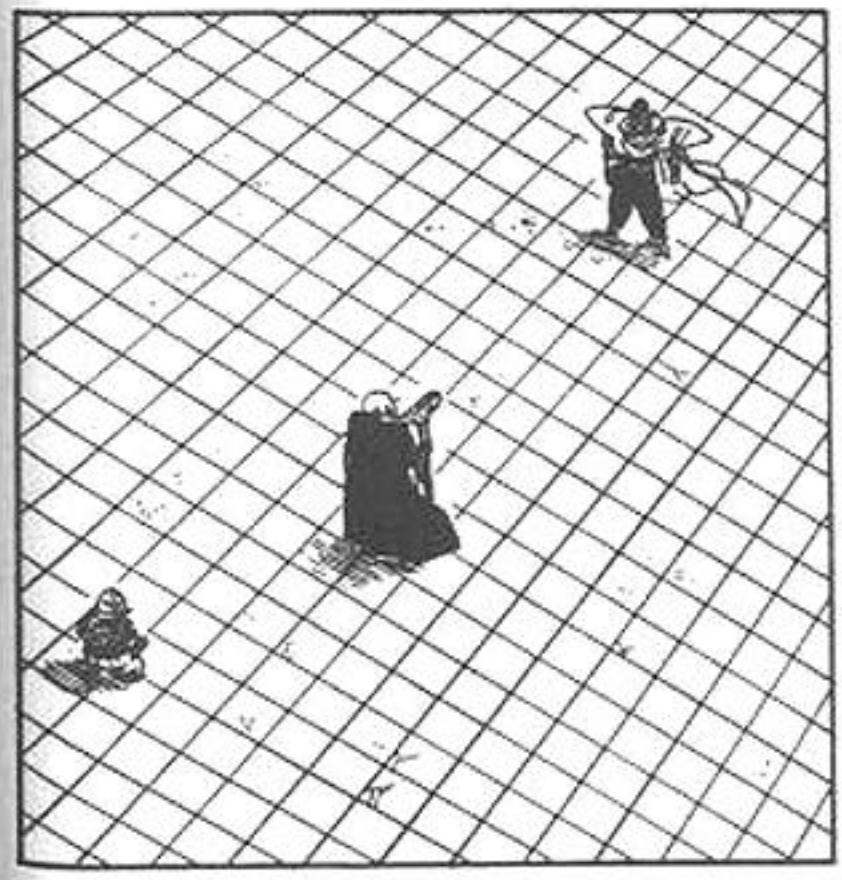
제356화

신님의 조건










神




내가 뭣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
알고 있겠지….
알고
말고….
원래 너와 나….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네 부모와는 한 몸이었다….
네가 생각하는 것 정도야
알 수 있지….


솔직히 말해서
다시 융합하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융합이 아니야.
넌 나 피콜로가 슈퍼 파워업을
이루기 위한 재료에 지나지 않아….
지금 네가 존재하면서 생기는
이득은 드래곤 볼 뿐이야….


계속해서 나타나는
강적 앞에서는 이미
내 힘 따위는
무기력한 거나
다름없게 돼버렸어….
분명 맞는 소리다….
어느 틈엔가 너와
나의 파워 차이는
계속 벌어지기만
할 뿐….


저…
저런….

프리더 부자를 단숨에
저승으로 보낸 그 미래에서 온
트랭크스란 소년조차….
그 트랭크스보다 더 강한
실력을 가진 베지터조차
인조인간한테는 저렇게
쪽도 못썼다….

손오공의 병이
낫는다 해도
아마 결과는
마찬가지겠지….

역시….

신과 대마왕이
하나가 될 때가
온 건지도
모르겠군….

바로 그 얘기다.
지금 이 지구에
필요한 건
신 따위가
아니야.

놈들을
쓰러뜨릴 수
있을 정도의
슈퍼 파워를
지닌 바로
나다!

알았어….
내 몸을
네게 주마….

시…,
신님….

하지만….

좀 더
상황을
지켜본
뒤에 하자.

그 세 명의 인조인간이 진짜로 지구에 피해를 입힐 놈들인지, 어떤지를 본 다음에….

그래!

뭐라고…!? 상황을 지켜봐…!?

그놈들 덕분에 미래의 세계는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얘기를….

진짜 사람 질리게 하는 놈이네…. 너도 여기 앉아서 한가롭게 강건너 불구경 하듯 트랭크스의 얘기를 들었겠지?

지금 무슨 한가로운 헛소리야! 실제로 우리를…!

트랭크스가 알고 있는 미래의 인조인간과, 여기서 만났던 인조인간과는 좀 상황이 틀리다는 이야기도 들었지….

싸움을 건 것은 너희들이잖아! 게다가 그 3인조는 너희들을 죽이려고도 하지 않았어!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내게 있어선 최종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이유가 필요하다….

크흐흐…! 그러면 뭐야? 혹시 그놈들은 귀여운 짓이나 하는 놈들일지도 모른다는 얘기니?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네가 미치도록
그렇게 하고
싶어질 때까지….

이 겁쟁이….
좋아, 알았다….
여기서 기다려
주마….

휘이이잉-

차다…,
겨우 하나
찾았네.

!

그래, 진짜야.
정말
질렸다니까….

와~,
그 얘기
진짜야?

HOT COFFEE

PUSH PUSH PUSH

딸깍

이 짐은
방해만
되겠다.

LUCKY FOODS
COMP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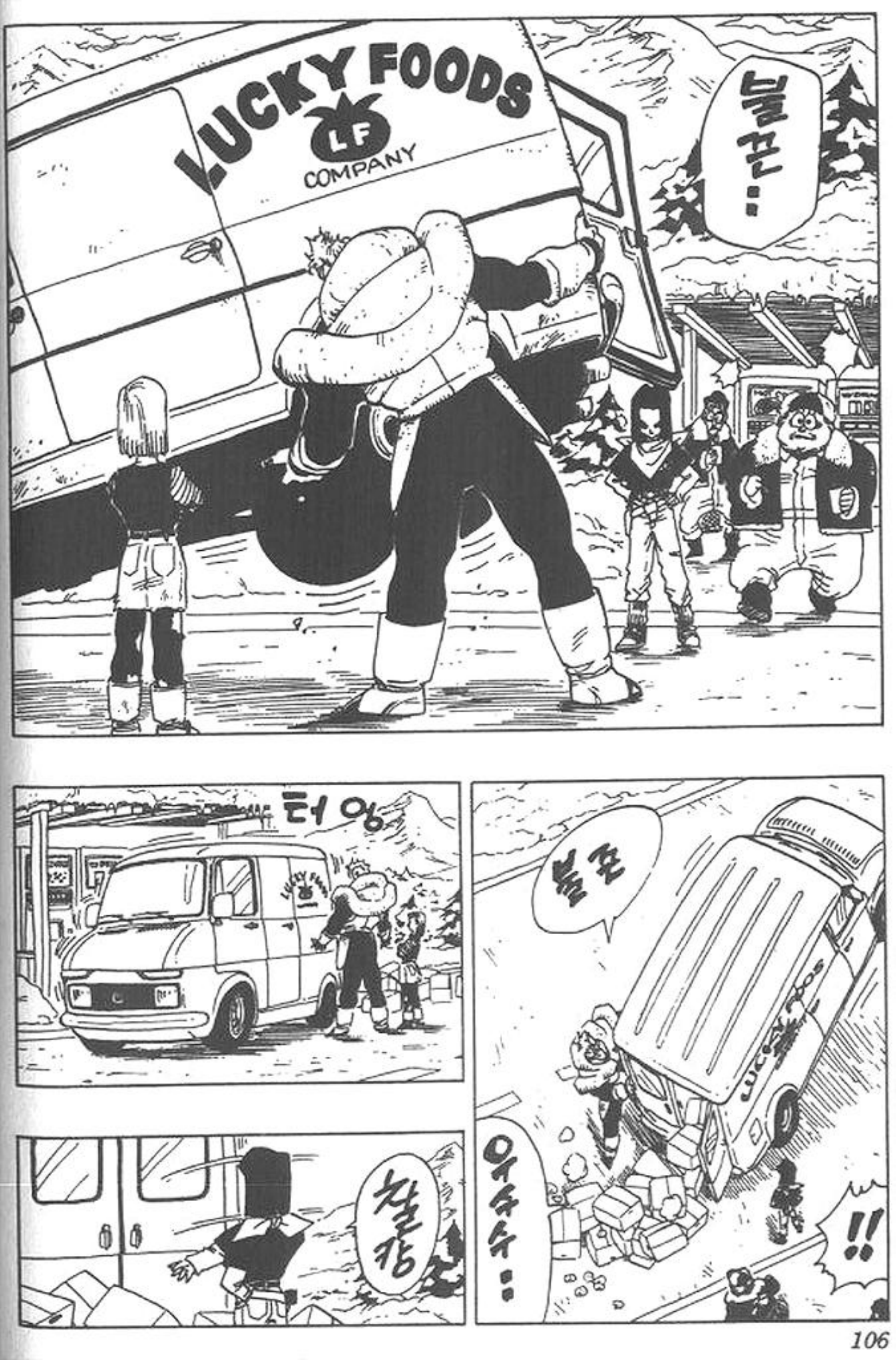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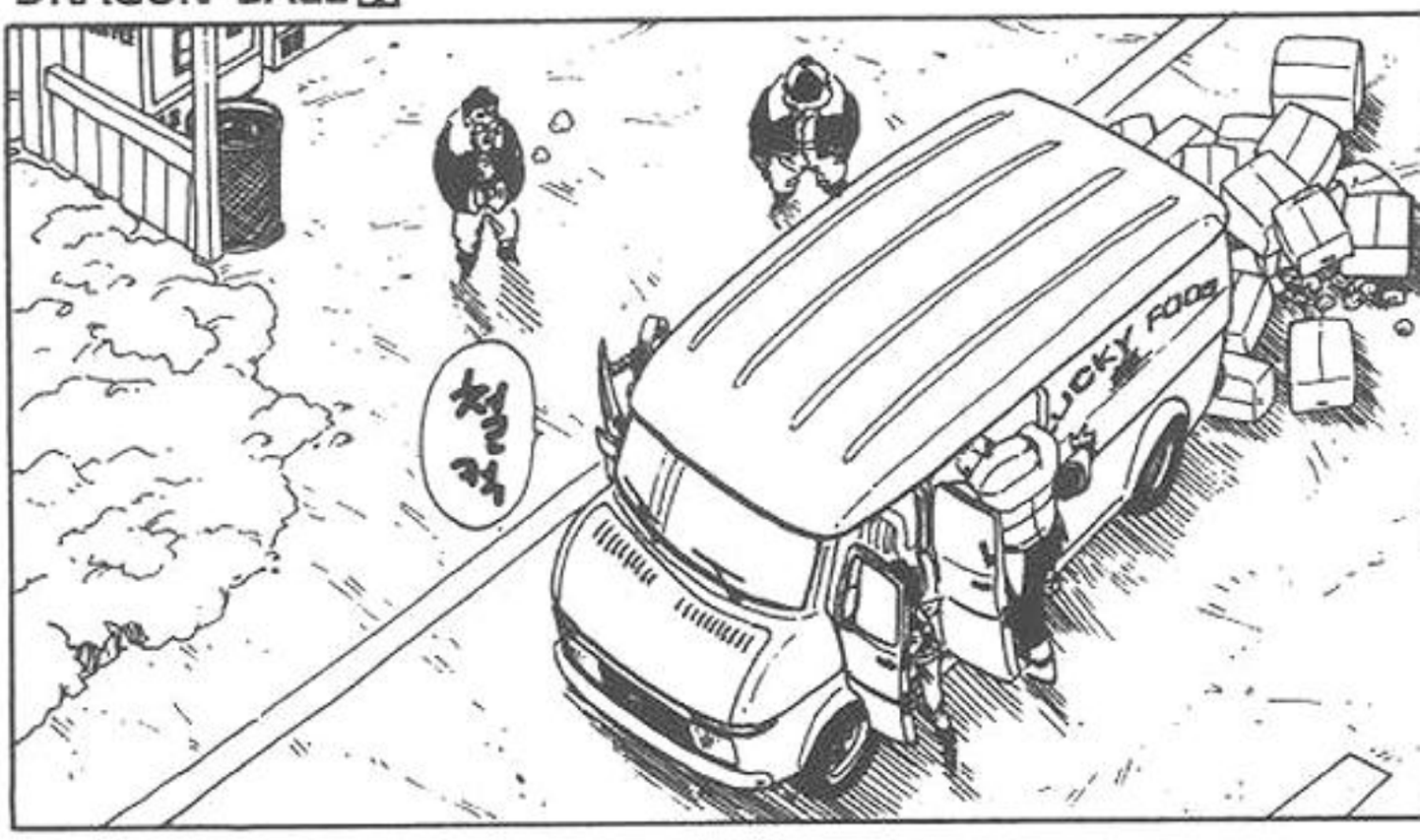
엥!?

뇌들,
뭐 하는 거냐?

어이,
얘들아.

LUCKY FOODS
COMP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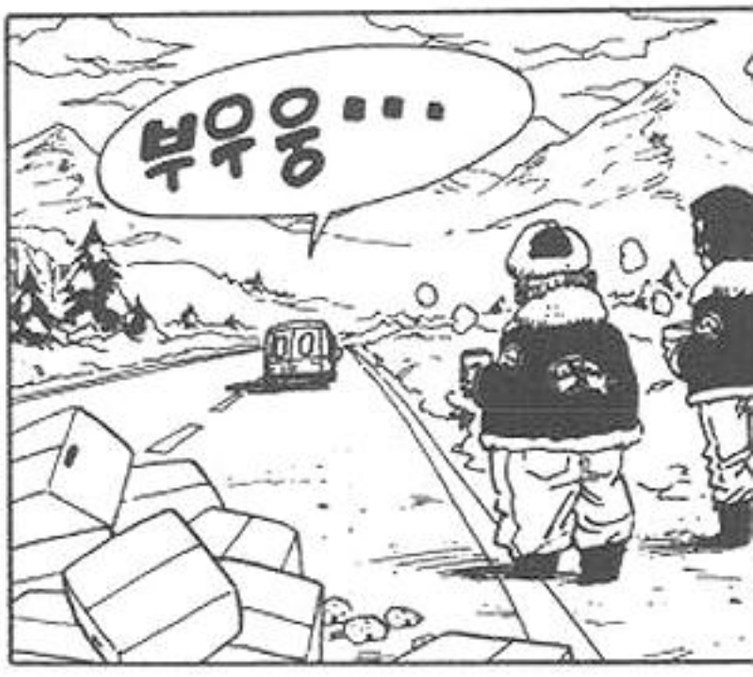

LUCKY FOODS
LF
COMPANY
늘끈..
터앙
찰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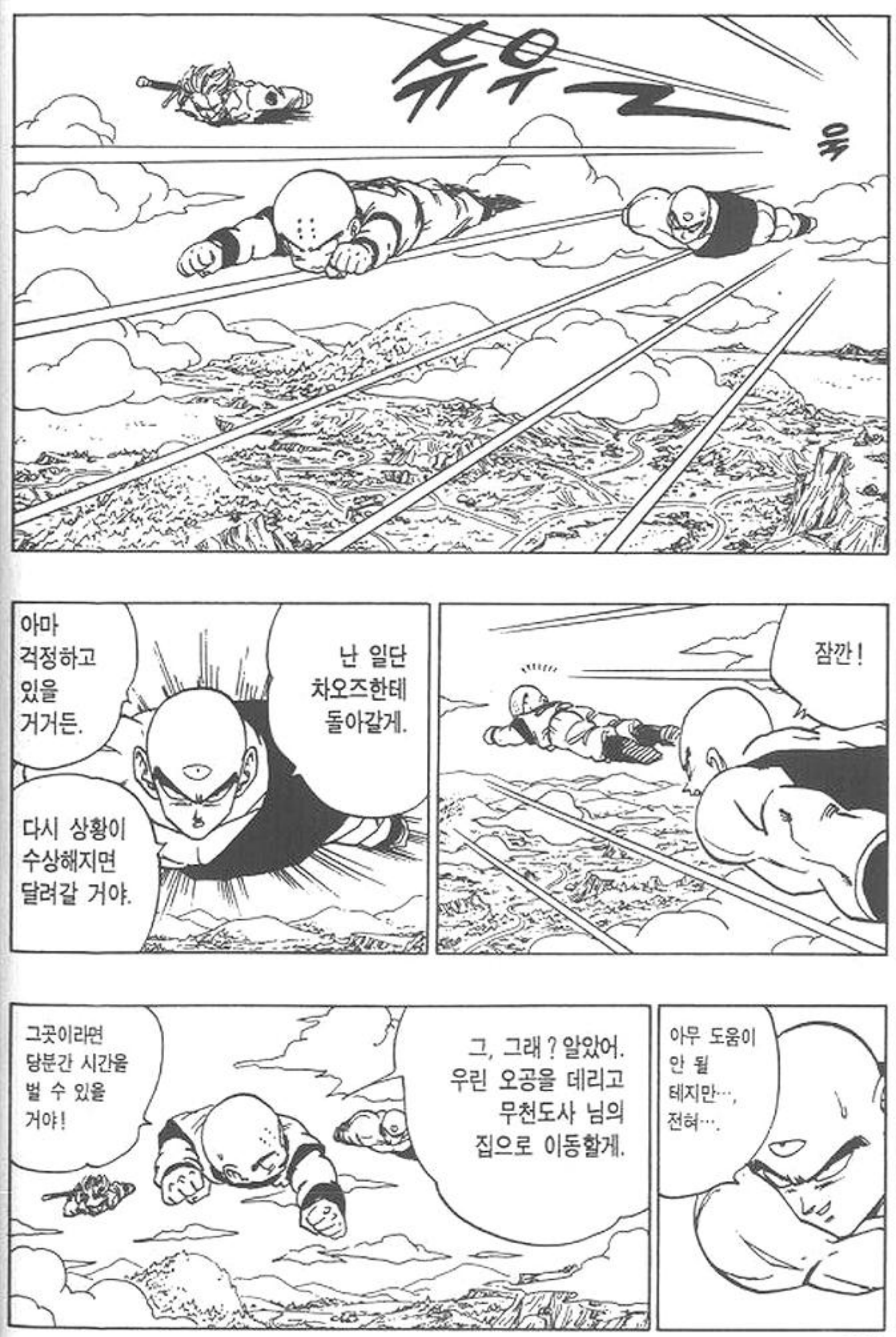

철컥
JOKY FOOD


그래, 알았어.
그 전에 옷이 좀 필요하다고 했잖아.


우선 손오공 집으로!
가자!


이, 이거 꿈 아냐?
그… 그렇겠지….


부우웅…


슈우
웅
잠깐!
난 일단 차오즈한테 돌아갈게.
아마 걱정하고 있을 거거든.
다시 상황이 수상해지면 달려갈 거야.
아무 도움이 안 될 테지만…, 전혀….
그, 그래? 알았어. 우린 오공을 데리고 무천도사 님의 집으로 이동할게.
그곳이라면 당분간 시간을 벌 수 있을 거야!

오공에게 전해줘, 무리하지 말라고….

그… 그래….

무… 무리하지 말라고…. 마…, 맞는 얘기군…. 이번만큼은 아무리 손오공이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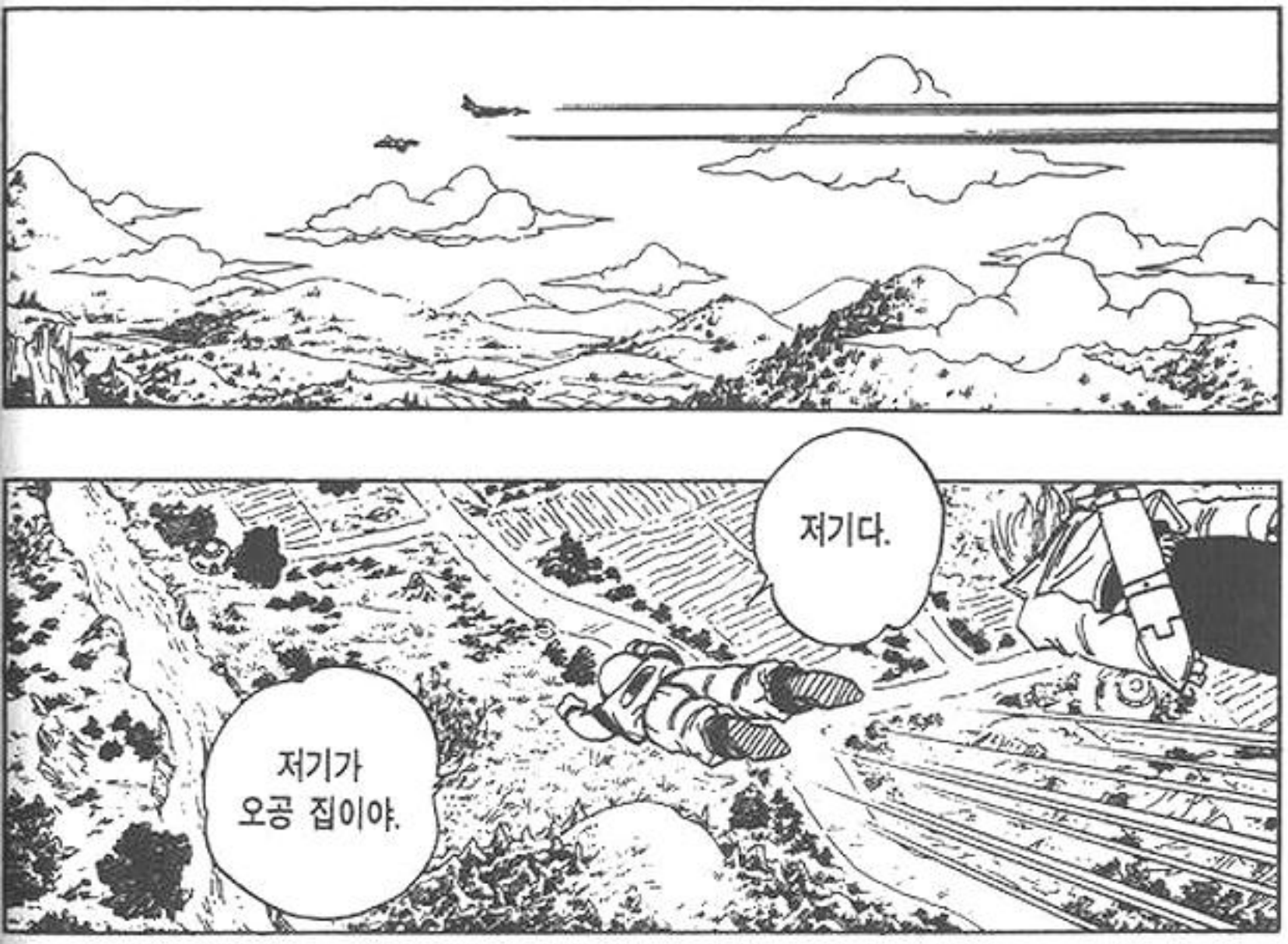
어… 어째서 역사가 이 정도까지 뒤바뀌어 버렸을까….

이…, 인조인간은 그 정도의 엄청난 파워가 없었는데….

게다가 두 명 뿐이었고….

그… 그걸 나라고 알겠나…?

어쨌든 지금 시대에선 그게 현실이 돼버렸다구….


저기다.
저기가
오공 집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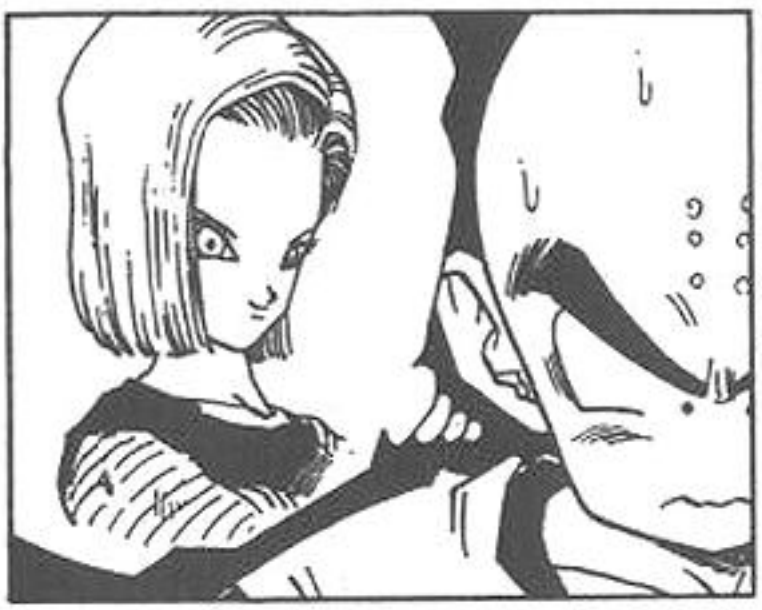

좀 물어
보자….
저…
저기….


탁
탁


그… 그
인조인간들…,
진짜로 아주
나쁜 놈들 맞아…?
응?


마,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
아냐.


적어도 우리
시대에는….
그건
왜 묻지…?
상상도
못할 만큼
잔혹한
놈들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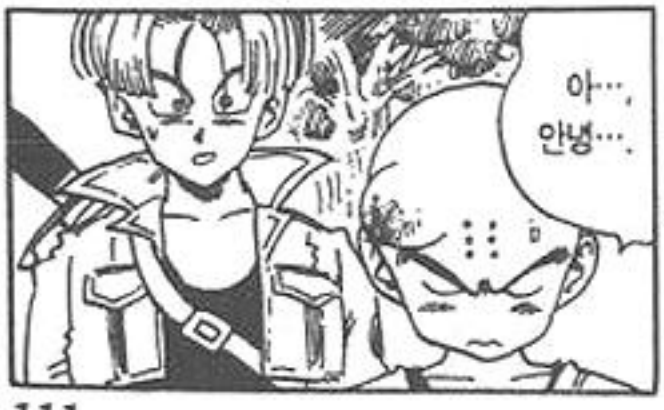



그, 그렇지?
알아.
그런 헛된
꿈은 안 꾸는 게
좋을 거야.
그냥 잠깐
생각해본 것
뿐이라구….


뭐야,
크리링
이구나!
어머!?


오반
이니!?
퍽


또옥
또옥


아…,
안녕….

다행이다!
엄청
걱정했다구!

크리링!
무사
했구나!

어라?
누구지?

오공 형씨의
마누라야….

아…,
안녕….

그래!
네가 인조인간을
쓰러뜨려
줬구나!

넌
미래에서
온….

아…
아니….

아!

괜찮아.
지금 약 먹고
자고 있어.

오공은
!?

새로운…,
더 무시무시한
인조인간 세 명이
곧 이쪽으로
올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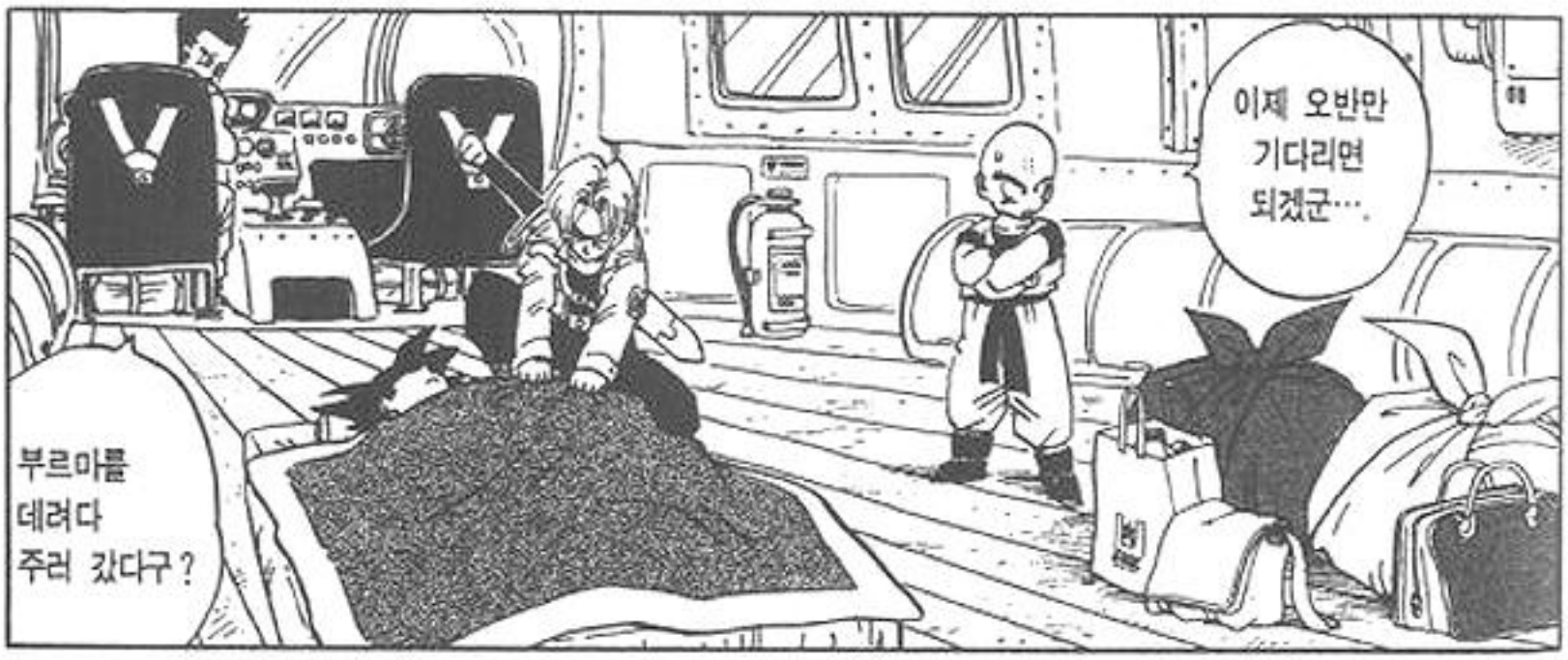
이…
이거
큰일났군….

……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빨리 무천도사 님
집으로 가야 해!
우리 모두 같이!

뭐?







다음은, 제357화 부르마로부터의 소식

CAPSULE CORP. 576

CAPSULE CORP. 576

꺄아아아-!-!-!


어… 어쩌면 좋을까….
그… 그걸 나한테 물어봤자지….


이… 이제 어쩌지…?
……


닥터 게로의 연구소 위치는 이미 알아냈고….
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더 옛날로 가서 놈들이 움직이기 전에 파괴해 버리는 거야….


게다가…, 오공 얘기로는 왕복을 위한 에너지 만드는 것도 무지게 힘들다며?
잠깐…. 그 타임머신이란 건 완벽한 게 아니었잖아?


그… 그런 방법이 있었네.
그,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 아냐…?


그… 그건….


더 옛날로 갔다가 제대로 미래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미 인조인간이 작동해버린 지금 세계는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어!

마, 맞는 얘기야…. 그걸 잊고 있었네…! 분명 내가 과거로 가서 인조인간을 파괴해도, 그 세계의 미래는 무사하지만….

지금 있는 인조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지…? 사라져 버릴까…?

저어~, 내 생각이지만…. 가령 트랭크스가 조금만 과거로 가서 인조인간을 파괴한다면….

그러나, 내가 살던 미래의 세계에선 오공 아저씨는 역시 과거에 심장병으로 죽었던 사람이었지.

저… 저기…, 예를 들어 손오공 아저씨는 내가 미래에서 가져다 준 심장병약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무… 무슨 소리야?

…!?

그럼, 저기…. 만약 이제부터 오공이 인조인간을 해치운다고 해도…, 너의 미래에선 그대로 인조인간은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거잖아?

아…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살아난 손오공 아저씨가 있는 미래가 있으면, 죽어버린 미래도 있는 거야. 약간의 변화로 많은 미래가 생겨버리는 거라구….

너는 대체 무엇 때문에 이 과거로 온 거지? 너의 세계는 변하지 않잖아.

그… 그렇다면….

그래….

그게 힘들다면
오공 아저씨한테 부탁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 미래로 와서
오공 아저씨가 놈들을
처치해 달라거나….
그런 작전이었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오공 아저씨와
인조인간의 전투에서
놈들의 약점을
찾아내는 거였어….

엄마가…,
인조인간에게
계속 당하는 건
너무 억울해서,
놈들을 싹 쓸어버린
평화로운 미래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

오공 아저씨가 심장병에
걸리는 타이밍도 틀렸고,
인조인간도 세 명이나
되어버렸어….
그 파워도 예상
이상이었고….

그렇지만…,
아무래도 난 내가
알고 있는 과거와는
좀 다른 과거로
오게 돼버린 것
같아….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내…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와버린 것
때문일까….

나도
모르겠어
….

그…
그치만…,
왜 그렇게
달라져
버린 거지?

네가 오지 않았다면
오공도 심장병으로
죽었을지 모르잖아!
난 너무 고마워
죽겠는걸!

너무
걱정할 것
없어.

하하하….

과연 그렇게 될까….

그래, 맞아! 어떻게 잘 되겠지 뭐!


제기랄!!
우아아 아아아— !!

10억%

헉

헉

초…
초사이어인은
천하무적이
아니었나…!?

그… 그런데
이게 무슨 꼴이지…!
아… 아까 그렇게
비참하게 당하는
꼴은…!!

나…, 난 사이어인
최고의 엘리트인 왕자다….
그… 그러니 초사이어인이
되면 전 우주 캡짱이 되는 건
당연한 거였어….

상대가
인조인간이라서
그런 건가…?
아… 이게
내 한계란
말야…!?

아냐…!!

……

기필코….

능가해 버리겠어….

적이 아무리 강해도 난 그걸 다시 초월할 수 있어!

그렇지 않다구…! 난 베지터야!!

인조인간을 박살낸 다음엔 네 차례다….

그리고 카카로트….

끄응 ….

모른단 거야?

곧 뭔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지.

이런, 이런…. 언제 그런 세월이 올까나….

근데 말이지….

그 손오공이란 친구는 어디 있는지 알아…?

호우~. 똑똑하네. 닥터 게로한테 들었니?

그래.

동쪽의 439지구 산속 마을에 손오공의 집이 있다.

그런 낭비가 즐거운 거잖아?

제발 사람 귀찮게 하지 마.

그걸 입부러 차타고 굼벵이처럼 가다니, 다 쓸데없는 시간낭비야.

맞는 소리야, 너, 알 한 번 잘했다.

날아가면 겨우 몇 분 안에 도착하지….

저기, 크리링.
일단 부르마에게
이런 상황을
알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곧
무천도사 님의
섬에 도착한다.

너희 엄만
말하는 게
너무
제수없어….

하하….
미래에도
그건 전혀
안 변했어.

그치만…,
나보고
연락하라고?
싫은데….

그…
그렇네….

저기,
나 크리링
인데….

아,
부르마?

예?
아, 예.
부르마 양
부탁합니다.

저, 저기….
크리링이라고
하는데 부르마 씨
있습니까?

빡

삐
빡

크리링!?
어머!
무사했구나!?


어?
아…, 마침
있는데….
있어!?


근데, 거기에
성장한
미래의
내 아들
트랭크스
없니!?
지금 어디서
연락하는 거야!?
오반이 집에 도착할
시간 같아서 집으로
전화했는데
안 받잖아!


하지만,
작동법을 전혀
몰라서 좀
가르쳐 달라는
전화였어….
며칠 전인가 서쪽의 시골
사람한테서 우리 회사로
신고가 들어왔나봐.
산속을 걷다가 신기하게
생긴 비행선 같은 게
버려져 있어서 집에
가져오려고 했는데-.


아, 그냥
얘기해도 돼.
스피커폰이니까
다 들리거든.
잘 됐다!
좀 바꿔
줄래!?


근데 방금 전
그 사진을 보고
난 간 떨어질
뻔했다니까.
그게 크랭크스가
타고 왔던 타임머신
이더라구!
상당히 파괴돼
있던걸.


우리 회사 제품이
아닌 것 같다고
했더니, 분명 몸체에
캡슐 코퍼레이션이라고
적혀있다고 했거든.
그런데,
전화로
그 비행선의
형식을
물어봐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그럼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했더니
보내왔어….


아…,
그래….
?

아… 아냐.
내 건 여기 있어.
난 캡슐로 돌려 놓고
여기 가지고 있는걸.

확실히
여기
있다는걸.

그… 그럴
리가….

설마….

뭐!?

아…, 그래.
역시…, 네가 타고온 게
아니란 말이지….
이끼 같은 게 좀 끼고
낡은 것 같아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

저기, 나는….
미래에 타임머신을
몇대나 만든 거지…?

전에 트랭크스가 타고
온 걸 본 적이 있거든.
잘못 봤을리가 없다구….
그쪽에 팩스 있지?
곧 사진 보낼게.

뭐~?
이상한걸.
분명히 이건
타임머신 맞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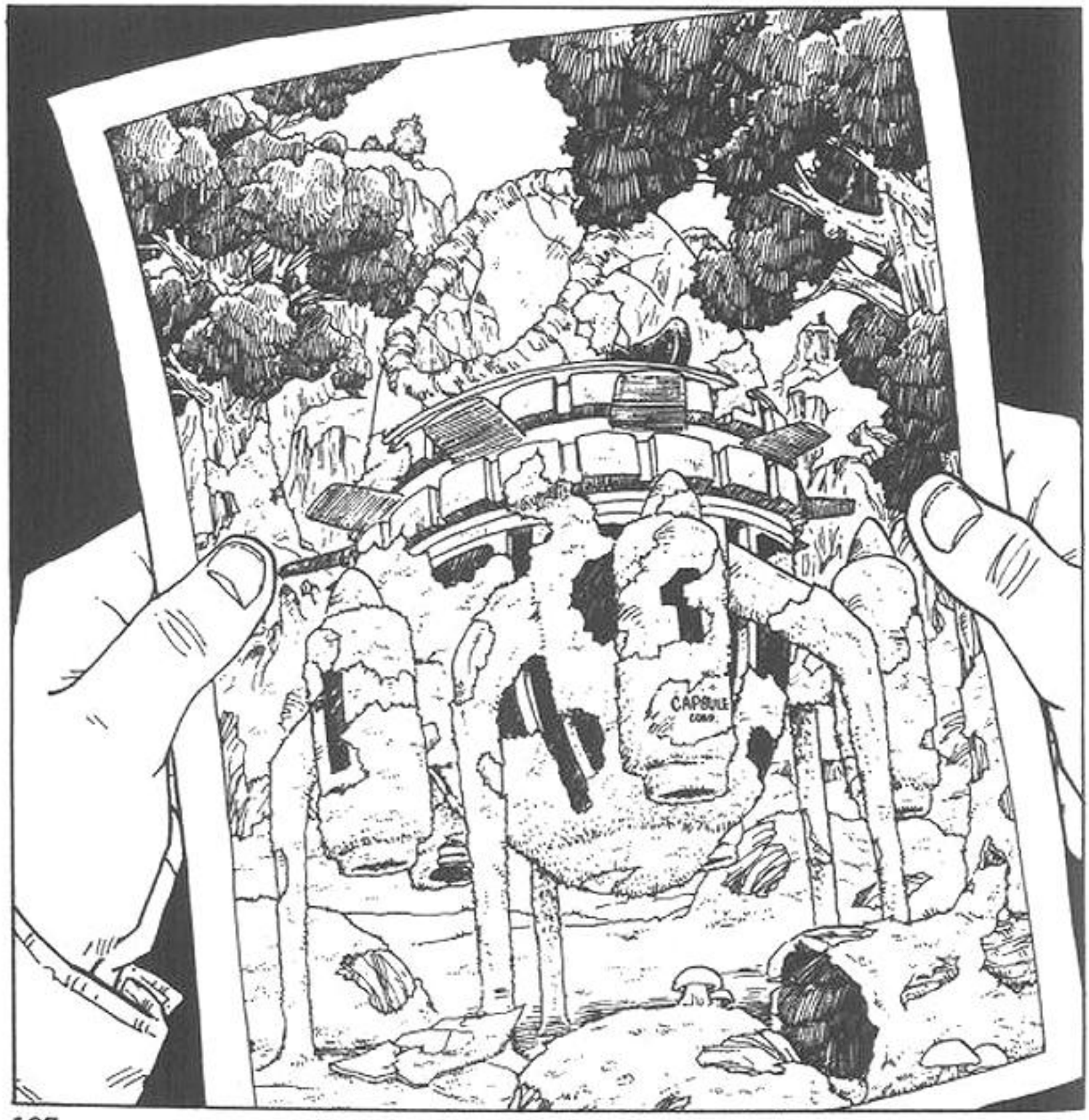
그럴
리가….

1대도
겨우겨우
만들었
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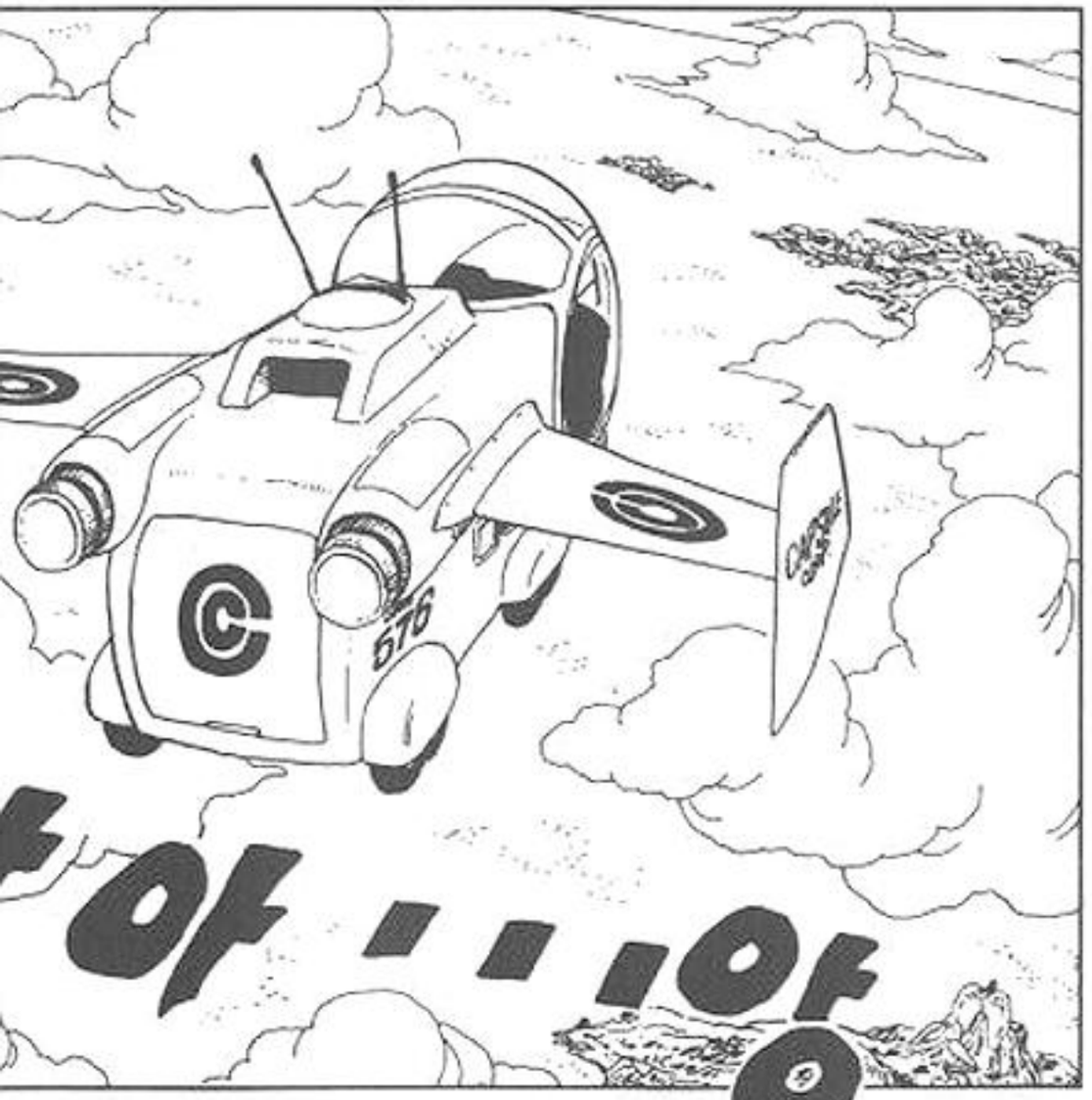
트랭크스,
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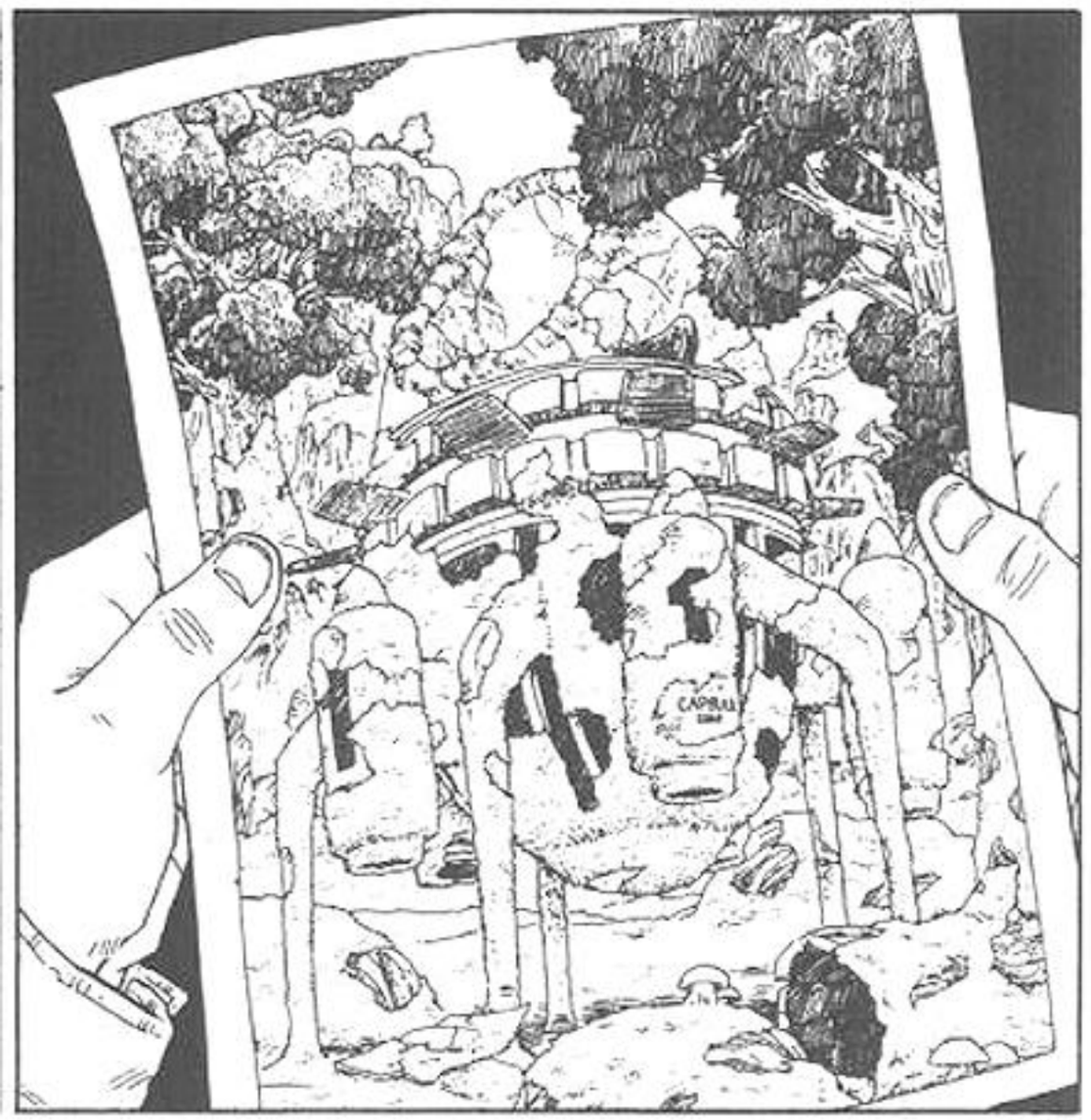
위이이
이잉!





다음은, 제358화 사악한 예감


576
of...of



그 타임머신이 있는 정확한 장소를 아나고 묻는데.

이, 이 사진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을까!?

龜

그럼 나도 갈게. 그리 멀지 않으니까.

응…!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서쪽 1050지구 부근 근처인 것 같아.

자세한 건 아니지만….

가볼 생각이니?

물론 좋지! 너무 고맙다.

저기, 나도 함께 찾아볼게. 같이 가도 돼?

응, 틀림 없어….

진짜 그 타임머신은 1대밖에 없니?

아, 알았어.

그럼 이따 봐!

워이이잉---

SULE CORP.

오반…!

걱정 마, 엄마!

위험한 곳에 가는 것도 아니잖아.

파바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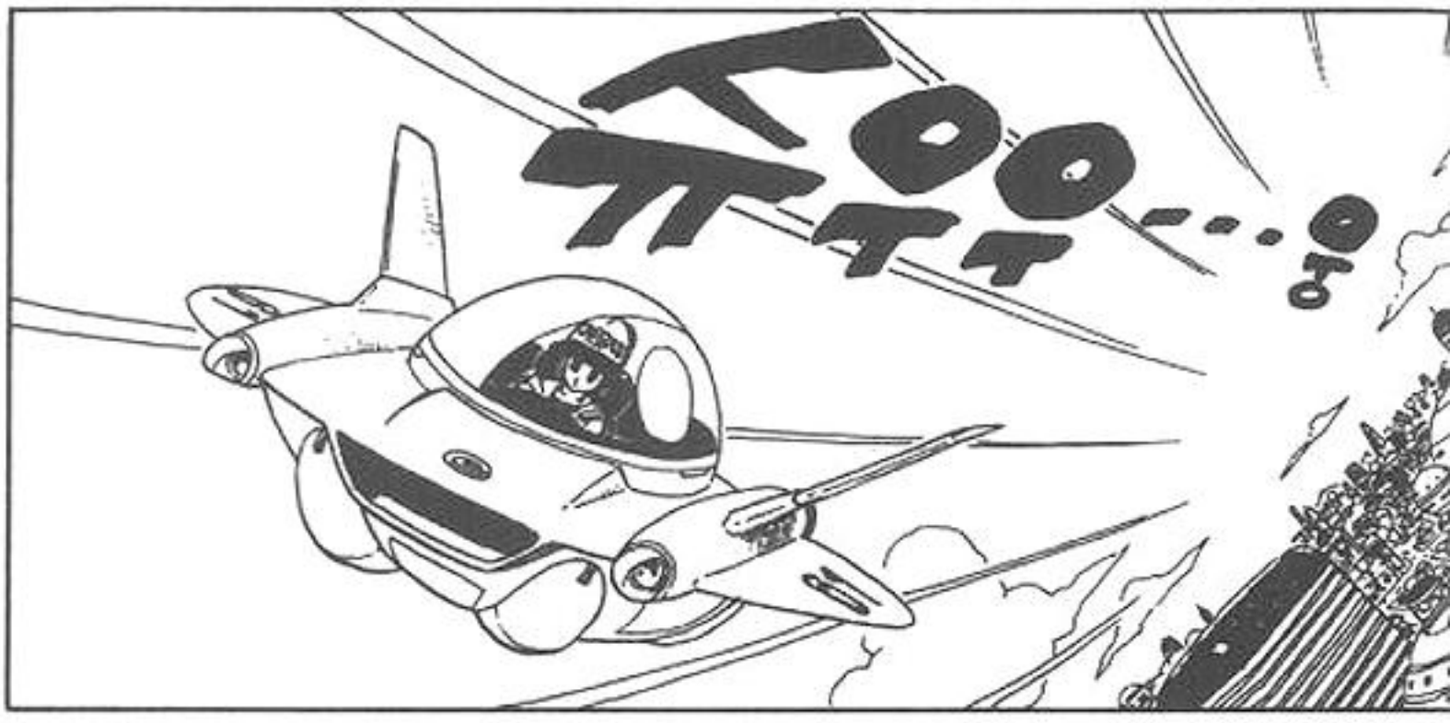
성장한 트랭크스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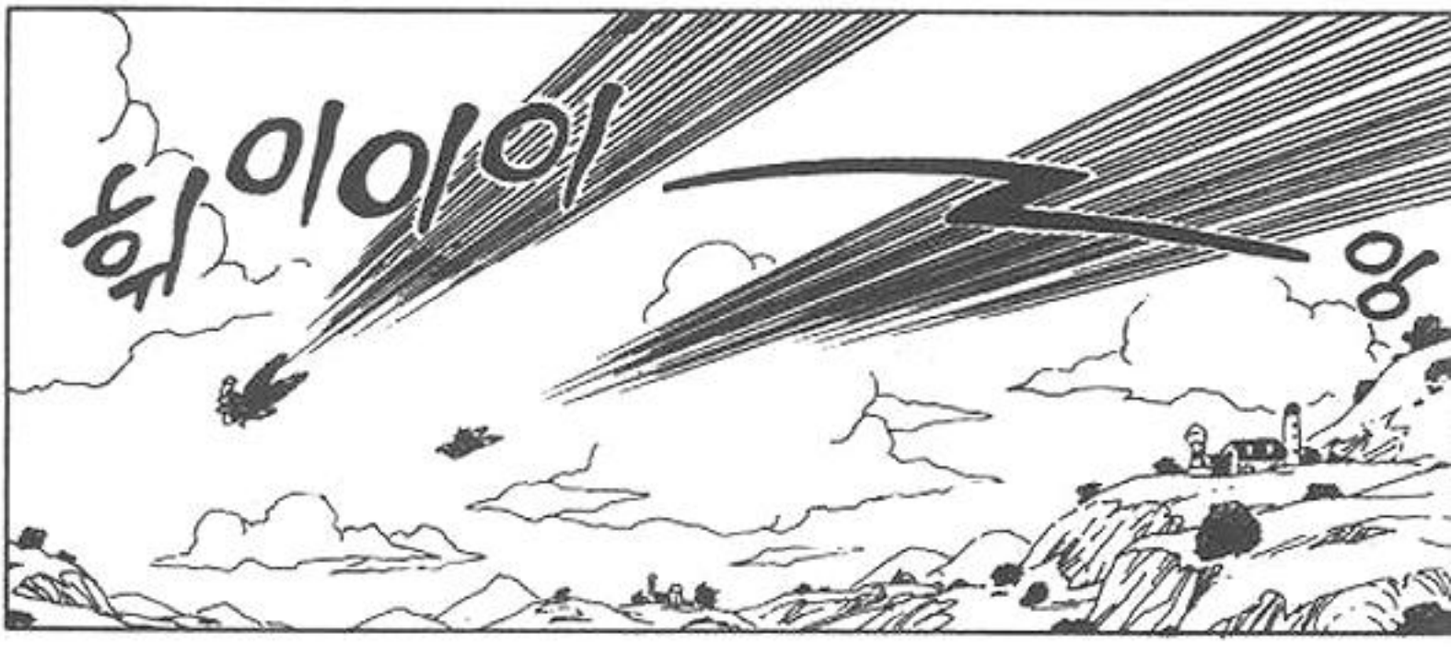
좀 만날 사람이 있거든.

엄마! 나 잠깐 나갔다 올 테니 트랭크스 좀 부탁해!

뭐?

어머, 부르마! 어딜 가려고?


쿠우우우…


헉 이이이
앙


그…
그렇게
까지….
인조
인간의
약점을
찾아내면
좋겠는데….


우리는 지하의
비밀기지에
숨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을 뿐이야….
응….
세계 인구는…,
겨우 몇 만명까지
줄어 버렸어….
서쪽 도시도
거의 파괴상태가
되었고….


인조인간
두 명
때문에….
저기…,
트랭크스가
살던 미래의
세계는 그렇게
지옥 같은
세상이었어?

그래도 놈들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건 그 정도까지 마음 속으로 쫓기고 있었다는 얘기겠지만…, 결국 놈들에게 당했지….

그때…, 두 명의 인조인간은 닥터 게로를 배신했었어…. 닥터 게로 입장에선 실패작이지….

그런 게 없었다면 또다시 작동시키려 하지 않았을걸….

놈들을 긴급 정지시키는 무슨 장치 같은 게 있는 거 아닐까….

이상한 건…, 그 테스트 단%네서 그 인조인간을 어떻게 스톱 시켰느냐는 건데….

그렇지만…, 닥터 게로는 테스트 단계에서는 인조인간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을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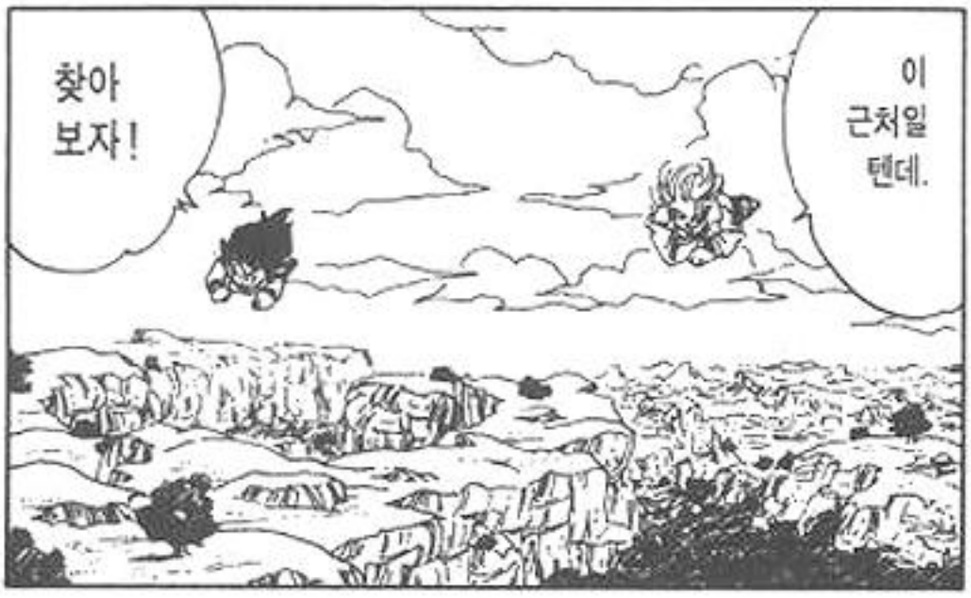
……

틀림없이 그럴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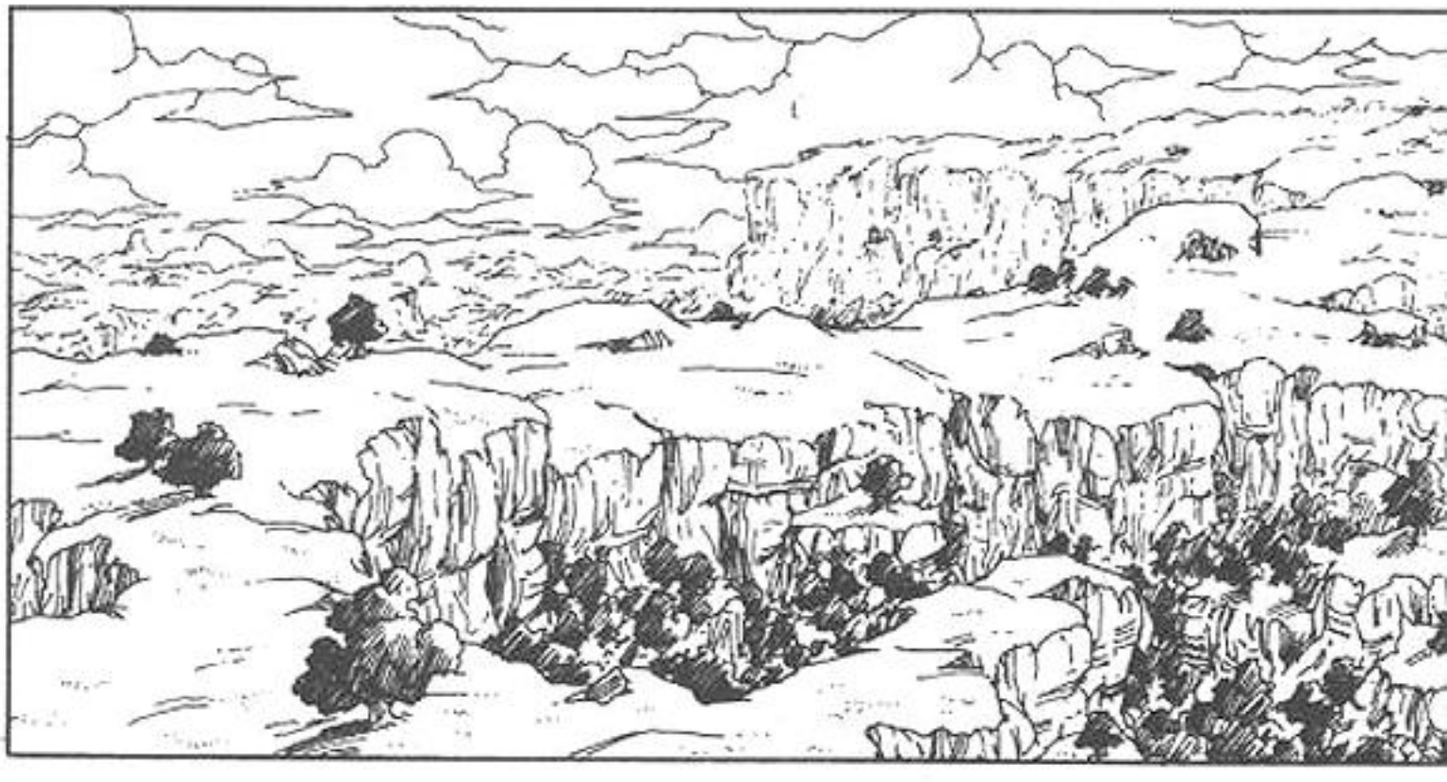
……

마…, 맞아…!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찾아 보자!
이 근처일 텐데.






저기 있다! 트랭크스, 찾았어-!




!

잘 찾아
냈구나,
오반!

내가
안내해올게!

분명
부르마일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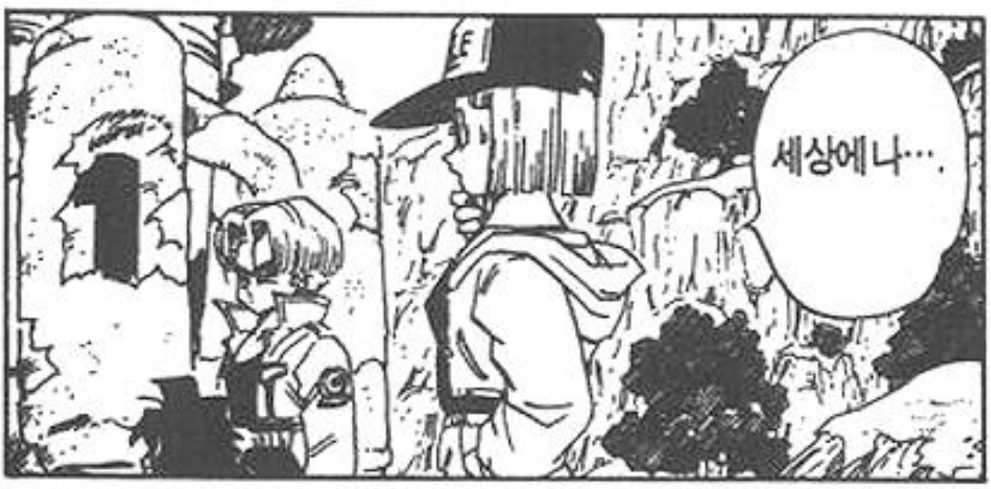
끼이이-앙

!

안농,
트랭크스.
아름다운
엄마가
왔단다-!

아…,
안녕…


어머나!
그럼 이건 확실히
네 게 아니란
얘기네….
이거 봐!
저쪽이 내가
타고 와서
캡슐로 돌려 놓은
타임머신이야.


세상에나….


아… 아닌데….
엄마는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단 한 대밖에
만들지
않았어….
이… 이것도
내가 타고온
바로 그
타임머신이
맞아….


CAPSULE
CORP.
그…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쪽 것도
여기 온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HOPE!!
이걸 좀 봐….
내가 출발할 때 쓴
「희망」이란
영어 문자야….

이 구멍이…,
좀 이상해….
높은 열 때문에
녹은 것 같아….
안에서 뚫은
구멍이야….

쓱

……

뭐…
뭐라고…?
그럼 누가
타고왔단
거야…?

아…
아무튼
한 번
열어보자…,
실례.

찰칵

끼…끼이이이…끄


!
여기도….


……!?




어디,
좀 보여줘!
CAPSULE


그… 그게
뭐지…?
야자 열매는
아닌 것
같고….
……!


그…
그런 알은
본 적도
없는데….
알
이라고….


……


어떤 알의
껍질이야,
이건….
틀림
없어….
CAPSULE
CORP.
탁



호…, 혹시
이 구멍을
뚫고 나온
것은….

그…
그 알에서
태어난
뭔가가….

……

에너지
잔량은 거의
제로이고….

이곳에
온 것은….

에이지
788…!!

내… 내가 온
미래보다 3년….
더 지난 미래로부터….

이…
이 시대에
온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

뭐…!?

지… 지난 번에
내가 왔을 때보다
1년도 전에
이게 와있었어….

대… 대체
무엇이…,
뭣 때문에
온 거지…!!

설마…,
이것
때문…!?

여…, 역사가
많이 바뀌어버린
것은….

또 하계를 훔쳐보았나?

별로 좋은 취미는 아니군.

그런 능력도 우리가 융합해 버리면 당연히 없어져 버린다.

시간있을 때 실컷 즐겨 두라구….

최… 최근 4년 동안에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린 것은…, 역시 인조인간 때문만은 아니었어….

나… 나도 모르겠어…. 대… 대체 타임어신에 뭐가 타고온 걸까….

뭐?

아…, 알 수 있는 건…, 그… 그 인조인간을 초월한, 너무나 엄청난 생물이 이 지구 어딘가에 존재 한다는 것….





다음은, 제359화 신님은 보았다!!

그건 그렇고,
역시 난 천재라니까.
미래에 이런
타임머신까지
만들어 냈잖아!

아무튼 이대로
여기다 타임머신을
놓아둘 수는
없으니까
우선 캡슐로
만들어 두자.

BUN!

그래.
이 이상한 알 껍질도 가져가자.
이것도.

우린 우천도사 님 집에 모여 있어.
거북 하우스에?
뭐 하러?
저기…, 간단히 말하자면 세 명의 인조인간이 작동되어 버렸는데, 그들은 아빠의 목숨을 노리고 있거든.
그런데 아빠는 병 때문에 저러고 있어서, 장소를 옮겨 숨은 거라구….
호~음. 그치만 그런 놈들은 너희들 모두가 힘을 합쳐 해치우면 되잖아!
CAPSULE CORP.

베지터도 거북 하우스에?

그럼…, 베지터는 무사하니?

어머…. 그렇게 대단해…?

아빠랑 나, 피콜로 아저씨, 천진반 아저씨가 함께 덤벼도 전혀 씨알도 안 먹혔다니까.

농담도 잘 하셔.

엥? 어디 가?

선두라는 콩을 먹고 살아났어…. 하지만, 아빠는 모두와 함께 행동을 안 하더라구….

아니…, 저게 뭔가 해서….

어? 뭐가? 어디….

……

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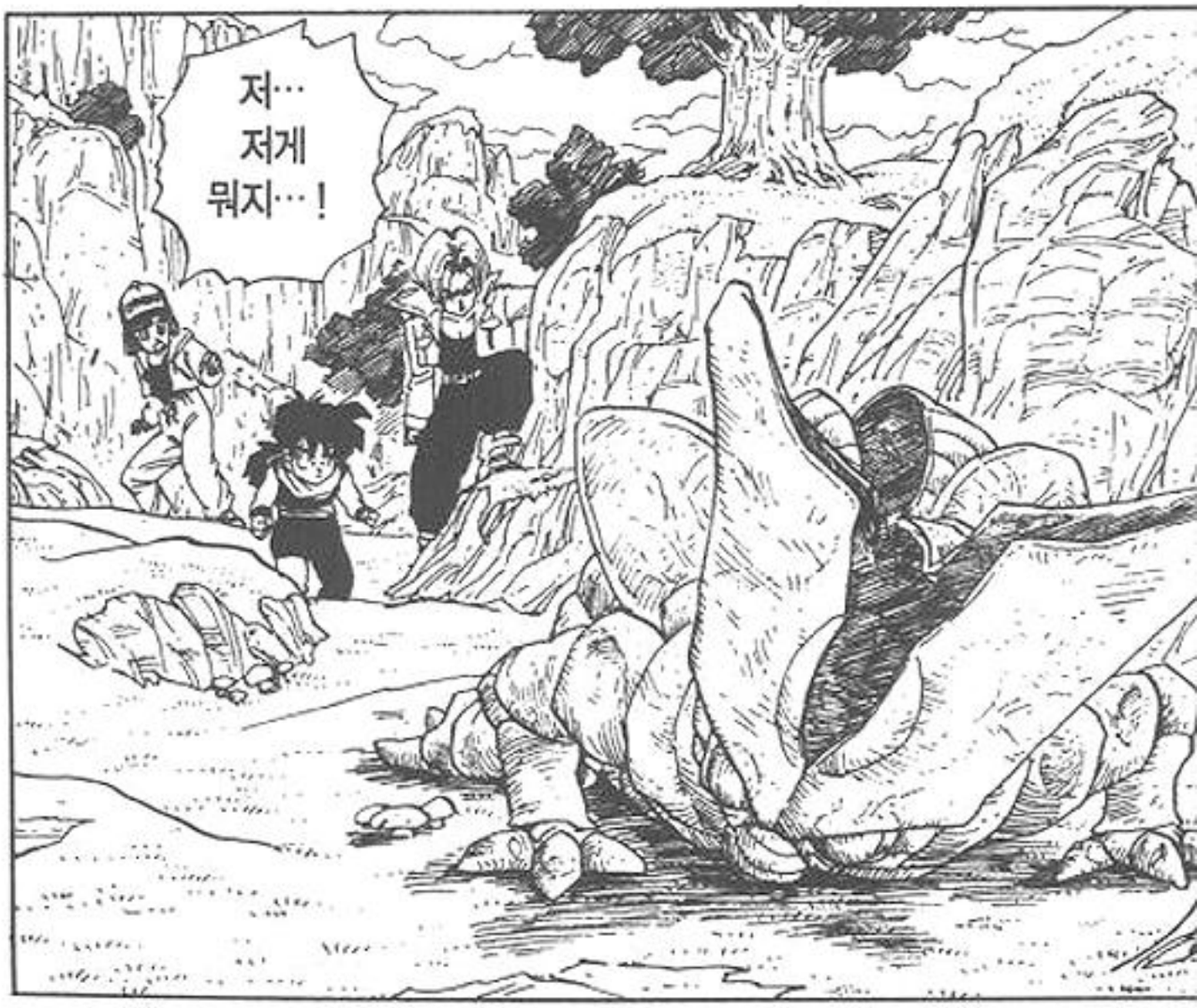
자, 잠깐 와봐!!


저…
저걸….
뭐니,
오반?


뭐, 뭐야!
왜 그래!?


꺄악!!


!!


저…
저게
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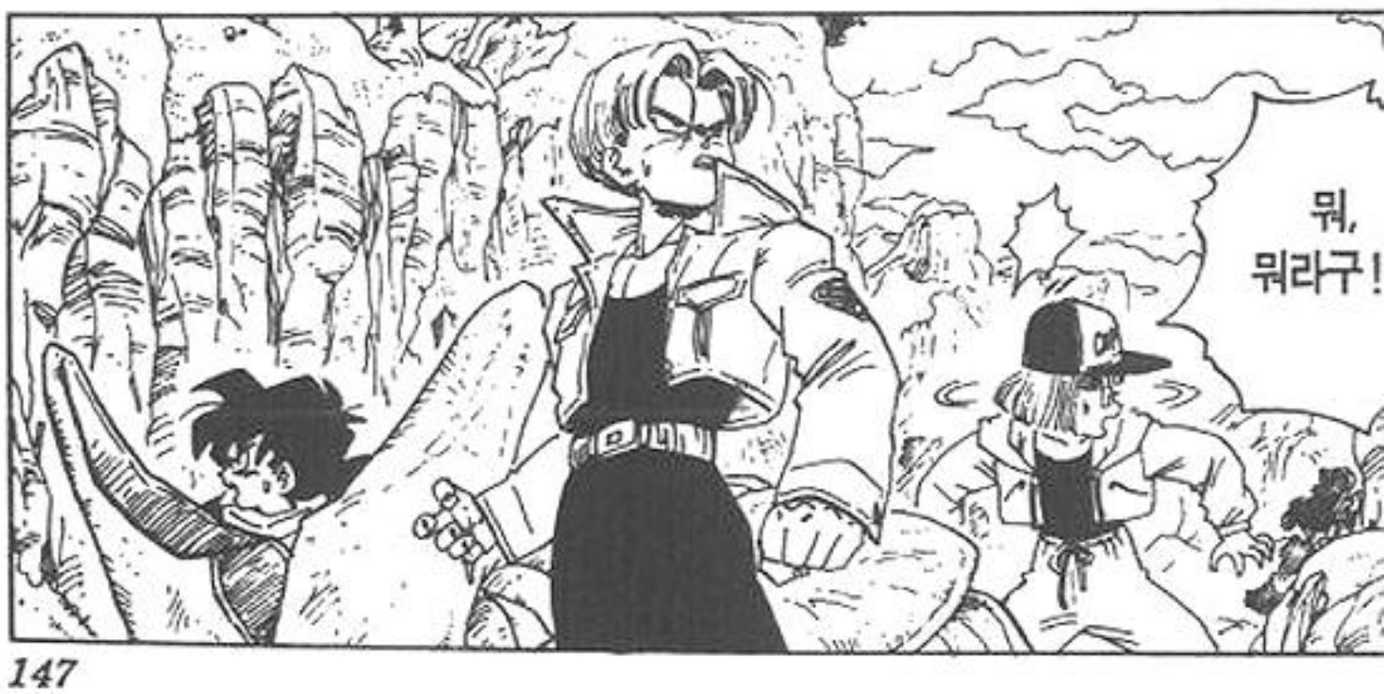

주…, 죽었니?
퍽… 퍽 큰걸….
이… 이게 뭐지…?
이… 이건 죽은 게 아니라 허물을 벗은 거야….
허물!? 이… 이렇게 큰 매미가 세상에 있냐!?
이 부근엔….
이… 이런 매미는 없어….
이… 이건….
아… 아마….
타임머신에 남아있던 알 껍질의 알맹이.
마…, 맞아…. 그게 성장해 허물을 벗고 나온 거야….


그… 그치만
어떻게 이 시대로….
누군가 타임머신에
알을 실어 보낸 건가…?
아니면, 어떤 것이
알과 함께 온 걸까…?
그… 그치만
그 이유를
전혀 모르겠네….
어… 어떻게
된 거야!
이, 이 허물 속에서
대체 뭐가
나왔단 거니!?
모… 모르겠어….
이런 건 본 적이
없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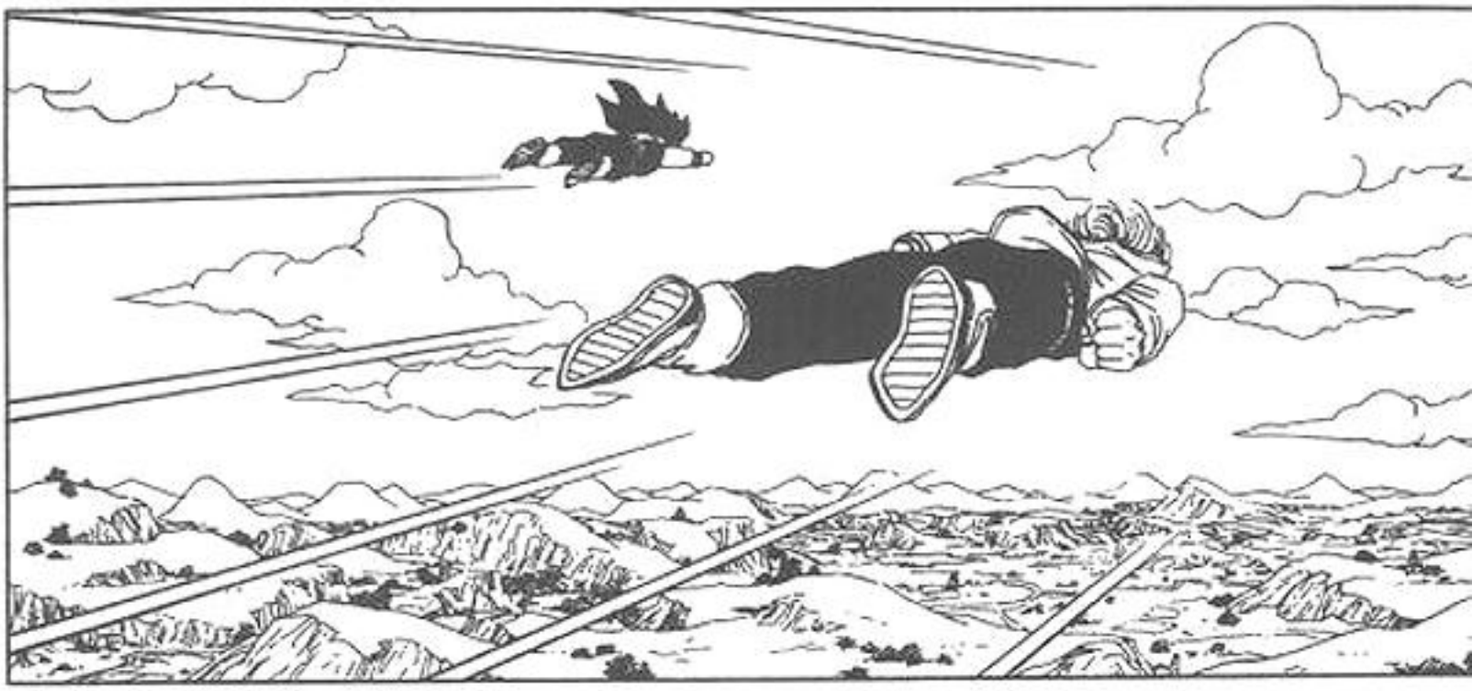

허물에서
나온지
얼마
안 됐어…!
아…,
알맹이는
….


툭~…


……


뭐,
뭐라구!


어… 어쩌지…!?
소…, 솔직히 너무 찝찝하다 …!?
끄덕
응….
빠, 빨리 여기를 뜨는 게 좋겠다!
너희들 거북하우스에 있을 거지!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할게!
아, 알았어.
심심하면 놀러와, 트랭크스-!! 할아버지, 할머니도 기뻐하실걸-!
휘이앙




모…
모르겠다….
전혀
모르겠어….
대… 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지….


휘이이이잉-

마음에 들 거라 생각해? 최악이다.

하지만 이런 촌구석에선 역시 이걸로 참을 수밖에….

너무 멋지십니다요.

마음에 드십니까?

안뇽.

엥!?

자, 잠깐만! 손님, 웃값을…!

끼—…엥

어이, 이봐!

이, 이봐!






콰앙
요
계집
애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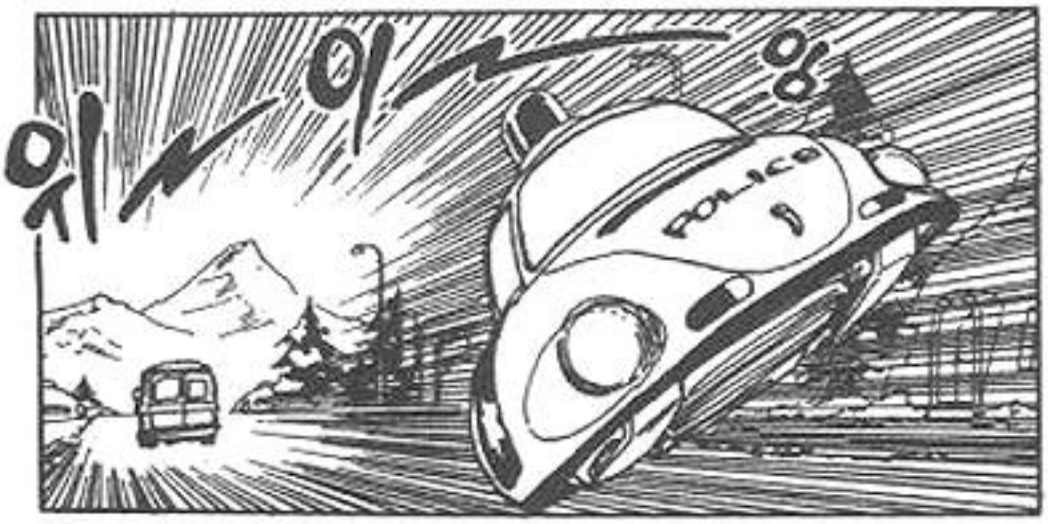

강도예요,
강도!
차는…!
여, 여보
세요!
보안관!


……
무…
무서버라….


부우웅…


좀 더 큰
거리에서
다시 한 번
찾아볼까….
제길….


이 촌스런
옷 좀 봐봐.
후후….
잘 어울리는데,
18호.


이
이
이
POLICE



찰칵
귀찮아.
경찰인가….
엥!?
파밧
LUCKY
LF
COMPANY
뿌쥐!!


쿠콰쾅
악!!
이… 이게
꿈이냐,
생시냐…!?

!!

왜 그래!?
도대체 그 얘기의
의미는 뭐지!

……!!

시…,
신님….

끄응

괴,
괴물
이라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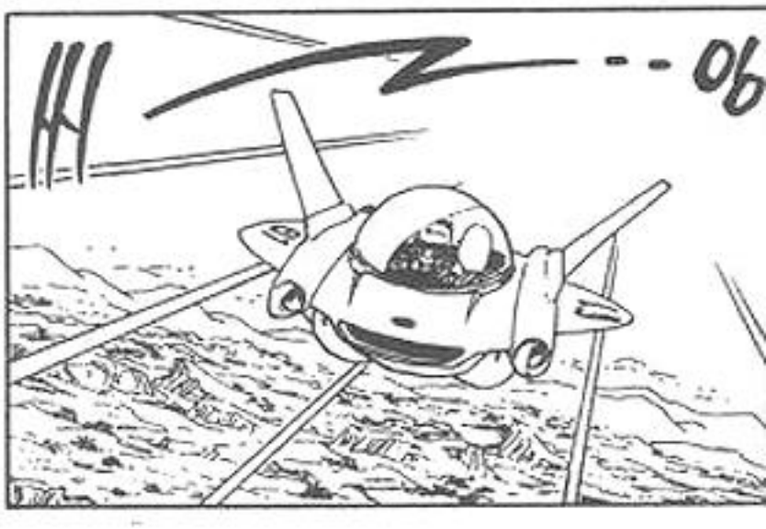
저 괴물은
뭐야—!?

아…
아니…!?













다음은 제360화 신과 대마왕의 융합



씨이 이 이 - - - 잉
아, 여보세요! 난 부르만데 누구지?
크리링?
CAPSULE CORP. 576
아, 예. 크리링 입니다.
뭐? 오반들? 아니, 아직 안 돌아 왔는걸….
텔레비전 좀 켜봐. 모든 채널에서 방송할 것 같은데, 우선 872 채널!
무슨 일 있었어? 어디…, 872채널….

현지에 파견된 조사단의 그후 계속된 조사에 따르면….

아-, 방금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저기, 부르마인데….

뭐야? 누군데?

TV를 켜보래….

이곳 진저타운 일대에서 보내드립니다만, 새로운 것의 발견이 있었습니다.

주민 1만5천명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

대체….

무슨 뉴스지?

희생자의 것으로 보이는 옷들만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지에 리포터가 도착한 관계로….

이…
이건….

이 화면의 옷가지 옆엔 총도 놓여 있어, 뭔가와 싸우고 있었던 것으로….

옷가지만 대량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마치 녹아버린 것처럼…!

1만 5천 명이…?

뭐….

그…
그놈들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군!

이…, 인조인간이야…!

오반이나 트랭크스도 분명 그렇게 생각할 거야….

뭐!?

CAPS

아마…, 인조인간 짓은 아닌 것 같아….

오공은 암전히 잘 자고 있어.

이젠 편안해 졌나봐.

분명 그럴 거야…. 오반 애들이 돌아오면 자세히 물어봐….

그렇다면…, 혹시 그 또 한대의 타임머신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니…?

다녀왔습니다….

아, 무천도사 님. 실례 좀 할게.

탁

탁

……?

……?


바, 방금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앗! 우슨 일일까요!?


뉴스?


이… 이 뉴스 보고 대답 좀 해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 너희들….


가… 가능한 만큼 가까이 접근해 상황을 살펴 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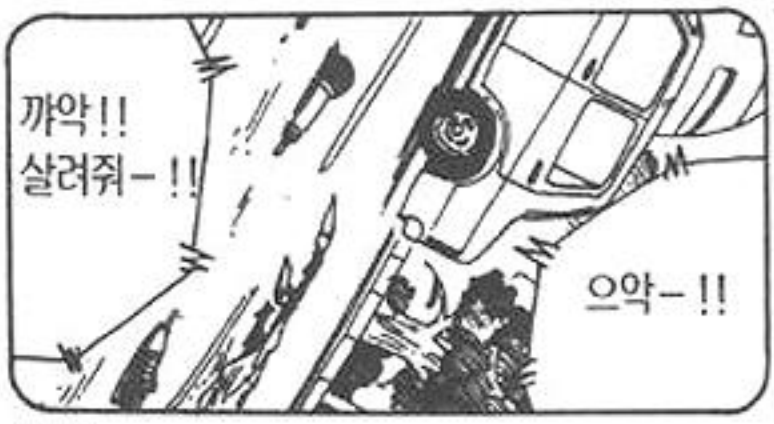

아…! 다시 조용해 졌습니다….
아…! 대… 대체 무슨 일이….


아, 아무래도 저쪽에 있는 조사단원과 경찰관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봅니다!
총성입니다! 총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다른 채널로 돌려봐!
뭐, 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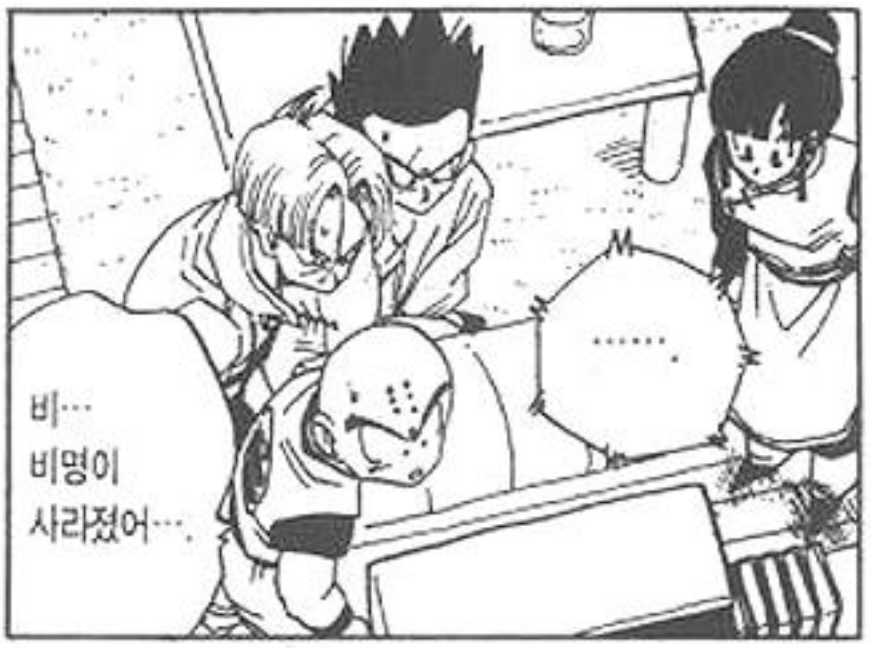





까악!! 살려줘-!!
으악-!!


삐삐삐




비…
비명이
사라졌어….
……


뭐가 보이는지
자세히 좀
이야기해봐!
고만 좀
잘난 척해라….
너 혼자만
즐기면 다야?
크으….


좋아, 불어봐.
하계에서 어떤
괴물을 보았는지….
아…,
알았어….


……
앰마!

너와 내가 융합해서
하나가 되면,
즉각 본 게 뭔지
알 거니까.

일부러
입 아프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지….

이…
이제야
마음을
굳히셨구만….

아무래도
대단한
괴물 같네….



기본 베이스는
내 거
그대로야!

알았지…?



그럼…,
서두르자….

더이상
희생자가
늘어나선
안 돼….

달칵

좋아….



그게 좋을 거야….
넌 젊고, 파워도
지금은 나보다
훨씬 위니까….
당연하겠지.

난 파워업을
위한 밑거름에
지나지 않아….
남은 건
넓은 지식을
가르쳐줄 뿐….



scanned by raprn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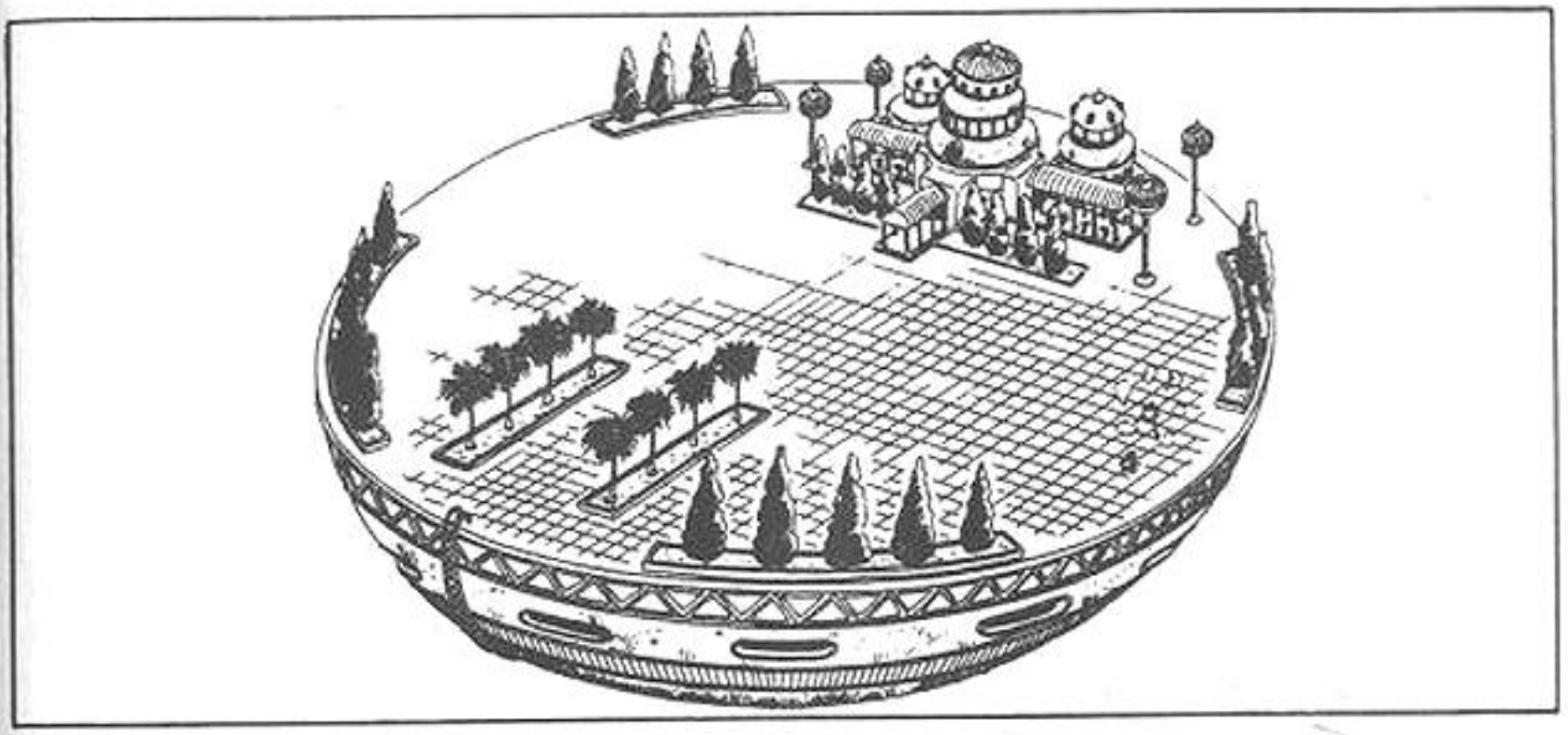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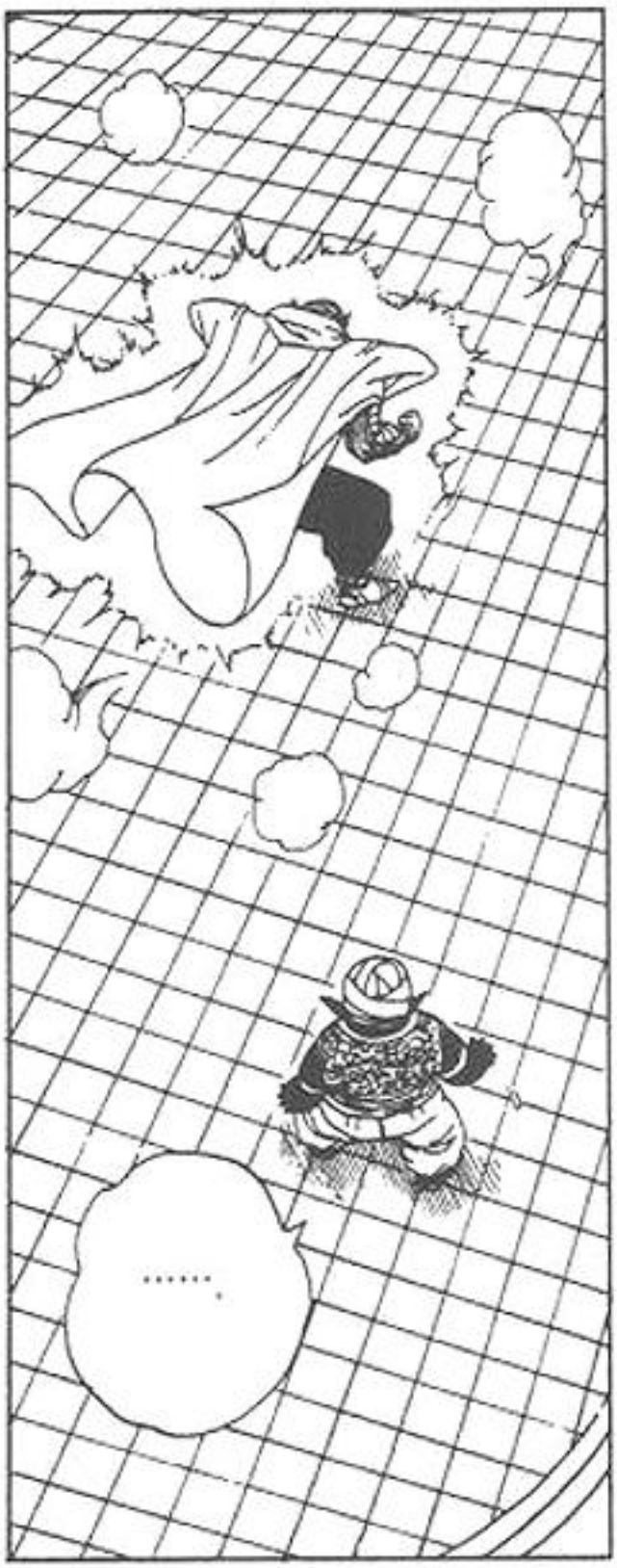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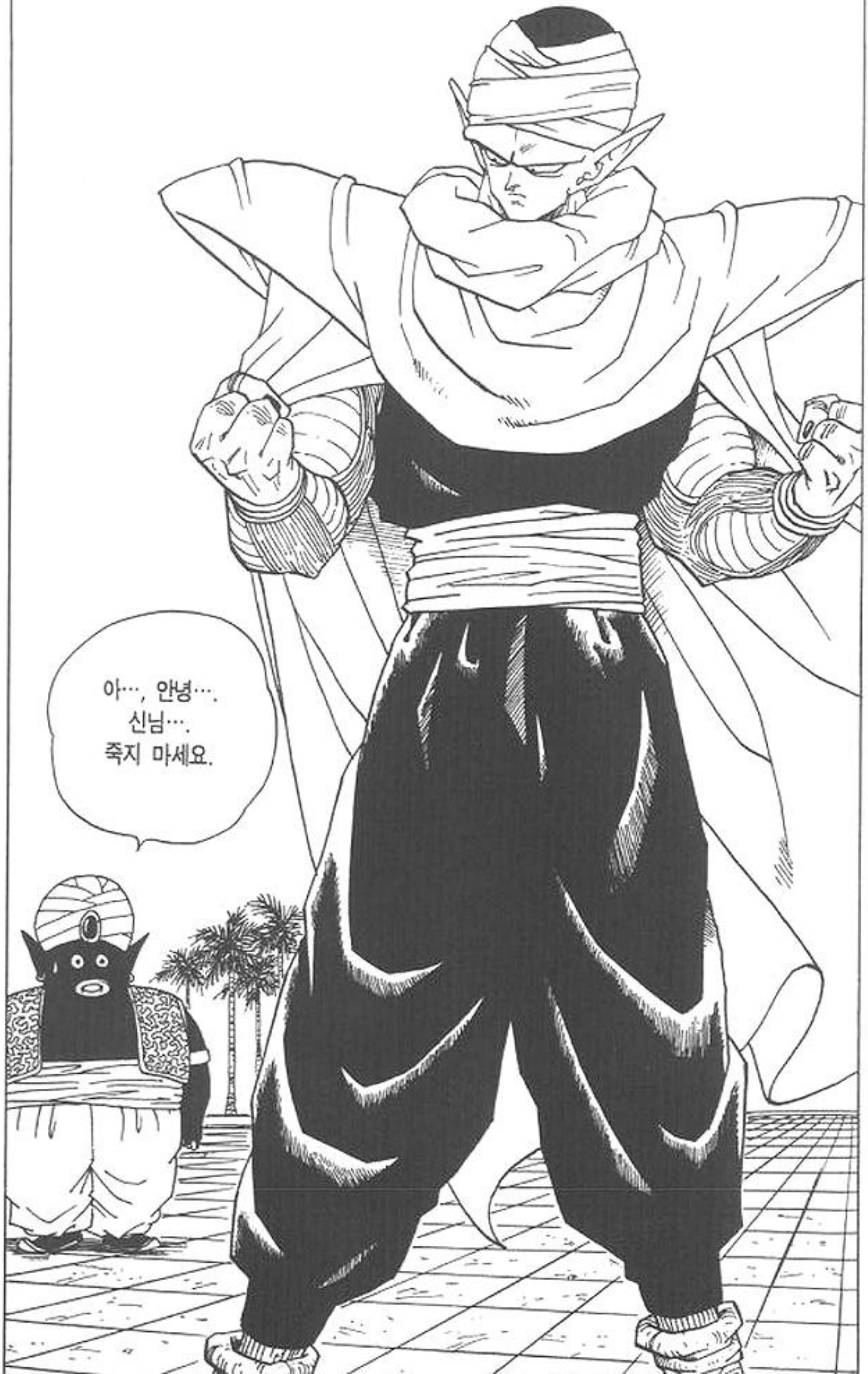





뉘이이이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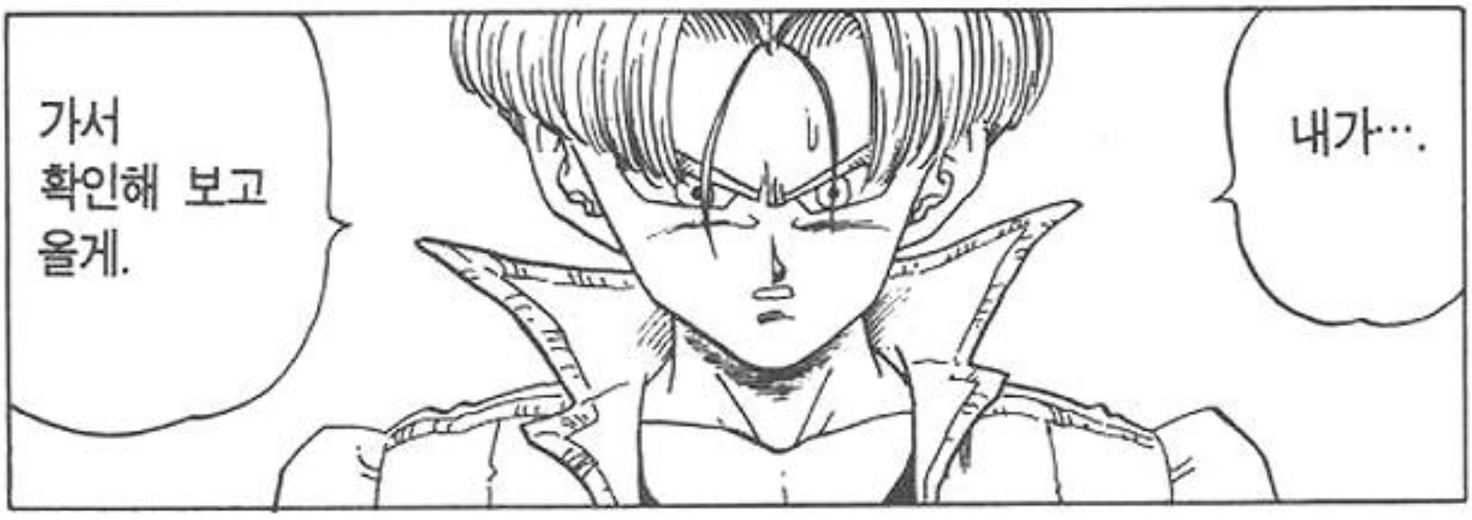



아…, 안녕….
신님….
죽지 마세요.


이제 난 신도 피콜로도 아니다….
자신의 이름을 잊은 나메크성인이야.
그럼 다녀올게.
팟
ㅅㅇㅏㅇㅏ


부…, 분명 그럴 거야.
그, 그 허물에서 나온 놈 때문이라구…!?
장소도 가깝고….


여전히 현장에서의 중계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 아마 무슨 사고가 일어난 듯 합니다….


가서 확인해 보고 올게.
내가….


나, 나도 갈래!


괜찮아. 난 초사이어인으로 변신할 수 있으니까.
진짜 두려운 건 인조인간이거든.
그… 그렇지만….


자, 잠깐!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오반!

그럼 다녀 올게.

대충 위치는 알거든.

나 혼자 갔다 와도 충분해.

오반과 다른 분들은 만약을 위해 손오공 아저씨를 인조인간한테서 지켜줘.

타앗

……

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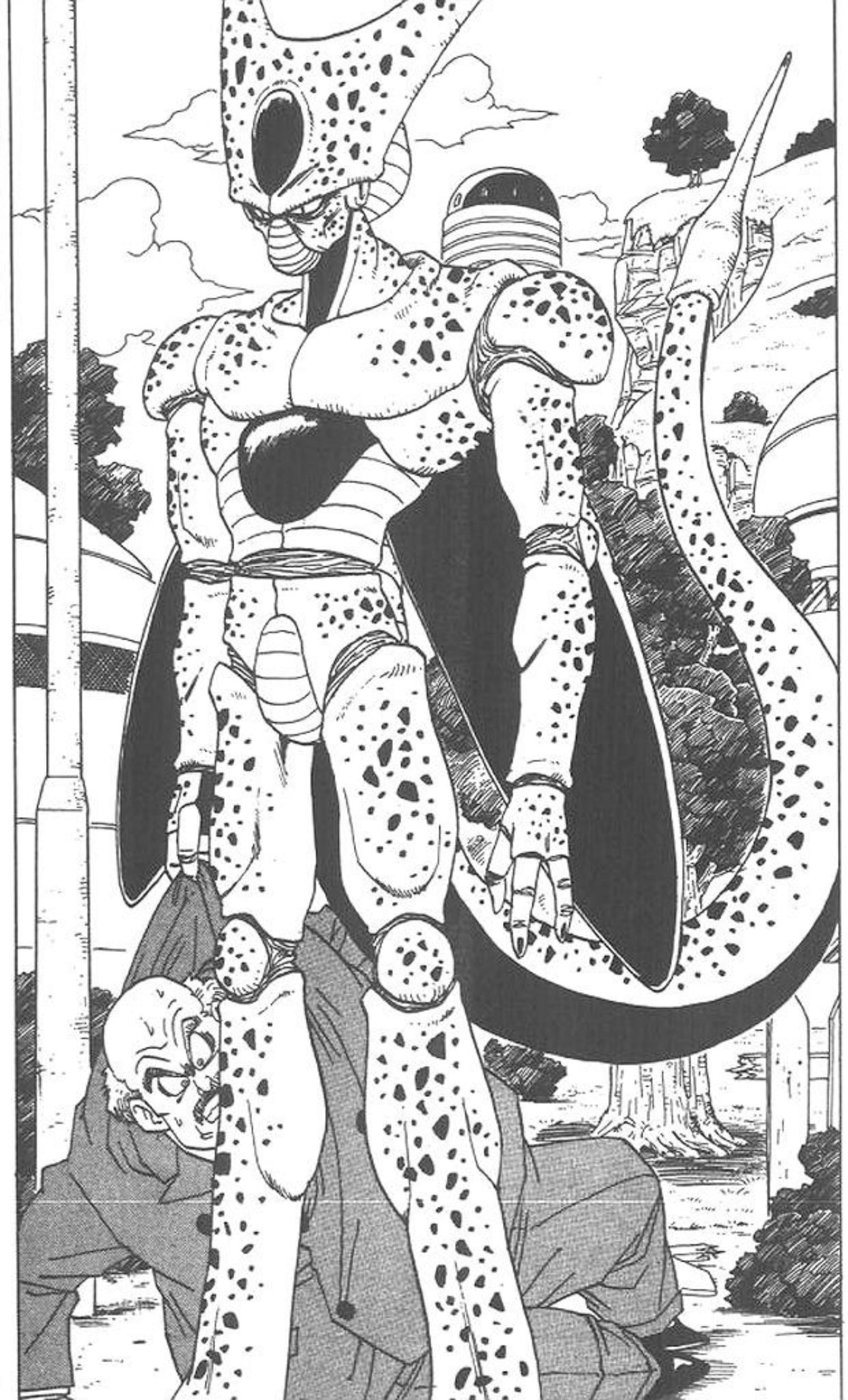




다음은, 제361화 수수께끼의 괴물, 드디어 출현!!


!?


나타났구나,
괴물 자식….



사….

살려줘…!

나, 난
이 마을에서
제일
부자라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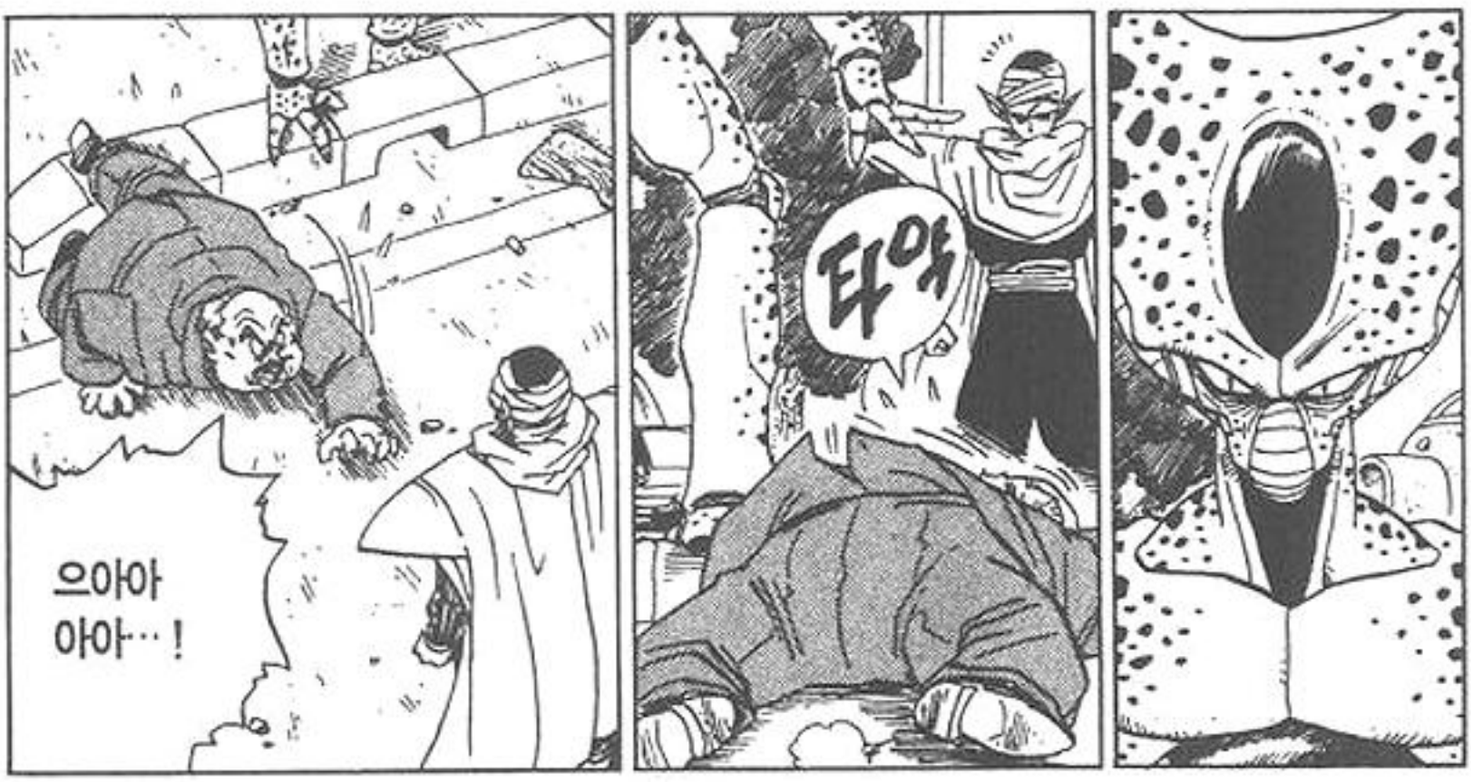
이, 이봐…!
돈이라면
트럭으로
줄 테니
나 좀
구해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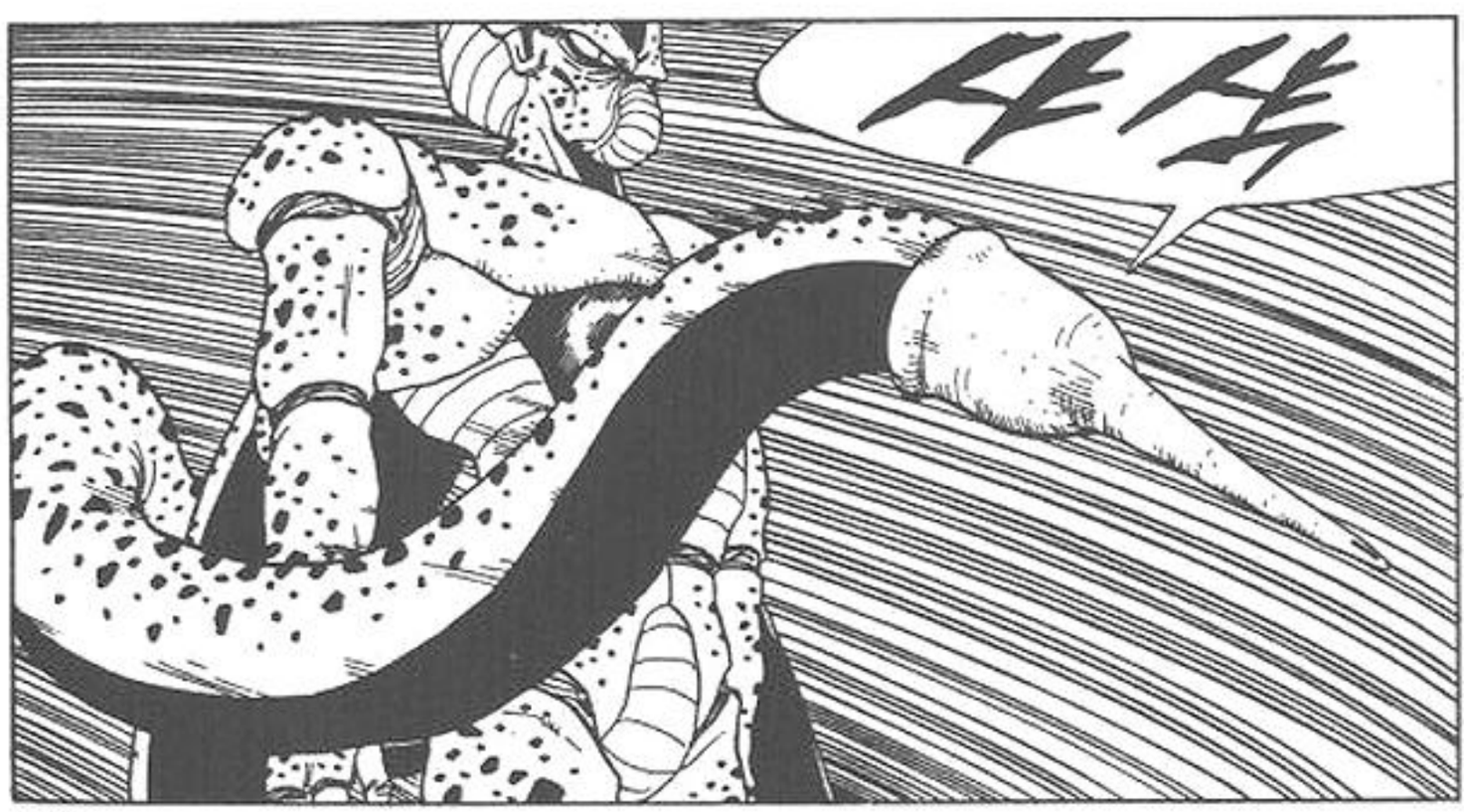
야,
임마!
너…!!

이…
이럴 수가….
대체 어찌된
거야…!!

뭐… 뭐지?
이 녀석에게서
느껴지는 기는…?


그놈을 놔줘!
비록 버러지 같은
놈이라도 사람 목숨은
귀한 것이다.
내 말을
알아듣지는
못하겠지만….


으아아
아아…!
타앗


ㅍㅍ


!!
으아아으…!!
아으…!
크…!
크아아…!
……!

피콜로 대마왕!

이젠 네가 이 꼴이 될 차례다.

아니…!

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너, 넌 누구냐…!?




AKOF
OF


ズズ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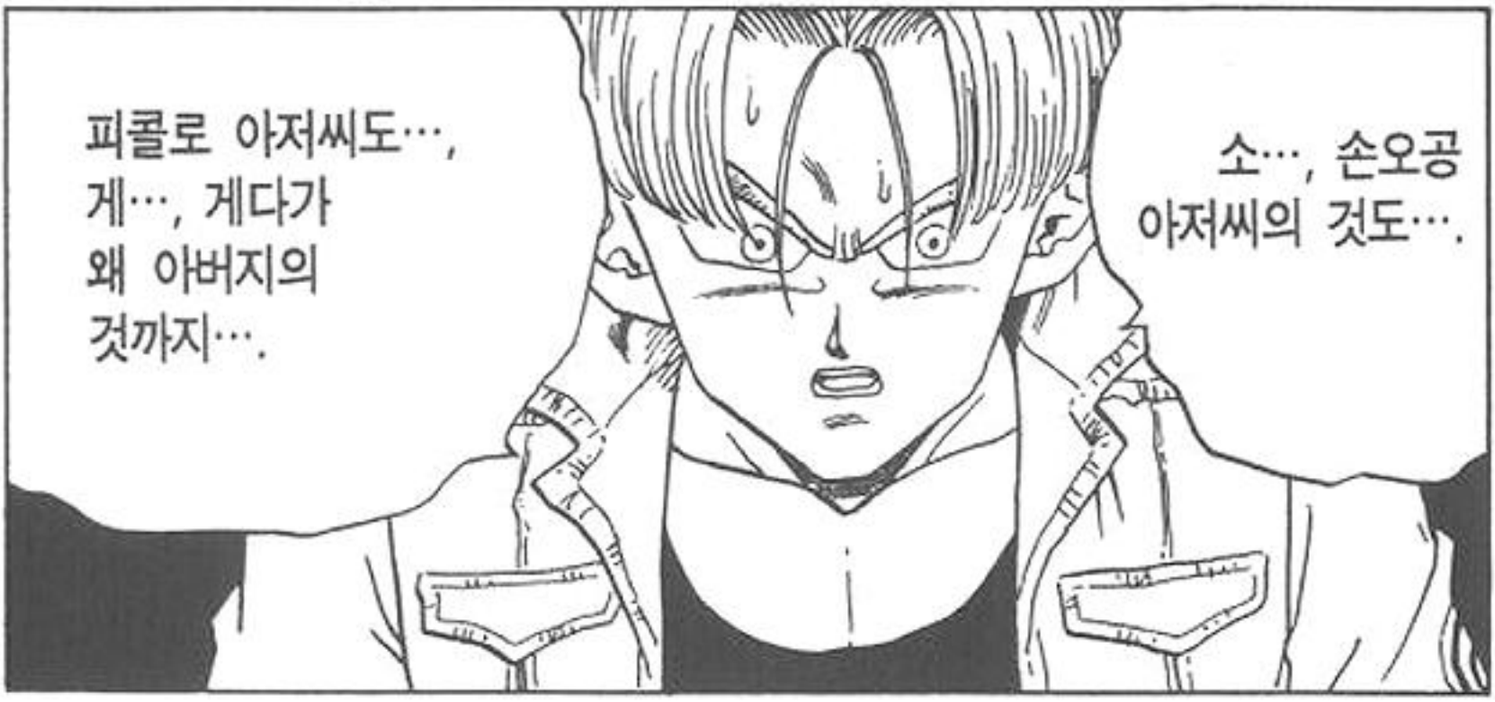

난 너의
형제다!


아…!
이건…!!


끼끼


프리더
아버지의 기….
프…
프리더와….


얘, 얘들아!
어, 어떻게
된 거야…!
이, 이 기는…!


피콜로 아저씨도…,
게…, 게다가
왜 아버지의
것까지….
소…, 손오공
아저씨의 것도….


아빠는
분명 자고
있어!


하… 하지만
그럴 리가 없는데….
프… 프리더도,
그 아버지도
죽었는데….
부…, 분명
느껴져….


그… 그
허물에서
나온 괴물의
정체를…!
역시 가서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이…
이 방향은….
그 사건이
났던 진저
타운의….

세상에
이럴 수가….

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미…,
믿을 수가
없어…!

처…,
천진반…!

빨랑
밝혀라…!

네…
네놈의
정체는
뭐냐…?

그래…, 이야기 못하겠다는 거냐…?

네놈의 숨통을 끊어놓는 수밖에 없지….

그렇다면….

호호호…. 피콜로 대마왕이 나를 죽이시겠다고?

네놈은 어떤 이유에선지 피콜로를 알고 있는 것 같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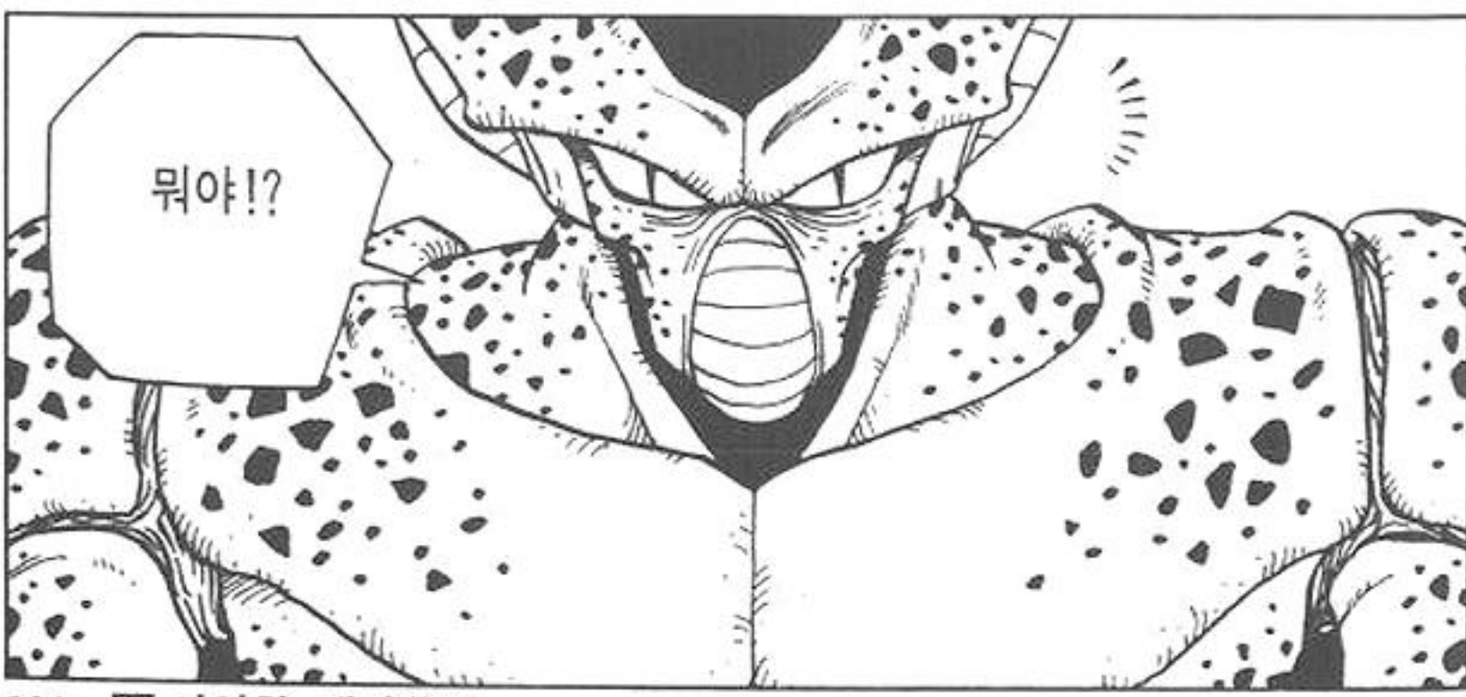
그럴 필요는 없지.

너는 곧 내 식사가 될 테니까.


ST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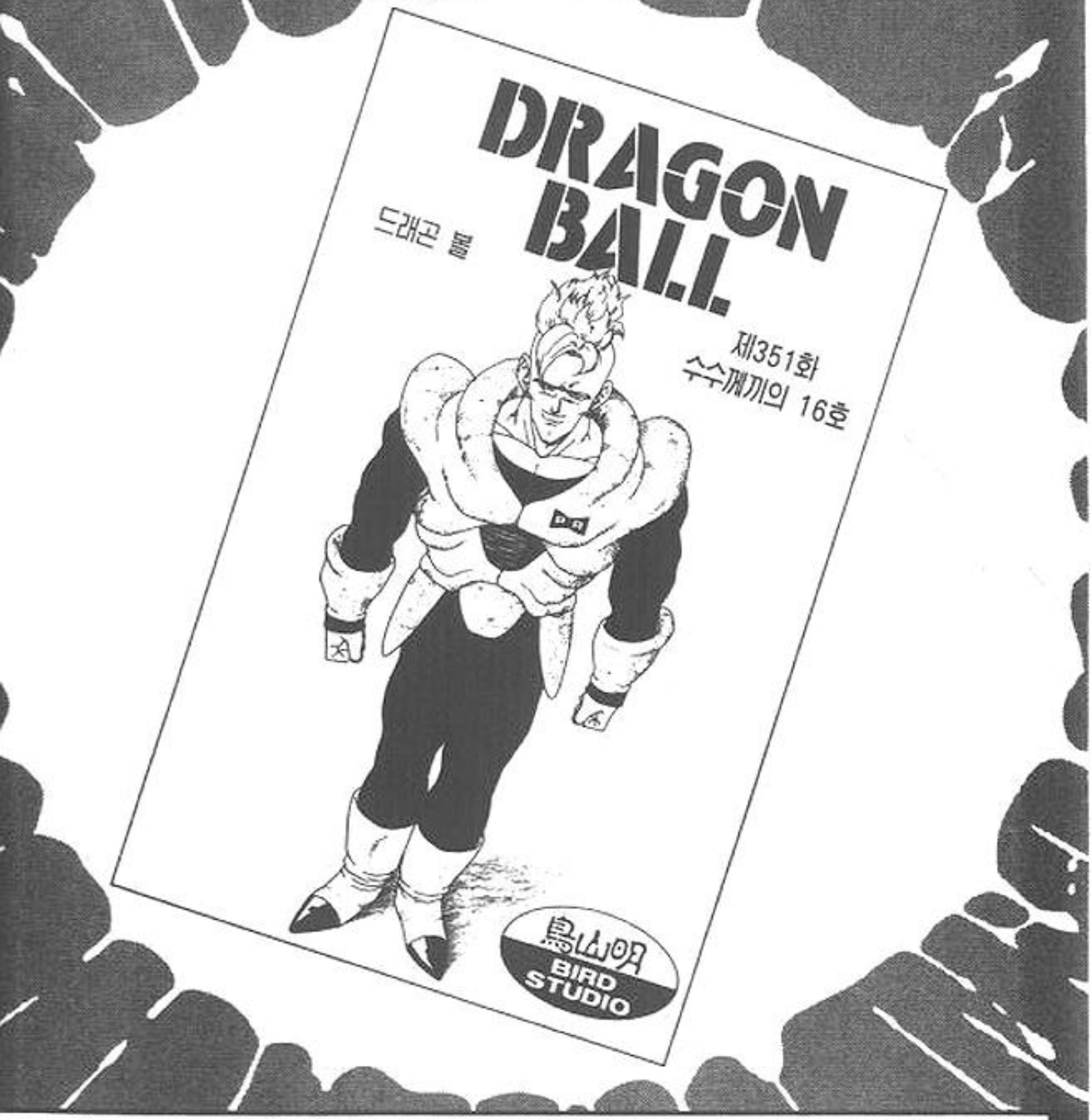

파파파


사람을
잘못
보셨어….
하지만
안 됐군….


뭐야!?

canned by raprnb

표지 페이지 대특집XX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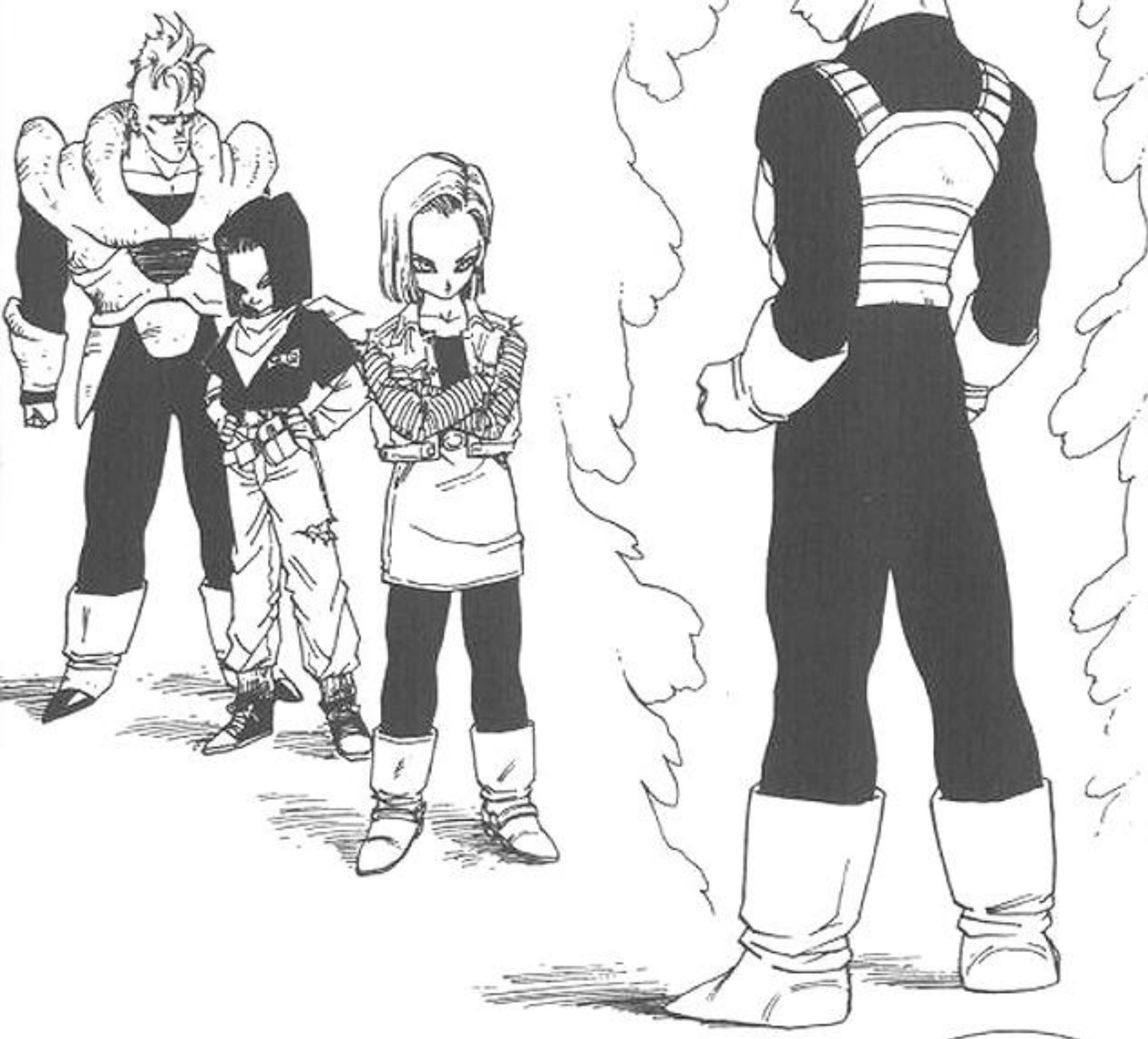


오공을 노리는 3인조 인조인간과,
마침내 출현한 수수께끼의 괴물…!!
피콜로, 프리더, 그리고 오공의 기까지 가진
이 녀석의 정체는!? 초특대 위기가 닥쳐오는 다음 권
전에, IQ점프에 실렸던 그대로의 표지 페이지 대특집이다!!

DRAGON BALL

드래곤 볼

제352화
베지터 대 18호



鳥山明
BIRD STUDIO

드래곤 볼

DRAGON BALL

제353화
베지터의 파워

鳥山明
BIRD STUDIO

DRAGON BALL

드래곤 볼

鳥山明

BIRD STUDIO

358화 사악한 예감



DRAGON BALL

드래곤 볼

제359화

신님은 보았다!!



鳥山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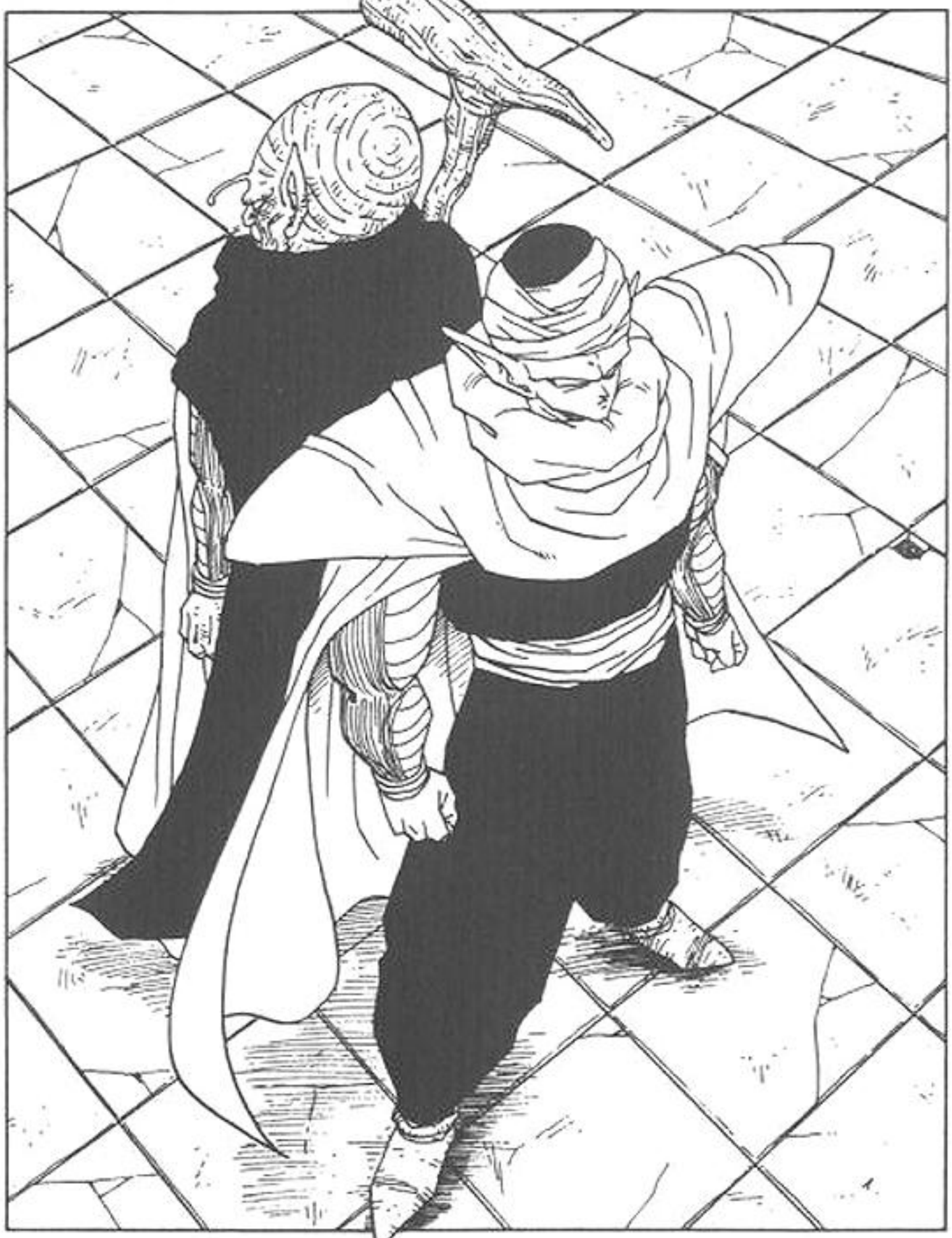
BIRD STUDIO

DRAGON BALL

鳥山明
BIRD STUDIO

드래곤 볼

제360화 신과 대마왕의 영화



DRAGON BALL

드래곤 볼

제361화

수수께끼의 괴물, 드디어 출현!!

